

김성군
변호사

160 main street
Stoneham, MA02180
781.438.6170
www.songkimlaw.com

보스톤 코리아

BOSTONKOREA.com

백영주
부동산

주택 / 콘도
비즈니스 / 건물
617.921.6879
clarapark@ownnewengland.com
ClaraPark.com

POSTMASTER: Send Address Changes to 161 Harvard Avenue, Suite 4D, Allston, MA 02134

전화: 617-254-4654, 팩스: 617-254-4210

ISSN 1554-6942



보스톤 평통이 주최한 3.1절 100주년 기념식에는 보스톤지역 3.1절 기념식 사상 가장 많은 300여명의 한인들이 참여했다. 16일 토요일 열린 기념식에서 텡스(Tufts) 그라노프 홀 300석 좌석을 메운 한인들

**다음호는 인터넷 신문만
발간합니다**

앤도버 의회 출마 댄고 지지 호소

3월 26일 화요일 앤도버 지역 선거
이번 주말 앤도버 지역 가가호호 방문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자 = 연방 하원의원 민주당 경선에서 145표차로 탈락한 댄고(Daniel Koh, 33) 전보스톤시장 수석비서관이 3월 26일 치러지는 앤도버 의회(Board of Selectman) 선거에서 한인 및 주민들의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댄고 후보는 지지자들과 함께 선거 전 주말 동안 앤도버 지역을 가가호호 방문하면서 지지를 호소하는 선거운동을 벌일 예정이다.

올해 앤도버타운 선거는 3월 26일 오전 7시부터 오후 8시까지 앤도버 하이스쿨 등 3곳의 투표장에서 진행된다. 의회는 5석 중 2석이 이번 선거로 결정된다. 1석은 불출마를 선언한 폴 샬러피아(Paul Salafia)에 의한 공석이다. 현재 의장인 알렉산더 비스폴리(Alexander J. Vispoli) >> 7면으로 계속

모든 게 달랐던 보스톤 3.1절 100주년의 봄

민주평통 주최 100주년 기념식 및 헌정음악회 자녀들과 3.1정신 공유원한 가족단위 참가 늘어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장명술 기자 = 한동안 단체장들의 연례행사였던 보스톤 지역 3.1절 기념행사가 가족들이 참여하는 행사로 전환됐다

. 부모와 자녀들, 1세대와 2세대, 다문화 가정의 부부들 모두가 함께 참여해 3.1절의 뜻을 되새겨 보는 기념행사는 지금껏 볼 수 없었던 모습이었

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보스톤지역협회(회장 윤미자, 이하 평통)가 주최한 2019년 3.1 운동 및 임시정부수립 100주년 보스톤 기념식이 텡스(Tufts)대학 그라노프 뮤지컬에서 30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16일 개최됐다.

'백년의 봄'이란 제목으로 기념식과 헌정음악회가 어우러진 기념식 >> 2면으로 계속

이민법
상법
민·형사소송
이혼

성기주 변호사
Kiju Joseph Sung

617-504-0609
Cambridge Office
929 Massachusetts Ave.
Cambridge, MA 02139
www.lookjs.com

law@lookjs.com

최고 가격원천 한국
4/12 보스톤-인천 직항 취항

**보스톤-인천
직항항공권
\$1,199~**

NEW 2019
고국관광
개키지
예약가능!

617.424.8956
IACE TRAVEL

Newstar (IL Realty) in Boston

애나 정

최고의 전문가에게서
최상의 부동산 서비스를
제공 받으시기 바랍니다.

뉴스타 부동산 전국 1위
주택 · 콘도 · 비즈니스 · 빌딩 · 렌트

MA, NH, Korea licensed
Multi - Million Dollar Guild
CLHMS, CRS, CIPS, SRES, ABR

617.780.1675
annajung@newstarrealty.com

Premier Realty Group

나원태 Realtor
Direct: 617.642.3156
won@bostonpremierrealty.com

경험과 전문성으로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을
책임지겠습니다

제이슨 전 Realtor
Direct: 617.642.5670
jason@bostonpremierrealty.com

21 CENTURY 21

주택 | 콘도 | 커머셜
성실껏 도와드리겠습니다

www.BostonParkRealty.com
Tel: 617.935.3241 | 카카오톡: Eileen0311
Email: EileenBostonRE@gmail.com

가족들이 함께 뜻 되새긴 보스톤 3.1절 100주년 기념식

▶▶ 1면에 이어서

은솔로이스츠오브뉴잉글랜드(Soloists of NE, 이하 SONE)의 아리랑 연주로 시작했다. 한국 100주년 3.1절 중앙기념식에서 선보였던 독립선언서 낭독 YTN 버전이 스크린에 상영되며 한국의 감동이 보스톤에도 그대로 전해졌다.

3.1절의 의미를 이제 어렵듯이 짐작하고 있는 뉴잉글랜드한국학교 합창단의 애국가 선창에 따른 300여명의 애국가 제창의 모습도 확실해진 3.1절 기념식이었다. 김용현 보스톤 총영사가 “한국학교 미래세대들이 애국가를 4절까지 부르고 우리도 따라 부른 것은 감동이었다”고 축사에서 언급했었을 정도였다.

조은경 평통 여성분과 위원장의 사회로 진행된 기념식에 윤미자 평통회장은 환영사를 통해 “100년 전 기미년 그날 선조들은 민족의 자주와 나라의 독립을 위해 분연해 일어났다”며 “3.1절의 정신은 어두운 절망 속에서도 함께 뭉친 뜻과 의지가 얼마나 밝은 빛을 비출 수 있는지 가르쳐 주었다”고 말했다.

김용현 총영사는 “존경하는 동포 여러분들과 함께 3.1 독립운동과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기념하는 기념식과 헌정음악회를 갖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고 말하고 대통령의 3.1절 기념사를 대독했다.

기념식 마지막 순서로 한영연 평통 교문 만세 선창에 따라 300여명의 참가자들이 모두 태극기를 휘날리며 만세를 삼창했다. 소프라노 나윤선, 테너 이규영, 피아노 최호경, 하프 정연화 씨 등이 아리아 가곡을 연주했고 영상으로 3.1절 당시 모습을 담은 사진을 보면서 마무리됐다.

이날 행사에는 유난히 가족단위로 행사에 참여한 한인들이 많았다. 하버드에 방문 과학자로 보스톤에 온지 2달 됐다는 박종혁(45) 씨는 아들 박윤호군과 행사장을 찾은 가족 중의 한 사람이었다. 박 씨는 “100주년이어서 한국이 더 생각나고 3.1절의 의미를 아들과 공유하기 위해 찾았다”며 “외국이라 그런지 더욱 감동



애국가를 부르고 있는 뉴잉글랜드 한국학교 합창단



대한독립만세를 외치고 있는 주요 단체장들



3.1절 축사와 대통령 기념사를 대독한 김용현 총영사(좌)와 3.1절 기념식 환영사를 하고 있는 윤미자 보스톤 평통회장



적이었다”고 밝혔다.

이날 합창단으로 또는 부모님을 찾아서 기념식장을 찾은 2세대도 어 느덧 3.1절의 의미를 상당부분 배울 수 있는 기회였다. 이날 뉴잉글랜드한국학교 합창단으로 참가했던 장건(7) 학생은 “한국에서 (독립을 위해) 싸웠던 사람들을

기념하기 위한 것이 짝아요”라고 답했다. 이준호(10) 학생은 “우리나라의 3.1절이 없었으면 우리가 일본사람이었을 것 같다. 그래서 (3.1절이) 정말 중요하고 한국사람인 게 자랑스러웠어요”라고 답했다.

editor@bostonkorea.com

<진료 과목>
 *일반 치과 *잇몸 질환 치료
 *신경 치료 *보철 전문
 *보복스&필러

주요 보험
 Delta, BCBS, Aetna,
 Cigna, MetLife,
 MassHealth,
 etc.

케임브리지 덴탈

큰 웃음을 드립니다

Cambridge Dental Associates
 126 Inman Street
 Cambridge, MA 02139
 (617) 492-8210
 한국어 진료 상담 가능

**형사법
 상법/회사법
 유언장/ 상속
 민사법
 부동산법**

스티븐 김 변호사
 보스톤 검사 경력
 (Steven S. Kim)

617.879.9979
 stevenkimlaw.com

The Law Office of Steven S. Kim
 2001 Beacon Street, Suite 101,
 Boston, MA 02135
 Steven@stevenkimlaw.com

미 대선후보 '돌풍' 앤드류 양을 아십니까?

보편적 기본 소득(Universal Basic Income) 공약 온라인에선 민주당 주요 대선후보와 어깨 나란히

(보스턴 = 보스턴코리아) 한새벽 기자 = 우후죽순 격으로 늘어나는 민주당 대선후보중 최초의 아시안계 대선 후보 앤드류 양(Andrew Yang)이 '돌풍'을 일으키고 있다. 처음엔 "저 아시안계로서 이름만 남기려고 하나?"라고 생각했다. 그의 아이디어가 가득 찬 인터뷰를 듣고 나면서 생각이 바뀌었다. 미국내에서도 소셜네트워크(SNS), 팟캐스트를 중심으로 그에 대한 팬덤이 형성되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팟캐스트가 이제는 미국 주류 언론들이 앤드류 양의 '돌풍'을 주목하고 있다.

44세의 사업가인 앤드류 양은 2018년 2월 뉴욕타임스에 자신의 프로젝트를 실으면서 대선후보 출마를 선언한 정치 신인이다. 브라운대, 콜롬비아 법대를 졸업한 양은 테크 스타트업에 시작했으나 실패했고 이후 대입시준비 회사의 대표가 된 후 1천1백만불에 회사를 카플란(Kaplan)에 넘겼다. 현재는 대출 창업에 관심있는 학생들을 훈련시키는 벤처포아메리카(Venture for America)를 운영하고 있다.

아무도 관심을 가지 않던 그가 소셜

네트워크(SNS) 돌풍의 핵심이 된 것은 그의 핵심 공약 유니버설 베이직 인컴(universal basic income) 덕이다. 특히 젊은층인 밀레니얼 세대에게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있다. 인공지능과 자동화로 인한 대량실업의 사태에 대비해 모든 18세 이상의 성인들에게 모두에게 소득에 상관없이 매달 \$1,000의 자유배당(Freedom Dividend)을 주자는 것이다.

사회주의 적 발상이 아니냐는 CBS 앵커의 질문에, 양 후보는 "나는 회사를 경영하는 자본주의자"라고 답한다. 그는 과거의 경우 회사가 생기면 수천명에 달하는 직원을 고용해 경제의 주춧돌이 됐었는데 앞으로 다가올 테크 회사들은 자동화와 인공지능의 발달로 인해 소수의 인원만 고용하게 될 것이고 대량 실업사태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경우를 대비해 자유배당을 지급하게 되면 이를 소비하고 결국 경제는 이를 통해 활성화 될 것이라는 게 그의 설명이다.

앤드류 양의 팬덤은 "양갱(Yang Gang)"으로 불리는 지지모임으로부터 시작했다. 트위터와 커뮤니티 사이

트인 레딧(Reddit)에서의 팔로워들이 수백개의 밈(Meme)을 만들어 퍼트리면서 팟캐스터들의 주목을 받았다. 이 같은 패턴은 2016년 트럼프 팔로워들이 밈을 제작해 바람을 일으켰던 것과 유사하다.

박스(Vox)의 예자 클라인과 샘 해리스 팟캐스트 그리고 수백만의 청취자가 있는 코메디언 조 로건과의 2시간 인터뷰는 흥분을 터트리기 시작했다. 무려 6만5천의 기부자가 몰렸으며 1백만불의 선거자금을 순식간에 거둬들였다. 2016 대선에서 버니 샌더스도 메디케어포올(Medicare for All)을 주장하며 레딧에서 지지자들이 형성됐고 이후 페이스북에서 팬덤이 형성되면서 클린턴과 최후까지 대결을 벌이기도 했다.

기존의 관념에서 보면 앤드류 양은 아직 변방의 후보다. 지금까지 그의 지지율은 1%다. 지금껏 민주당 지지자들이 그를 진정한 후보로 인식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최근들어 CBS 등 주류 언론이 앤드류 양을 인터뷰 하면서 점차 앤드류 양의 바람이 주류사회로 불어들어오기 시작하고 있다. 뉴욕타임스도 앤드류 양을 주목하기 시작했다. 20일 양의 '돌풍'에 대한 기사를 게재했다.

물론 그가 넘어야 할 산은 많다. 민주



YangGang2020 @YangGang2020

Secure the bag! #YangGang #YangGang2020 #YangBucks



최초의 아시안계 대선 후보 앤드류 양(Andrew Yang, 위). 앤드류 양의 팬덤은 "양갱(Yang Gang)"으로 불리는 지지모임으로부터 시작했다

당 기성 정치계는 아직 그에게 마음을 열지 않고 있다. 지금껏 단 한명의 정치적 지지를 얻지 못한 것이 이를 증명한

다. 온라인에서의 열기를 현실의 표로 전환하는 것이 그의 과제다. hsb@bostonkorea.com

SAT Plus

SAT Plus Spring Schedule 2019

All Classes Starting March 16th(Saturdays)

Class	Time
SAT II MATH IIC	9:00AM - 11:00AM 3/16 - 5/25
SAT II Chemistry/AP Chemistry	11:30AM - 1:30PM 3/16 - 5/25
SAT II Biology/AP Biology	2:00PM - 4:00PM 3/16 - 5/25
SAT II MATH IC	5:00PM - 7:00PM 3/16 - 5/25

SAT Plus Summer Schedule 2019

July 2019

Class	Time
SAT I Prep	8:00 AM - 12:00 PM 7/8 - 7/26 Mon-Fri
Chemistry(Preview)	1:00 PM - 3:00 PM 7/8 - 7/29 Mon/Wed/Fri
Biology(Preview)	4:00 PM - 6:00 PM 7/8 - 7/29 Mon/Wed/Fri

August 2019

Class	Time
SAT I Prep	8:00 AM - 12:00 PM 8/5 - 8/23 Mon-Fri
SAT II Subject Tests (for August 24 test)	1:00 PM - 3:00 PM 8/5 - 8/23 Mon/Wed/Fri 4:00 PM - 6:00 PM

SATI 및 SATII 준비 전문학원

SATPLUSTUTORING.COM

TEL: 781-398-1881

393 Totten Pond Rd #101, Waltham, MA 02451



"항상 Tutoring이 가능합니다!!"

English Writing, Biology, History, Chemistry, Math, Physics

10년 이상의 지도경력으로 우수한 학생을 배출하신 한상훈 선생님이 항상 지도하시고 계십니다.

시민협회 정치인턴 모금만찬 6일 개최

기조연사 샘윤 전 보스톤시의원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자 = 뉴잉글랜드한인미국시민협회(회장 이경해, 이하 시민협회)가 차세대 정치인턴 지원을 위한 장학금모금 만찬을 렉싱턴에 위치한 엘크스 클럽 (Elks Club)에서 4월 6일 토요일 오후 6시 개최된다.

올해 정치인턴 만찬에서는 한인들에게 익숙한 샘윤 KAA(Korean Americans in Action) 사무총장이자 전 보스톤시의원이 기조연설을 전달한다. 시민협회가 아직 식순과 연설제목을 최종 결정하지 않아 구체적인 제목은 정해지지 않았다.

90년 창립한 시민협회는 98년부터 정치인턴 사업을 시작해 지금까지 총 90여명의 정치인턴 장학생을 배출했다. 이들 인턴들은 여름방학 동안 연방상원의원, 매사추세츠 주지사, 하원의원 등의 사무실에서 인턴으로서 근무했다. 시민협회는 정치인턴 기금모금만찬을 통해 모은 기금으로 선발된 인턴들에게 대학생 \$2000, 고교생 \$500의 장학금을 지급해왔다.

올해로 22년째를 맞는 시민협회 정치인턴장학생 모금 만찬의 참가비는 지난해 기준 일반인이 \$60이며 학생 및 시니어의 경우는 \$30이었다. 올해 참가비 또한 아직 미정이다. 이 행사에 대한 문의는 이경해 회장 (508-962-2689), 혹은 김성군 이사장(617-799-7033)에게 할 수 있다.

이경해 시민협회 회장은 “우리 한인의 권



2018년 시민협회 정치인턴 장학금 수여식 모습

익확보와 정치력 신장을 위해 미래를 밝힐 젊은 정치인턴 사업 후원에 성원을 보여주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고 말했다.

일시: 토요일, 4/6/19, 6시

장소: Lexington Elks Club, 959 Waltham St, Lexington, MA, 781-862-9759

기조연사 샘윤

샘윤 KAA사무총장은 2세 인권운동가이다. 전미주한인 지도자들과 연맹하여, 동포들의 미국사회 전반에 걸친 적극적인



샘윤 KAA사무총장

참여를 돕고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샘윤은 2012년 워싱턴에서 CKA (Council of Korean Americans)를 창단하여 6년여 기간 동안 미국 전역에 걸쳐 190명의 정회원, 2백만불 예산, 네명의 임원진을 갖는 조직으로 성장시켰다. KAA는 CKA의 이사들의 권장으로 좀더 일선에서 일하기 위해 만들었으며 CKA활동의 연장선상에 있다.

보스톤의 한인들은 보스톤시장에 도전했던 샘윤을 기억한다. 이전에 그는 차이나타운에 위치한 ACDC의 디렉터로 일했으며 보스톤 시의원에 출마해 2선까지 4년동안 시의원활동을 했다.

bostonkorean@hotmail.com

첨단 나노공정, 신약개발 현장의 목소리 듣는다

서울대 동창회 브레인 네트워크 세미나 소강표 박사-나노공정, 고종성, 최찬혁 박사 폐암 치료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편집부 = 화제가 되고 있는 첨단 최신정보를 전문가를 통해 알아보는 브레인 네트워크 세미나가 4월 6일 오후 3시 MIT 스테이타센터(Stata Center)에서 개최된다.

서울대학교 미주 동창회(회장 윤상래)가 주최하는 이번 세미나의 주제는 나노기술과 폐암치료다. MIT에서 특허받은 나노기술을 적용한 금속 제작을 연구하고 있는 소강표 박사와 안센에 1조4천억 기술수출 대박을 터트린 제노스코(Genesco)의 고종성 대표, 그리고 MGH에서 방사선을 통한 폐암 치료를 평생을 연구해온 최찬혁 박사가 연사로 나선다.

나노기술 개발과정, 폐암치료 신약 개발과정, 방사선 폐암치료 과정을 현장에서 이끌고 있는 전문가들로부터 들을 수 있는 드문 기회다. 서울대 미주 동창회 홍보국도 “이 귀중한 기회를 놓치지 말고 많이 참석하여 소중한 정보를 얻기를 바란다”고 당부한다. 세미나 후에 저녁식사까지 제공되므로 첨단의 정보 지식은 물론, 배까지 채울 수 있다. 문의는 윤상래 회장(978-835-0100)에게 할 수 있다.

일시: 4월 6일 토요일 오후 3-5시

장소: MIT Stata Center: 31 Vassar St, Cambridge, MA 02139

bostonkorean@hotmail.com

나쁜 치아를 만났다면 좋은 의사를 만나야 합니다.



진료과목
일반치과
신경치료
잇몸질환치료
보철전문
보톡스&필러

주요 보험
Delta, BC/BS,
Aetna, Cigna,
Metlife, etc...

한국인
진료 상담 가능
응급치료 가능

617.871.1482

캠브리지 덴탈 어넥스 Cambridge Dental Annex

Tel 617.871.1482
Fax 617.871.1483

정관장



정관장으로 에브리타임 활력충전!

3월 31일 까지

Event 1



홍삼정 240g 구입시
홍삼정 Mild 100g 증정

Event 2



홍삼정 골드, 홍천옹 구입시
홍삼정 마일드 10파우치 증정

전화주문 서비스

로 주문후 다음날 편하게 받으세요!
\$100 이상 주문시 무료배송

보스톤 정관장 브랜드스토어

타주로도 배송 해드립니다.

781-238-0303

3 Old Concord Rd.
Burlington, MA 01803



작년 뉴잉글랜드 과기협 주최 수학경시대회가 4월 7일 토요일 MIT에서 개최되었다

뉴잉글랜드 지역 수학경시대회 온라인 등록 시작

4월 13일 성요한 교회서 개최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편집부 = 재미과학기술자협회(KSEA, 이하 과기협) 주최 수학경시대회가 렉싱턴에 위치한 성요한 교회 (St. John's United Methodist Church)에서 4월 13일 토요일 오후 1시부터 열린다. 이에 따라 과기협 뉴잉글랜드지부는 올해로 28회째를 맞는 수학경시대회 온라인 사전 등록을 받고 있다.

수학경시대회는 매년 미국 내 4-11학년에 재학중인 학생들을 대상으로 미국 전역에서 동시에 열리는 전국적인 행사다. 뉴잉글랜드 지역에서는 과기협 뉴잉글랜드 지부가 주최 및 주관

하며 재미한국학교협회의 뉴잉글랜드 지부가 공동 주최한다.

이 날 수상자는 전미 수상자 후보로 자동 선정되며, 매년 뉴잉글랜드 지역의 상당수 학생들이 전미 상위권에 랭크되고 있다. 참가를 원하는 4-11학년 학생들은 과기협 홈페이지 <http://nmssc.ksea.org>를 통해 온라인 등록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온라인 등록 마감일은 4월 7일이며, 참가비는 온라인 등록 25달러, 현장 등록 30달러이다.

현장 등록 및 온라인 등록자 시험출석 확인은 오후 1시이며, 1시 45분에 각 시험실로 이동하게 된다. 과기협 홈페이지는 예제 및 정답을 제공하고 있으므로 미리 출제 문제를 예상해 경험해

볼 수도 있다.

이번 수학경시대회는 한글학교 글짓기 대회와 같이 진행되는 관계로 시상식은 생략하며, 상장과 상금은 추후 발송될 예정이다.

정유진 회장은 이번 행사의 진행을 도와줄 자원봉사자들의 참여를 원하고 있다고 전했다. 수학경시대회 자원봉사에 관심있는 분들은 과기협 홈페이지 내용을 참고하고, 상세 문의는 정유진 회장(contact@kseane.org)에게 하면 된다.

일시: 2019년 4월 13일 토 1시
장소: 2600 Massachusetts Ave. Lexington, MA 02421
bostonkorean@hotmail.com

국제선교회 연례 기금모금 만찬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편집부 = 국제결혼가정선교회(회장 채명희, 이하 국제선) 연례 모금만찬이 해버힐에 위치한 디버로스 평션홀 (DiBurro's Function Hall)에서 4월 27일 토요일 6시에 개최된다.

국제선은 지난 23년 동안 매년 따뜻한 봄기운이 돌면 모금만찬을 개최해 뉴잉글랜드와 보스톤 한인들의 봄 추억을 만들어 왔다. 또한 이 추억과 함께 모은 기금으로 평화의 땅, 평화의집 쉼터 구축과 2세 지원을 위해 사용하고 있다.

채명희 회장은 "그동안 여러모양으로 보스톤 국제선교 지부들도

우시고 23년 동안 연중행사로서의 모금만찬 (평화의땅, 평화의집 쉼터)를 위한 자리에 오셔서 자리를 빛내 주시기를 바랍니다." 고 당부했다.

올해도 만찬의 참가비는 1인당 \$60이다. 문의는 채명희 회장 (978-828-5818)에게 할 수 있다.

일시: 4월 27일 2019년 오후 6시 \$60.00 per person.

장소: DiBurro's Function Facility, 887 Boston Road Haverhill, MA 01835

bostonkorean@hotmail.com

로드아일랜드 한인회 붓글씨 강의 개강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편집부 = 로드아일랜드 한인회 문화위원회는 어른 및 학생을 대상으로 4월 1일부터 10월 1일까지 붓글씨 강의를 시작한다.

강사인 오철수 선생은 2005년 백산서법연구원에 입교해 오동섭 서예가로부터 서예를 전수받았으며 그동안 대한민국서예공모전에 수차 입상한 경력을 보유하고 있다. 경북대 공과대학교수로 정년퇴임

했다.

어른반은 수요일, 학생반은 목요일 오후 각각 수업을 10주간 진행하며 강의료는 1주당 \$5이다. 로드아일랜드 한인회는 나머지 수업료 등을 로드아일랜드예술진흥프로그램(RI-EAP) 그랜트로 보충하게 된다.

자세한 문의는 윤광옥 이사(401-525-1830)에게 할 수 있다.

bostonkorean@hotmail.com

서울설령탕

한식 세계화의 종갓집이 되겠습니다

1245 Commonwealth Ave, Allston | 617.505.6771

다가오는 봄, 서울설령탕의 피전, 족발, 보쌈, 수육과 함께 각종 주류를 즐기세요!

서울설령탕
Seoul Seolrye Tang
1245 Commonwealth Ave, Allston
617.505.6771
SeoulBeefSoup.com

서울 SEUL
Seoul Food Boston
155 Cambridge St, Boston
617.873.8880
SeoulFoodBoston.com

가주 순두부

캔모어 지점 그랜드 오픈

영업시간 : 오전10시 ~ 밤10시까지

KAJU

Korean Gourmet Food

2013, 2014년 보스톤 매거진 선정 **한식 1위**

캔모어 지점
636 Beacon St.
Boston, MA 02215
(617) 936-4252

얼스톤 지점
56 Harvard Ave.
Allston, MA 02134
(617) 208-8540

교사 사은회 및 연수회 성황리에 개최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편집부 = 재미한국학교 NE지역 지역협의회(회장 이현경)는 토요일 2019년 교사 사은회 및 교사 연수회를 뉴튼에 위치한 세인트 다비시 보스톤한인성당에서 3월 9일 개최했다.

140명의 교사 및 지역 단체장들이 참여한 이번 행사에서 이현경회장은 “주말마다 2세들의 한국문화와 한국어 교육을 위해서 많은 시간 헌신하며 봉사하고 있는 NE지역 14개 학교 교사들의 노고에 큰 박수를 보낸다”고 감사를 표했다.

김용현 총영사는 “오랜 시간 주말 수업을 진행하면서 여러 어려운 여건 속에 차세대들을 위하여 애써 주시는 교사님들과 또한 이번 행사

준비를 위해 많은 수고를 해 주신 이현경회장을 비롯한 모든 임원진들께 감사드린다”고 격려했다.

이날 시상에는 우수교사상과 우수 보조교사상, 그리고 장기근속상과, 낙스재단의 차세대 리더상, 재외동포재단에서의 해외한글학교 장기근속교사상이 시상되었다. (수상자 리스트는 아래 참조) 우수교사 수상과 장기근속 시상은 장인숙 이사의 후원으로 이뤄지고 있다.

교사연수회에서는 애머스트 김도윤 강사가 “비영리법인 운영법”에 대한 세미나를 진행하였고 질의응답의 시간을 가졌다. 2부에서는 황은아 학생이 솔로 '꿈꾸지 않으면'과 '바람의 빛깔' 두곡을 불렀고 내슈아 한미

음 한국학교의 학생들이 랩과 동요가 어우러진 “내가 바라는 세상”을 불러 많은 박수를 받았다.

한식뷔페로 준비된 저녁식사 후 교사단체들이 서로 단합해 게임을 하는 친목의 시간을 보냈다. 재미한국학교 협의회는 다음 행사로 4월 6일에 글짓기 대회 및 나의 꿈 말하기 대회를 개최한다.

이현경 회장은 “행사 때 마다 많은 성원해 주시는 이사님들과 단체장님들께 감사드리며 또 뒤에서 많은 격려와 후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윤미아 이사장님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린다”고 전했다.

bostonkorean@hotmail.com



재미한국학교 NE지역 지역협의회(회장 이현경)는 토요일 2019년 교사 사은회 및 교사 연수회를 뉴튼에 위치한 세인트 다비시 보스톤한인성당에서 3월 9일 개최했다

수상자 명단

우수교사	내슈아 한미음 뉴잉글랜드	나미현/Mihyun Na 박미희/박미희 엄혜진/Hyejin Eom 맹은선/Ely Stearns 신민영/Minyoung Cha 장성렬/Sung Ryeol Chung
	성요한 애머스트	양대연/Amber Yang 이민주/Yi, Minju 이승빈/Lee, Seungbin
	우스터	이정미 / Jungmi Lee 최명아 / Myungah Choi
	천주교	이혜미/Hye Lee 이수연/Suyeon Lee
	보스톤한국학교	안고은/Goeun An
보조 우수교사	내슈아 한미음 뉴잉글랜드	조희준/Joshep Cho 이소정/Sochong Yi
	성요한 애머스트	양우영/ Candace Yang 문성호/Moon, Sungho
	천주교 보스턴	김경렬/kyeong kim-O'Sullivan 김정원/Jung Won Kim
5년 장기 근속교사	내슈아 한미음 뉴잉글랜드 천주교	나미현/Nihyun Na 김진희/Jinhee Kim 홍순우/Soonwoo Hong 최경훈/Kyunghun Choi 권인호/Inho Lidwina, Kwon 이준/Joon Lee
10년 장기 근속교사	뉴잉글랜드	이성희/Sunghie Lee 김혜련/Hye-Roun Kim 김경선/Kyungsun Kim
15년 장기 근속교사	뉴잉글랜드	김형준/Hyoung Jun Kim 강승연/Seung Youn Kang
20년 장기 근속교사	성요한 보스턴 학교	이현경/Julia H, Lee 이승연/Seungyeon Lee
25년 장기 근속교사	뉴잉글랜드	이현경/Hyunkyung Lee 주민정/Min Jung Joo

낙스재단의 차세대 리더상
 내슈아 한미음 한국학교- 최세영, 조희준
 뉴잉글랜드한국학교- 변성민, 송소연, 정지원, 조유경
 밀알한국학교- 권민수, 박정민, 유기원
 보스톤한국학교- 정종인
 성요한한국학교- 조민우, 양우영

재외동포재단의 해외한글학교 장기근속교사상
 김소희 (10년), 김희현 (10년), 김정자 (10년)
 이성희 (10년), 남선경 (10년), 김영순 (20년)



이명원 회계사

한국 공인 회계사
미국 공인 회계사

MW LEE, CPA P.C. 대표
호연회계법인 국제조세 본부장

(전) 삼일회계법인 근무
(전) 한국 공인회계사회 세법 강사
(전) Rucci, Bardaro & Barrett P.C. 근무

617.455.8073
mwl@mwleecpa.com
1318 Beacon St. #12(right)
Brookline, MA 02446

공인회계사

정진수
CPA / MBA



개인 및 사업체 세무보고



- ▶ IRS문제 상담 및 해결
- ▶ 사업체 법인 설립과 해체
- ▶ 회계처리 및 감사
- ▶ 경영진단 및 절세 상담
- ▶ 융자 상담 및 재무재표 작성
- ▶ 급여(Payroll)서비스

TEL 781-849-0800, 508-580-3946 (한인전용)
FAX 781-849-0848
220 Forbes Rd., suite 206, Braintree, MA. 02184



공인세무사
김창근

- 개인 및 사업체 세무보고
- 사업체 법인 설립과 해체
- 경영진단 및 절세 상담
- 회계정리

미 연방정부로부터 공인된 세무전문가
Licensed to Practice Before the IRS



TEL: (781)935-4620 FAX: (781)935-4187
165-M New Boston St. Suite 278, Woburn, MA 01801

청소년 모국연수 서둘러 신청하세요

동포청소년 1천여명 모국 방문기회
재외동포재단 사상최대 인원 선발
숙식 제공 및 항공료 50% 지원
입양인 참가 지원시 항공료 전액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편집부 =
올 여름 1천여 명의 재외동포 청소년
들이 여름방학을 이용, 대거 모국을
방문해 모국체험 연수 기회를 갖게
된다.

재외동포재단(이사장 한우성)은
올 7월 9일부터 8월 6일까지 3차례에
걸쳐 전 세계 재외동포 중고생,대학
생을 초청하여 모국연수를 시행한다.
재외동포 중고생,대학생 모국연수
는 동포 청소년이 모국의 사회·문화
역사를 체험함으로써 민족적 동질성
을 유지하고 글로벌 인재로 성장하도
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재단은 올 해가 '3.1운동 및 대한
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임을
기념하여 전국 11개 지역(대전, 군산,
진안, 광주, 여수, 춘천, 영천, 대구, 제



주, 전주, 고양)에서 역사의 현장을 체
험하는 프로그램으로 진행할 계획이
다. 동포 청소년 선발인원은 전년 대
비 4백여명이 늘어난 1,030명 수준이
다.

재단은 동포청소년들의 참가를 늘
리기 위하여 항공료의 50%를 지원하
고 있으며, 특히 올해부터 동포 입양
인과 입양인 자녀가 참가할 경우 항
공료 전액을 지원기로 했다. 아울러
그 동안 참가자가 적었던 재일동포도
참가자를 크게 늘릴 방침이다.

미국에서 5년 이상 체류한 한인 청
소년으로 일정한 요건(중고생: 만 14

세~18세, 대학생: 만 18세~24세)을
갖추면 참가가 가능하다. 동포 포털
(www.korean.net)과 재외공관을 통
해 이달 말인 3월 31일까지 신청을 완
료해야 한다. 신청은 자기소개서, 재
학증명서, 각종분야 수상 서류, 추천
서(학교장, 카운슬러) 등을 첨부해야
하므로 서둘러야 한다.

- 중고생: 1차 '19.7.17(수)~7.23(화), 2차 '19.7.31(수)~8.6(화) 서울 및 지방 11개 도시

- 대학생: 19.7.9(화)~7.16(화) 서울 및 지방 약 3개 도시

bostonkorean@hotmail.com



앤도버 의회 출마 댄고 지지 호소

▶▶ 1면에 이어서
의임기만료로 재선에 나섰다. 타운
의원의 임기는 3년이며 의장은 1년
에 \$1700, 의원들은 \$1500을 받는다.
댄고 후보는 언론들과의 인터뷰
에서 "연방 의회에서나 타운의회
에서 봉사하는 것은 모두 같은 원칙
에 의한 것"이라며 "선출직으로
서 최선의 능력을 발휘해 사람들을
돕는 것"이라 설명했다. 댄고 후
보는 이메일을 통해 "이번 선거에
hsb@bostonkorea.com

서 어떤 것도 당연히 하지 않을 것
이며 가까호호 문을 두드리며 표를
얻겠다" 고 밝혔다.
댄고 후보는 "이번만큼은 재개
표는 없기를 바란다" 고 밝혔다. 앤
도버에 집을 구매할 계획이라는 댄
고 후보는 새해 첫주 보스톤의 스타
트업 HqO의 파트너로 경영진 팀에
들어간 근무중이다.

재외동포재단 초청 장학생 모집

한국 학사 및 석박사 장학금으로 유학 가능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편집부 =
재외동포재단이 재외동포 차세대 인
재들을 대상으로 '초청장학생' 모
집한다.

이번 모집은 2020학년도 3월 학기
국내대학 학사과정 및 대학원 석·박
사과정 입학 예정자가 대상이다. 한
국어 능력우수자의 경우 2019학년도
9월 학기 입학 지원이 가능하다. 학사
과정은 45명 내외, 석·박사과정은 55
명 내외의 인원이 선발된다.

2019년 9월 1일 기준으로 학사는 만
25세 미만, 석·박사는 만 40세 미만인
경우의 재외동포로서 거주국 국적을

보유하고, 전 교육과정을 거주국에서
이수(이수예정)한 사람이어야 지원
자격이 주어진다.

지원자는 동포재단 웹사이트
(www.korean.net)에서 지원신청서
및 각종 서류를 작성, 인쇄할 수 있다.
이외에 각종 필요서류 및 증명서류
를 오는 4월 15일 월요일까지 주보스
톤총영사관으로 접수해야 한다. 필요
서류는 해당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

모든 서류는 본인이 직접 한국어로
작성해야 하며 졸업증(또는 졸업예
정증명서), 성적증명서, 추천서 등 거

주국 해당기관에서 발급된 제출서류
는 원본과 함께 한글로 번역·공증해
제출해야 한다.

최종선발 및 합격자는 오는 5월 초
발표될 예정으로, 재단은 초청장학생
으로 선발된 학생에게 입학학기부터
4년간(8학기) 장학금 및 매월 90만원
의 생활비, 거주국과 인천공항 간 일
반석 항공료, 월 3만원 상당의 보험 등
을 지급한다.

재외동포재단 초청장학생 모집'
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보스톤총영
사관(617-641-2830)에게 문의하거나
관련 웹사이트(korean.net)에 접속하
면 된다.

bostonkorean@hotmail.com

뉴잉글랜드 한인간호사 협회 세미나

환자 안전, 결과 향상을 위한 의료정보기록 이해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편집부 =
뉴잉글랜드 한인간호사 협회는
간호사 대상으로 '환자의 안전과
결과 향상을 위한 의료정보기록의
이해를 위한 주제' 로 세미나를 4
월 14일 일요일 오후 3시에 개최한
다.

하버드 의대(Harvard Medical
School) 박사후 과정 연구원 및 브
리 감 앤 위 민 스(Brigham and
Women's) 병원 연구 펠로우로 있
는 의료정보 전문가 강민정 박사가
간호정보학의 이해, 간호의 결과
기록, 전자의료기록 등에 대한 강
연을 진행한다.

보스톤메디컬센터(725 Albany
Street, Boston) 사피로센터 컨퍼런
스룸 #1에서 열리는 이번 강연은
일반간호사와 간호대학, 특히 간호
정보에 관심이 있는 간호사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뉴
잉글랜드 한인간호사 협회 회원의
경우 무료이며, 비회원은 \$20의 입
장료를 받는다.

세미나에 대한 문의는 info@ko-
reannurses.org 로 할 수 있으며, 간
단한 음료와 스낵이 제공된다. 주
차는 병원 주변 무료 주차가 가능
하다.

bostonkorean@hotmail.com

Kim Law Offices, L.L.C.

성심을 다해 변호하겠습니다

김연진 변호사

Yeon J. Kim, Esq.

주요 경력

- 前미연방 이민국 심사관
- Boston지사 에서 만여건의 영주권 시민권 심사
- 前 미연방 세관 특별수사관
- NY지부 연방 범죄 관련 직접 수사
- 前 미국 육군 심문관

업무분야

이민법 / 상법
형사법 / 가정법

Tel: (781) 932-0400 Fax: (781) 932-0403
3 Baldwin Green Common, Suite 210 Woburn, MA 01801

Attorney at Law

장우석 변호사

파산보호, 콜렉션 방어, 채무 조정
신용점수 분쟁 및 조정
교통사고 상해, 이민법
법인 사업체 등록, 정관, Bylaws, TIN
부동산/비즈니스 P&S 및 Closing
민/형사 소송

파산보호신청 의뢰인께
드리는 기본 서비스

프리미엄 크레딧 리포트
크레딧 어슈런스
리포트 모니터링 서비스(1년)

*익스페리언, 트랜스 유니언, 에퀴팩스 및 공공기록,
저당 및 판결결과 조사, 추가료, 현 점수 및 정리이후
예상 신용점수도 함께 제공

*Data Provided by CIN LEGAL Data Services.
Additional fee may apply.

장우석 변호사

매사추세츠 및 뉴욕 주 라이선스
CHANG & ASSOCIATES, P.C.

781.712.1706 FAX: 781.712.2066
changlaw781@gmail.com

67 South Bedford Street, Suite 400 West, Burlington, MA 01803

한미선 공인회계사

Master of Science in Taxation

IRS, MA DOR 와의 세금 문제 해결
사업체 세무보고 및 회계/경영 자문

- 회사의 설립 및 해체/ 회계처리/회계 감사
- QuickBooks Set-up - 비즈니스의 성격 및 구조에 맞는 기본설치 및 운영상담
- Payroll 서비스 및 고용주의 세금납세 대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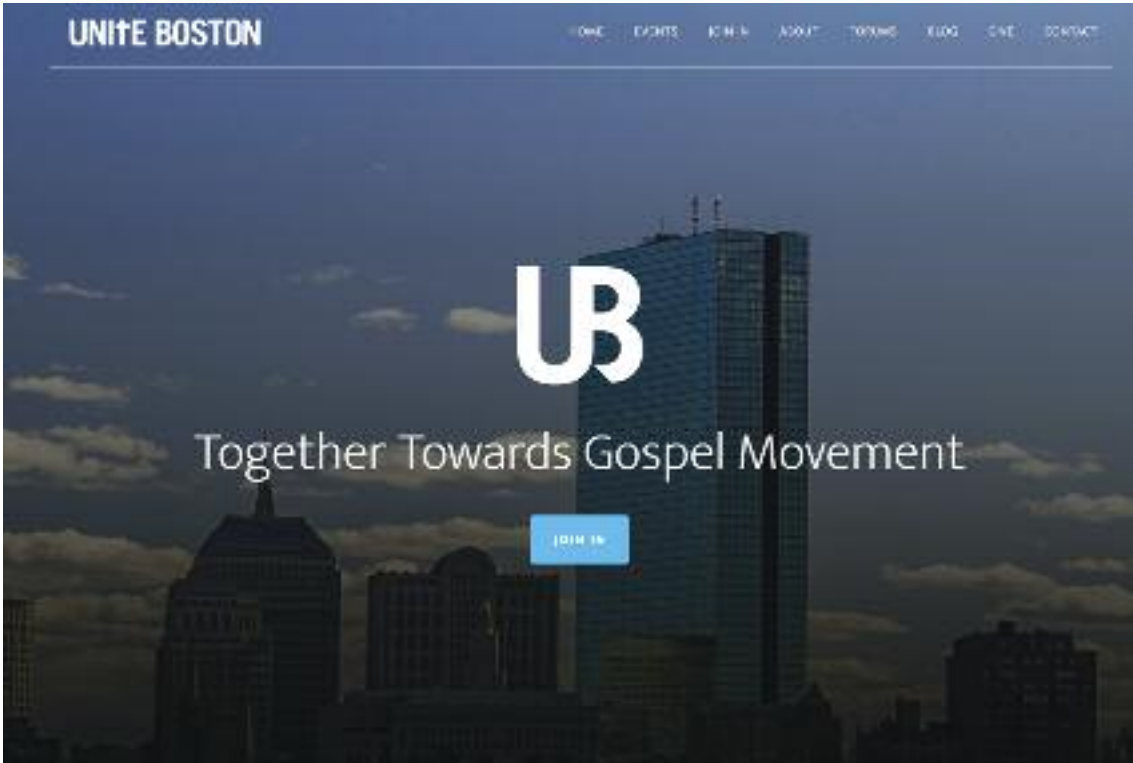
개인 세무 보고

- 해외 소득, 임대소득, 주식 등 투자, Self-employed 사업자, 자산 처분, Clergy, Military, F1, J1 Visa holders - 한국과의 Tax Treaty 하에 있는 분 등

각종 세금 공제 및 절세를 위한 세무 상담

Tel: 617-792-2355 Fax: 617-849-5852
E-mail: michellehan.cpa@gmail.com
www.mhancpa.com

Cambridge: 125 Cambridge Park Dr. Ste301
Cambridge MA 02140
Woburn: 76 Winn St. 1F Woburn MA 01801



Unite Boston, 문화나 인종이 다르다는 이유로 서로 섞이지 않는 사람들이 다 같이 모여 저녁 식사를 나누고 함께 기도 모임을 갖는다

이웃과 함께 어울려 사는 삶을 위한 세 가지 팁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정선경 기자 =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어쩌면 삶의 변화는 개별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더불어 사는 공동체 안에서 비로소 가능해지는 것일지도 모른다. 이웃과 함께 어울려 사는 삶을 도모하는 보스톤 지역의 비영리 단체 세 곳을 소개한다. 자원봉사로 지원하여 어린 소녀의 멘토가 되거나 저녁 식사 모임의 멤버가 되어 잘 알지 못하던 인근 지역 주민과의 관계를 돈독하게 할 수 있다.

Big Sisters
어린 소녀들을 위한 1:1 멘토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멘토를 신청하는 사람은 최소 만20세 이상이어야 하며 12개월 이상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것을 기본 조건으로 한다. 멘토인 빅 시스터가 되면 7에서 15살 사이의 리틀 시스터와 짝을 이루게 된다. 일주일에 한번 주말이

나 저녁 시간에 만나서 운동이나 그림 그리기와 같은 활동을 함께 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멘토가 되는 것 이외에도 다양한 방법으로 자원봉사에 참여할 수 있다. 미국 내 300여개의 지부가 있으며 2015년 미국 내 최고의 에이전시에 선정되기도 했다.

bigsisiter.org
Unite Boston
문화나 인종이 다르다는 이유로 서로 섞이지 않는 사람들이 다 같이 모여 저녁 식사를 나누고 함께 기도 모임을 갖는다. 지역별로 묶어 친목을 도모하는 저녁 식사는 주로 멤버의 집에서 팟락 형식으로 진행된다. 일 년에 한번 이뤄지는 기도 모임은 1월 말에 일주일간 진행되며 8월에는 초교과적인 예배의 밤을 갖는다
uniteboston.com
The Boston Project

이웃 지역을 더 푸르고 안전하고 건강하고 경제적으로 탄탄하게 만들고자 하는 단체로 보스톤 돌체스터를 기반으로 운영 중이다. 2012년에는 비어있는 공터에 정원을 가꾸고, 이 일에 지역 청소년들을 고용해 참여하도록 했다. 지역 발전을 위해 주민들과 공무원, 경찰, 인근 비영리 단체와의 만남을 정기적으로 주선하여 삶의 질 개선을 위한 소통의 자리를 만들고 있다. 도움이 필요한 지역 주민들이 언제든 찾아가서 초인종을 누른다고 하는 “이웃 사역의 집”은 갈 곳 없는 아이들의 숙제 장소가 되기도 하고, 긴급상황에 즉각적인 도움을 제공하는 비상 보호 시설이 되기도 한다. 현재 예술 프로젝트를 도울 화가와 여름 기간 동안 참여할 자원봉사를 찾고 있다.
tbpm.org
sun@bostonkorea.com



일상에서 로그아웃, 자연으로 로그인 클리프 워크(Cliff walk)에서의 산책, 어떠세요?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송민정 기자 = 어느 에세이 집에서 읽었던 문구가 생각난다.

‘이 곳은 또 다른 낯선 도시입니다. 다시 가슴이 뛰기 시작합니다. 저는 여전히 여행 중입니다.’

그렇다. 나는 그런 또 다른 낯선 공간이 주는 그 새롭고 가슴 설레는 느낌이 좋아서 여행을 즐긴다.

하지만, 여행을 좋아하는데도 막상 몇 날 며칠을 일상에서 과감히 떠나는 일은 마음만큼 쉽지 않다. 그래서 즐기는 것이 바로 당일 치기 아니면 1박 2일의 짧은 여행이다. 그래서, 오늘은 보스톤에서 1시간 남짓 걸리는, 그래서 당일 치기로 충분히 감성 충전을 하고 가벼운 마음으로 돌아 올 수 있는 곳, 가까운 로드 아일랜드의 클리프 워크(Cliff walk)에 대해 소개 해보려 한다. 사실 로드 아일랜드는 낭만적인 도시다. 영화 ‘위대한계좌’ 등 많은 클래식 영화의 배경이 된 곳이자, 미국인들이 사랑한 케네디 대통령과 재클린 케네디의 결혼식이 이뤄

졌던 세인트 메리 교회가 이 곳에 있다. 고풍스럽고 아름다운 역사와 이야기들을 가득 담은 어마어마한 맨션들, 즉 산업 혁명기 미국의 대표적인 부자였던 밴더빌트가의 여름 별장 브레이크즈나 마블 하우스 같은 부호들의 별장을 곳곳에서 만날 수 있는 가하면 도시 중심에 있는 선착장에서는 다양한 모양의 보트를 만나 보는 재미도 있다. 하지만, 뉴포트 여행의 하이라이트를 꼽으라면 나는 단연 클리프 워크(Cliff walk)에서의 산책을 꼽고 싶다. 대서양 해안가를 따라 절벽 위에 조성된 이곳은 산책로 길이가 3.5마일, 왕복 7마일 정도 되는데 한도 끝도 없이 펼쳐지는 푸른 바다 풍경은 일상에 지친 마음과 영혼을 편안하게 달래 준다. 아름다운 바다가 내가 매일 마주하는 포근한 한기 밥상이라면 기분 좋게 찻집 가는 파도 소리와 갈매기들의 모습은 별미 반찬이다. 중간중간 걷다 보면 만날 수 있는 우아한 자태의 맨션들도 이 산책의 즐거움 중 하나. 세월 ▶▶9면으로 계속

마음대로 골라본다

\$14⁹⁹

Plus 상품
방송 3사 \$14⁹⁹

Premium 상품
방송 3사 / 중편 / 지상파 / 케이블 \$24⁹⁹

VIP 상품
방송 3사 / 중편 / 지상파 / 케이블 / Live / 스포츠 \$34⁹⁹

지금 전화하세요!
617.949.1766

뉴잉글랜드 한국학교

www.ksneusa.org

1975년 개교 · 뉴잉글랜드 최대 규모 · 최고수준의 한국학교
한글교육 · 음악 · 미술 · 역사부문 교사 모집 & 등록 문의
수업시간: 토요일 9:30~2:00 (아침일찍반: 8:30~9:25)

(508)523-5389 ksneusa@verizon.net
Koreanschool.ne@gmail.com
C/o Oak Hill Middle School
130 Wheeler Rd., Newton, MA 02459

뉴타운 플러밍

PLUMBING HEATING AIR CONDITIONER

Repair & Service, Renovations & Installations

Plumbing repairs, Gas servicing
Hot water tank & boiler

Sink, Toilets, Faucets, Water leaks, Disposal

MA Licensed
책임 보험 가입

617.543.8106

이명원 회계사

한국 공인 회계사
미국 공인 회계사

MW LEE, CPA P.C. 대표
호연회계법인 국제조세 본부장

(전) 삼일회계법인 근무
(전) 한국 공인회계사회 세법 강사
(전) Rucci, Bardaro & Barrett P.C. 근무

617.455.8073

mwl@mwleecpa.com
1318 Beacon St. #12(right)
Brookline, MA 02446

▶▶ 8면에 이어서

이 흘러가면 갈수록 나는 자연이 참 좋다. 그래서 인지, 체력이 바닥만 나지 않는다면 바다와 함께 하는 긴 시간의 산책은 결코 지루하지 않다. 스마트폰의 중독과 정신 없게 하는 일상의 소음들로부터 벗어나 진정한 나를 거대한 바다는 친구와 함께 세밀하게 들여다 보는 그런 느낌도 들어 나는 이 바닷가 산책이 제법 마음에 든다. 사실 굳이 많이 걷고 싶지 않다면 어느 벤치에 앉아 그저 묵묵히 바다를 바라 보고 느껴만 보아도 이보다 좋을 순 없다. 들어 가는 입구에 Cliff walk가 얼마나 되는 거리인지, 어떤 모양을 하고 있는지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으므로 미리 한번 읽어 보고 간단하면 긴 시간의 산책에 도움이 된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사실! 메모리얼 블러바드 (Memorial boulevard)의 이스턴비치 (Easton's beach)에서 클리프 워크 (Cliff walk) 표시판을 따라 시작되는 길에서부터 산책을 시작하는게 가장 쉽고 편안하게 산책을 시작하는 비결이라면 비결. 산책을 마치고 부호들의 맨션들을 한 두 군데 둘러 보는 것도 알찬 여행의 마무리가 될 것이다. 일상에서 잠시 로그아웃되어 찬란하게 아름다운 자연과의 시간으로 로그인 해보자! 별다른 스케줄 짜지 않아도 되는, 짧은 자연으로 힐링 여행, 가끔은 삶에 지친 나를 위해 무작정 아무 생각 없이 한번 떠나 봐도 괜찮지 않을까? 그렇게 떠나도 바로 다시 금방 내 삶으로 로그인 할 수 있는 이렇게 편안한 거리라면 말이다! 클리프 워크 안내 www.cliffwalk.com, 뉴포트 맨션 안내 www.newportmansions.org, 맨션 안내 전화 (401)847-1000. jinjusong@bostonkorea.com



카페 네로Café Nero(맨 오른쪽 사진)와 타테Tatte. 타테의 한 직원은 삭슈카 타테 (Shakshuka Tatte)라는 티셔츠를 입고 있었는데, 이곳의 인기 브런치 메뉴 삭슈카라는 중동식 요리에 대한 홍보다

스타벅스 중독에서 벗어나게 해 준 카페 네로Café Nero와 타테 Tatte에게 감사를.....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송민정 기자 = 요즘 '핫'하다는 카페 네로 Café Nero와 타테Tatte, 커피 매니아인 나에겐 보스톤에 이사온 이후 최대 관심사였다. 먼저 찾은 곳은 카페 네로. 이태리 커피 회사라는 것을 강조한 이 카페는 1997년 미국인 개리 포드 (Gerry Ford)에 의해 설립된, 영국 런던에 본사를 둔 회사다. 이태리 전통 카페를 창조하고 질 좋은 커피를 제공하며 편안한 만남의 장소를 만들려는 그의 비전은 지금의 카페 네로를 만들어 냈다. 벽돌로 된 내부 인테리어와 책들을 쪽꽂아 놓아서재에 들어온 듯한 지적인 분위기, 벽난로나 폭신한 소파 등 편안한 인테리어는 유럽의 어느 서재에 들어온 듯한 느낌을 주며, 사람들이 이 공간에 오래 머무르게 하는데 성공했다. 그 뿐인가! 아메리카노 한 잔 가격이 스타벅스에 비해 조금 싼 편이고, 커피의 맛 또한 지향하는 이태리 커피 수준의 훌륭한 맛을 보여 준다. 물론 개인적으로 유럽에 살았던 내 견해로 이태리 현지의 커피 보다는

연하고 깊이가 덜한 점은 아쉽다. 여하간 커피뿐 아니라, 다양한 빵과 샌드위치가가득하고, 튀니튀니 해도 커피 한 잔 즐기기에 더할 나위 없이 편안한, 그야말로 유럽의 카페 분위기다. 거기에 스탬프카드에 열 번째 도장을 찍으면 공짜로 커피나 음료를 마실 수 있으니, 웬지 모르게 돈이 절약되는 기분. 도장을 찍을 때마다 흐뭇한 느낌이 든다. 내 돈 주고 마시는 커피 이건만, 하나둘씩 허기는 스탬프에 보람도 느끼니 역시 상술이 무섭다. 혹자는 스타벅스 옆에 카페 네로를 만드는게 성공 전략이었다 하는데, 지금은 빛의 속도로 매장이 늘어나고 있다. 영국판 스타벅스란 별명을 붙여 주고 싶은 카페 네로. 두번째로 소개할 타테Tatte. 타테는 아빠의 의미를 가진 단어로, 어린 시절 이스라엘에서 자라난 설립자 트러저스 오어 (Tzurit Ori)가 가족이 함께 음식을 나누던 추억을 그리워하며 2007년 그녀의 키친에서 하루 20시간 씩 빵을 구워 파머스 마켓에 내다 판

것이 시작이었다. 파네라(Panera)가 투자를 시작하면서 타테 역시 빠르게 성장, 지금은 11개의 매장이 생겼다. 그중의 반 이상은 파네라가 소유하고 있지만 말이다. 나의 페이보릿 메뉴 아 이스아메리카노와 파칸 파이를 주문했다. 솔직히 커피 맛은 보통 수준. 가격도 카페 네로보다 조금 비싼 것 또한 단점. 하지만, 디저트와 커피가 만나면 상황은 반전 된다. 디저트가 열 일을 다하는 이 타테에서 맛 본 파칸 파이는 요즘 표현으로 그뤼잇! 달지 않으면서 맛있었고, 큰 호두를 그대로 올려 고소하게 씹어 먹는 즐거움도 있었으니, 그렇게 디저트들은 하나같이 예쁘고 맛있었다. 항상 갈 때마다 사람들로 붐비는 타테Tatte의 인기 비결은 뭘까? 어느 날 가만히 앉아 곰곰이 살피기 시작했다. 그리고 찾아온 깨달음. 사람들은 나처럼 타테에 흐르는 분위기에 매료되고 있는 것이다. 둥근 원형 램프, 모던 빈티지풍의 조명들, 골드 메탈릭 탁자 등 전반적으로 모던하고 트렌디한 인테리어가 매력 포인트. 그

래서, 타테에 앉아 있으면 기분이 마구 마구 싹뚸해진다. 거기에 판매하는 디저트들도 하나 같이 스타일리시하다. 하나의 예로 파칸 파이도 기존의 파칸 파이와 확연히 다르다. 직사각형의 모던하고 스위트한 자태다. 디저트 하나에도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기 위해 안팎으로 얼마나 신경을 썼는지 느껴진다. 또 하나, 내가 발견한 건 직원들이 입고 있었던 타테 메뉴를 홍보하는 티셔츠. 한 직원은 삭슈카 타테 (Shakshuka Tatte)라는 티셔츠를 입고 있었는데, 이곳의 인기 브런치 메뉴 삭슈카, 토마스 소스에 계란을 곁들여 먹는 중동식 요리에 대한 홍보다. 은연 중에 고객들에게 타테 메뉴를 홍보하고 있는 것이 재밌게 느껴진다. 여하간 스타벅스 중독에서 헤어나 오게 해준 카페 네로와 타테에게 감사를.....그날의 분위기에 따라 커피 마실 수 있는 다양성이 내가 사는 보스톤에 있다는 건 감사한 거니까 말이다. jinjusong@bostonkorea.com

손영권 치과

youngdentistrypc.com

진료 과목

일반 치과
크라운
임플란트
잇몸 치료
Invisalign
Sleep Apnea

보험

Delta Dental Premier,
Blue Cross Blue Shield
Indemnity Plan

좋은 치과, 좋은 치아

Young K Son, DMD **978.459.0594**
674 Rogers St. Lowell, Massachusetts 01852

“보톡스 시술합니다”

보톡스 무료 상담

거의 모든 보험 받습니다
매스헬쓰도 받습니다

978.689.9363
(한국어문의)

김동원 치과

465 South Broadway Lawrence MA 01843

가족 물리치료 병원

GB Family Physical Therapy

**매사추세츠 최초
REDCORD식 치료법 도입**

진료분야
목, 허리 통증, 디스크
어깨, 팔, 무릎, 다리 및 각종 운동 후 통증
척추 측만증 및 자세교정

**교통사고/직장상해 보험, 유학생/여행자 보험,
메디케어 외 정부보험 및 미국보험**

대표: 781-365-1876 한국어 781-365-1867
83 Cambridge St. Suite 2B Burlington, MA 01803

www.gbfamilypt.com

서울대학교
미주동창회

브레인 네트워크 세미나

FROM DREAMS TO REALITY

새로운 재료와 폐암치료를 중심으로

경애하는 보스톤 지역 한인 동포들께:

서울대학교 미주 동창회는 오는 4월 6일 MIT Stata Center(강당)에서 새 나노 기술과 폐암치료를 위한 최신 정보를 가지고 세미나를 열게 됩니다.

나노 기술의 강사는 MIT 에서 연구를 하고 있는 소강표 박사로 특허기술 '나노 공정'을 사용하여 알루미늄 등 가벼운 금속을 강철 이상의 강도로 강하게 하여 주는 기술 개발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나노 공정을 이용한 기술' 은 그 용도가 무궁 무진하여 일례를 들면 순금에 이용을 하게되면 '순금 반지'도 강하게 만들 수 있는 놀라운 신기술 입니다. 순금은 연해서 순금 자체를 일상용 장신구로 쓰기가 어려웠는데 소강표 박사의 '나노공정기술' 을 이용하면 강도가 강한 순금 반지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캠브리지 소재한 Genesco의 고종성 박사는 '폐암 치료 신약' 개발에 대해서 발표를 할 예정이며, Mass General Hospital에서 방사선을 이용한 폐암 치료를 평생동안 해 오신 최찬혁 박사는 '방사선 폐암 치료'에 대한 발표를 하게 되는데, 고종성 박사팀이 개발한 '신약'이나 최찬혁 박사님이 시술하시는 '방사선 폐암 치료'는 한국인에게 많이 찾아오는 폐암 치료에 매우 효과적 이라고 합니다. 여러분께서도 아시다시피 한국은 미세 먼지로 많은 질환이 발생해 오고 있으며 특히나 폐암은 차후 더 심해질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이번에 이 귀중한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많이 참석하시어 소중한 정보를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서울대학교 미주 동창회 회장 윤상래

SPEAKERS

소강표 Kang Pyo So, Ph.D

(Massachusetts Institute of Technology (MIT) postdoctoral associate, Institute of New Paradigm of Energy Science Convergence 성균관 대학교 석박사 통합 졸업)

발표주제 :

Next-generation Super Materials through NanoEngineering

고종성 Jong Sung Koh, Ph.D, CEO, GENOSCO

(GENOSCO 대표이사, 전 국가 글로벌 항암사업 단장, 전 LG생명과학 신약연구소장, 전 국가지정 연구실장, 전 UC Berkeley 방문연구원, Caltech 박사과정 졸업)

발표주제 :

Precision Medicine(정밀의학): From Gene to Therapy for Lung Cancer

최찬혁 Noah C. Choi, MD

(Professor of Radiation Oncology, Harvard Medical School Distinguished Scholar in Thoracic Oncology, Department of Radiation Oncology, Massachusetts General Hospital)

발표주제 : 방사선을 이용한 폐암 치료

4월 6일 (토) 오후 3-5시

MIT Stata Center (Rm 32-155)

31 Vassar St., Cambridge, MA

주최: 서울대학교 미주 동창회

후원: 서울대학교 뉴잉글랜드 동창회

세미나 후, 저녁식사 제공. 문의: 978.835.0100(윤상래 회장)



**BRAIN NETWORK
SEMINAR** SNUAUSA

마리화나 판매 세금 기대에 못 미쳐

판매 라이선스 발급에 오랜 시간 지난 3개월 간 판매점 9개 오픈

(보스톤=보스톤코리아) 정성일 기자 = 매사추세츠 정치권에서는 마리화나 판매가 합법화 되면 많은 세금 수입을 거두게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상황은 기대치에 훨씬 못 미치고 있다.

유혹용 마리화나 판매 라이선스 발급까지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지금까지 오픈한 마리화나 판매점은 도심에서 비교적 먼 곳에 위치해 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정부의 세금 수입은 예상치를 한참 밑돌고 있다.

매사추세츠 주 정부는 올해 6월 30일까지 마리화나 판매에 따른 세금이 6,300만 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했다. 그러나 3월 1일 기준으로 주 정부가 거두어 들인 마리화나 세금은 590만 달러에 불과하다.

마리화나 판매 세금이 예상보다 적은 이유는 마리화나 판매점의 숫자가 적기 때문이다. 마리화나 판매 세금을 추산할 당시에는 작년 7월 정도면 상당수의 마리화나 판매점이 영업을 시작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러나 매사추세츠 주의 첫 유혹용 마리화나 판매점은 이보다 한참 뒤

인 11월 말에 오픈했다.

행정 및 재정부의 마이클 헤퍼넌 장관은 “숫자가 낮은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특정 업계에 대한 우리의 세금 예상치가 벗어났다고 말하기에는 아직 너무 이르다” 라고 말했다.

유혹용 마리화나 판매점이 첫 영업을 시작한 이후 매사추세츠 주에서는 9개의 마리화나 판매점이 문을 열었다. 4,500만 달러 상당의 마리화나 제품이 판매되었으며 매사추세츠 주민 1명당 6.60달러의 마리화나 제품이 판매된 셈이다.

매사추세츠 주보다 먼저 유혹용 jsi@bostonkorea.com



문을 연 마리화나 판매점들은 호황이지만, 현재 매사추세츠 주의 마리화나 판매점은 9개에 불과하다

마리화나를 판매한 다른 주와 비교해 보아도 매사추세츠 주의 마리화나 판매 실적은 낮은 편이다. 마리화나 판매점이 문을 연 이후 첫 3개월 동안 네바다에서는 주민 1명당 30달러, 콜로라도에서는 8.70달러, 캘리포니아에서는 8.17달러의 마리화나 제품이 판매되었다.

콜로라도의 경우 첫 3개월 동안 181개의 마리화나 판매점이 문을 열었으며, 많은 가게들이 대도시 인근 지역에 위치했다. 매사추세츠 주의 경우 보스톤 인근에는 마리화나 판매점이 아직까지 없으며, 이번 주말 브루클라인에서 첫 마리화나 판매점이 영업을 시작한다.



최근 조사에서 매사추세츠 주가 미국에서 가장 혁신적인 주로 꼽혔다

MA, 미국에서 가장 혁신적인 주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정성일 기자 = 매사추세츠 주민들에게는 그리 놀라운 소식이 아닐 수 있지만, 최근 조사에서 매사추세츠 주가 미국에서 가장 혁신적인 주로 꼽혔다.

혁신은 미국의 경제 성장을 이끌고 있는 가장 큰 동력이다. 미국 전체에서 2019년 혁신을 위한 연구 개발 투자비는 5,810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은 세계에서 연구 개발에 가장 많은 돈을 투자하고 있는 나라로, 전세계 연구 개발비의 25%가 미국에서 투자되고 있다.

미국의 혁신에 가장 큰 기여를 하고 있는 주가 어디인지 알아보기 위해 월렛 허브(wallethub.com)에서는 24개의 주요 지표를 사용하여 순위를 매겼다. 과학 기술 분야의 교수 현황, 석사 이상 졸업자수, 기업 및 채용 규모, 연구 개발비 액수 등을 분석한 순위에서 매사추세츠 주의 혁신 지수가 가장 높았다. 매사추세츠 주에 이어 워싱턴 주, 워싱턴 DC, 매릴랜드, 콜로라도 주가 가장 혁신적인 상위 5개 주에 랭크되었다.

jsi@bostonkorea.com

Dedicated to Your Health

Icon Dental

아이콘덴탈

Ultimate Smile

Quality Dental Care

렉싱턴과 콩코드에 편리하게 위치한 아이콘 덴탈은 여러분과 가족 모두에게 적합한 맞춤형 치료 계획을 통해 미용치료, 성인 및 소아 치열교정 및 최신 임플란트 시술에 이르기까지 모든 분야의 치과 진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최신 기자재와 진료기술 그리고 편안하며 현대적인 진료실에서 친절한 스태프와 함께 양질의 치과 진료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대표원장 치의학박사 안형준

57 Bedford St. Suite 220, Lexington MA 02420
전화 781-861-8978

97 Lowell Rd. Suite A8, Concord MA 01742
전화 978-369-0254

이메일 info@icodentallexington.com
www.icodentallexington.com

Dr. 차 영 주
치과 일반의

Dr. James Kim
치과 일반의

Dr. Larisa Turkenich
치과 일반의

Dr. Charles Braga
임플란트 및 잇몸 수술 전문의

Dr. 오 동 현
교정 전문의

직원 모집

LSG Sky Chefs 에서 직원을 구합니다.

LSG Sky Chefs는 Lufthansa AG의 자회사로 기내식 및 기내 서비스를 공급하는 세계 최고의 회사입니다.

본 회사에서는 **Asian cuisine** 특히 **스시와 한국음식에 경험이 있는 주방장과 요리사를 모집합니다.**
미국에서 합법적으로 일할 수 있는 신분이어야 하며 영어로 읽기와 대화가 가능 하여야 합니다.

채용되시는 분은 Full time, permanent position with full benefits과 free parking의 혜택을 받습니다.

관심있는 분들은 영문 이력서를 **BOS1379.HR@lsgskycheffs.com**으로 보내주세요.

MA주 경찰들 티켓 할당제 논란

초과 근무 스캔들 이어 할당제까지 티켓 할당량 못 채우면 불이익 받아

(보스톤=보스톤코리아) 정성일 기자 = 초과 수당을 조작하여 부당하게 이익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는 매사추세츠 주 경찰들이 티켓 할당제까지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매사추세츠 주 경찰들에 대한 조사를 진행 중인 연방 검찰은 문제를 일으킨 경찰들이 할당제를 통해 운전자들에게 티켓을 발부했으며, 이런 행위는 헌법에 위배된다고 밝혔다.

현재는 해체된 주 경찰 E분대 소속 경찰관 수십 명은 조작된 초과 근무 시간 동안 최소 8개의 교통 위반 티켓을 발부해야 했다. 연방 검찰은

조사 보고서를 통해 “할당된 숫자만큼 교통 위반 티켓을 발부하지 못한 경찰관들은 상급자에게 불려가 이유를 설명해야 했다”며 “반복해서 할당량을 채우지 못하면 (조작된) 초과 근무에서 제외되는 결과를 가져왔다”고 밝혔다.

주 경찰들의 티켓 할당제는 주 경찰이었던 에린 친의 재판에서 공개되었다. 친은 이미 작년 재판에서 초과 근무 시간 조작과 이에 따른 횡령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다.

보스톤 글로브는 티켓 할당제가 헌법에 위배되는 행위라며, 이미

2005년 법원 판결에서 결정이 된 사항이라고 보도했다. 보스톤에서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는 피터 엘리칸은 “이에 대한 법원의 판결은 아주 아주 명확하다. 경찰이 현장에서 발생하는 실제 상황을 바탕으로 판단하는 것 외에 어느 누구도 티켓 발부에 관여해서는 안 된다”며 “어떤 종류의 할당제도 경찰의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없다”고 말했다.

주 경찰서는 티켓 할당제의 존재 여부에 대해 반복적으로 부인해 왔다. 연방 검찰의 보고서 발표 이후 주 경찰서는 대변인 성명을 통해 “현재 법적 절차가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논평할 수 없다”라는 입장만을 전했다.

jsi@bostonkorea.com



현재는 해체된 주 경찰 E분대 소속 경찰관 수십 명은 조작된 초과 근무 시간 동안 최소 8개의 교통 위반 티켓을 발부해야 했다



보스톤시 온라인 출생증명서 신청 웹사이트 화면

보스톤시 출생증명서 온라인으로 신청

(보스톤=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자 = 보스톤시가 주민들에게 온라인으로 출생증명서(Birth Certificate)를 비롯 결혼 및 사망 증명서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신청을 원하는 한인들은 보스톤시청 웹사이트를 방문해 직접 할 수 있다.

출생증명서 수수료는 직접 방문 신청시 \$12이며 온라인으로 주문시 우편 발송 비용을 포함해 \$14이다. 신용카드 또는 데빗 카드를 사용하는 경우 별도의 카드 수수료가 부과된다. 출생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 보스톤 시청

사를 방문하는 경우 개스비, 주차비 그리고 시간까지 소모해야 하는 것에 비하면 온라인 발급은 훨씬 비용이 저렴하다.

보스톤시는 올해 10월부터 발효되는 리얼아이디(Real ID)와 관련해 출생증명서 신청이 예년에 비해 30%가량 증가하자 이를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리얼아이디법에 따라 올해 10월부터 비행기 탑승 시 또는 연방정부 건물에 출입할 때엔 반드시 리얼아이디를 제시해야 한다.

hsb@bostonkorea.com

기사제보 및 독자투고를 기다립니다

전화: 617-254-4654
이메일: BostonKorean@hotmail.com

잘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집을 사시거나 파실때 맡겨 주시면 최선을 다해 일 하겠습니다.

집을 사고 팔때 언제든지 승진(GINA)과 승원(PETER)을 찾아 주세요.
TEL: 978.866.3248(최승진), 617.780.7839(주승원)
thepeterginateam@gmail.com



인종차별 스티브 킹, 이번엔 내전 시사 발언

(서울=뉴스1) 이창규 기자 = 민주당이 반(反)유대주의적 발언을 한 일한 오마르 하원의원(미네소타)을 제대로 질책하지 않는다고 비판하던 공화당도 집안 단속에는 실패한 듯 보인다. 인종차별적 발언이 문제가 돼 하원 상임위원회에서 배제됐던 스티브 킹(아이오와) 하원의원이 논란이 될 수 있는 발언을 해 주목을 받고 있다.

20일 워싱턴포스트(WP)에 따르면, 킹 의원은 이번 주 초 자신의 페이스북에 파란색 주와 붉은색 주가 격돌하는 모습의 그림을 올린 뒤 "국민들은 또 다른 내전에 대해 계속 이야기하고 있다"며 "한 쪽은 약 8조 개의 총알을 갖고 있고, 다른 쪽은 어떤 화장실을 써야 할 지 모른다"는 글을 적었다. 이 글은 내전을 조장하고, 성전환자들의 권리를 침해하는 듯 보인다고 WP는 설명했다. 그의 그림과 글은 빠르게 이목을 끌었다. WP의 레이스 테블트 기사는 "(그림과 글의) 영향력이 선동적"이라며 "킹은 폭력적이고 무장된

갈등을 생각한 뒤 미국의 제2의 남북전쟁에서 공화당 성향의 주와 민주당 성향의 주가 격돌하는 것에 대해 농담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킹은 이후 논란이 되자 게시물을 삭제했다.

킹 의원은 지난 19일에도 아이오와주 알고나의 한 마을회관을 방문, 백인우월주의와 관련한 질문에 애매하게 대답을 했다.

그는 '백인 사회가 비백인 사회보다 우월하다고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에 "나는 그에 대해 답을 할 수 없다"면서도 "미국은 백인 사회가 아니다. 미국이 완전히 백인 사회였던 적은 없다. 우리는 이곳에 와서 우리보다 몇 배나 더 많은 아메리카 원주민들과 함께했다"고 말했다.

이어 "나는 오랫동안 세계 어느 곳에서든 아이를 미국의 가정으로 데려올 수 있다고 말해왔다"며 "그 가정 사람들의 피부색과는 관련 없이 아이들은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미국인으로 길러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스티브 킹 공화당 하원의원

킹 의원의 이러한 말은 '이민자들이 다른 사람들처럼 미국인으로 길러져야 한다'는 의미로 했던 '동화'(assimilation) 발언과 비슷한 맥락이다. 그는 과거 백인 위주로 정치를 해야 한다는 주장을 거듭하면서 라틴계 이민자들이 미국의 정신에 부합하지 못한다고 비난했었다.

킹 의원은 지난 2017년 트위터를 통해서도 "다문화를 지지하는 좌파는 동화를 더럽게 생각한다"며 "다양성이 아닌 동화는 우리 미국의 힘"이라고 말하기도 했었다.

WP는 "공화당이 지금까지 킹 의원의 이러한 애매한 발언에 대한 심각성을 깨닫지 못했다"며 "아무도 그가 내전으로 폭력을 조장하고 있다고 비판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yellowapollo@news1.kr



패트릭 새너한 미국 국방장관대행

국방장관도 보잉 뒤 봐줬나 국방부 자체 감찰 돌입

새너한 대행 입각 전 보잉에 30년간 몸담아 새너한, 보잉 홍보...경쟁사 록히드마틴 비난

(서울=뉴스1) 이창규 기자 = 미국 국방부가 패트릭 새너한 국방장관대행이 직위를 이용해 자신의 전 직장인 보잉을 홍보했는지 여부에 대해 조사를 할 예정이다. 새너한은 트럼프 입각 전 보잉에서 30년동안 일했었다.

워싱턴이그재미너 등에 따르면, 미 국방부 감찰관실 대변인 드레나 앨런은 20일 성명을 통해 "감찰관실은 최근 새너한 대행이 보잉을 홍보하고 경쟁업체를 깎아내렸다는 고발장을 접수해 이에 대해 수사하기로 결정했다"며 "(사실일 경우) 이는 윤리 규정을 위반한 것"이라고 밝혔다.

앨런은 이어 "새너한 대행은 최근 상원 군사위원회에 출석해 이러한 혐의와 관련한 수사에 협조하겠다고 말했다"며 "우리는 그에게 조사를 시작했음을 알렸"고 덧붙였다.

앞서 미국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는 지난 1월 새너한 대행이

차관들과 만난 자리에서 "보잉의 미국 국방부가 패트릭 새너한 국방장관대행이 직위를 이용해 자신의 전 직장인 보잉을 홍보했는지 여부에 대해 조사를 할 예정이다. 새너한은 트럼프 입각 전 보잉에서 30년동안 일했었다.

이에 워싱턴의 시민단체인 '공직자 책임윤리를 위한 워싱턴 시민들'(CREW)은 이달 초 미 국방부 감찰실에 새너한 대행의 혐의에 대해 조사해 달라는 고발장을 접수했다.

CREW의 노아 북바인더 대표는 성명에서 "새너한 대행이 보잉에 영향을 미칠 결정에 직접적으로 관여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알 수 없지만 편향된 모습만으로도 심각한 우려와 윤리 위반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감찰실은 새너한 대행의 행위를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yellowapollo@news1.kr

민주 셋별 오루크, 대권도전 첫날 후원금만 610만달러 몰려

(서울=뉴스1) 강민경 기자 = 미국 야권의 신성 베토 오루크(46) 전 텍사스주 하원의원이 지난 14일 대권도전을 선언한 뒤 24시간만에 후원금 610만달러를 모았다.

18일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오루크는 대통령 출마 의사를 밝힌 뒤 온라인 상에서만 이처럼 대규모 후원금을 유치해 정계의 이목을 끌고 있다.

이는 지난달 출마 선언 첫날에 후원금 590만달러를 확보했던 버니 샌

더스(무소속·버몬트) 상원의원의 기록을 앞선다. 이에 자극받은 샌더스 의원은 지지자들에게 "오루크가 첫날 우리보다 많은 돈을 모았다"면서 추가 후원금을 마련해달라고 촉구했다.

오루크는 그동안 '풀뿌리 자금력'을 강조해온 인물이다. NYT는 오루크가 후원금 유치 능력을 증명하면서 당장 회의론자들을 조용하게 만들 순 있지만 이 수준의 지지도를 유지할 수 있는지 여부가 관건이라

고 분석했다. 후원금 대부분은 이익단체가 아닌 개인 지지자들로부터 온 것이기에 금액을 더 늘리기에 한계가 있다는 설명이다.

pasta@news1.kr



베토 오루크 전 텍사스주 하원의원

Prescott & Son Insurance
Insurance Producer Moon Hang Lee
한인 보험 대리인 이문향

“보상 내용과 크기는”
적절하고 안전하게
보험료는 저렴하게

사업체 보험
Workers Comp.
개인 자동차 보험
상업용 자동차 보험
집 보험
건물보험

Tel: 781.325.3406
Office: 781.322.2350
Fax: 781.322.3093
mleeins@gmail.com | mlee@prescottandson.com

업무 시간
월-금: 오전 10시-오후 4시
토, 일요일, 공휴일: Closed

MASS-Drain DRAIN & PLUMBING

막힌 곳을 **확** 뚫어드립니다

부엌, 목욕탕 리모델링 전문
WATER HEATER, BOILER
HEATING, FAUCET

www.massdrain.com | massdrain@gmail.com
617.645.6146

형제 떡집

GRAND RE-OPEN
축 재개업

영업 시간
딜리버리: 상황에 따라 결정됨
픽업: 상황에 따라 결정됨
주문: 일주일 내내

STORE: 978.391.4695
CEL: 978.343.6080
CEL: 978.407.9029

210 West Main St. Ayer, MA 01432

미국 화웨이 공격, 결국 화웨이 브랜드만 키워줬다

(서울=뉴스1) 박형기 기자 = 미국의 반화웨이 캠페인이 결국 화웨이 브랜드 가치만 키워줬다는 지적이 나왔다.

미국은 지난해부터 화웨이가 네트워크에 '백도어'를 심는 방법으로 정보를 탈취해가고 있다며 반화웨이 캠페인을 벌였다.

그러나 최근 동맹국들이 잇따라 화웨이 장비를 계속 사용할 것이라고 밝히면서 미국의 반화웨이 캠페인은 사실상 실패로 돌아갔다. 결국 화웨이의 브랜드 가치만 키워준 셈이다.

왕저민 홍콩 연락사무소 소장은 최근 양회에 참석한 것을 보고하기 위해 개최한 모임에서 "나는 물론



내 친구들도 모두 화웨이 폰을 쓰고 있다"며 "미국의 화웨이 공격은 지상 최대의 광고였다"고 말했다고 홍콩의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가 21일 보도했다.

그는 "특히 캐나다가 미국의 부탁으로 명완저우 화웨이 부회장을 체포한 것은 오히려 화웨이의 브랜드

를 전세계인에게 각인시키는 역할을 했다"고 덧붙였다.

그는 "명 부회장의 체포는 지상 최대의 차세대 이동통신(5G) 광고였다"며 "중국이 5G에서 최첨단 기술을 보유한 것이 자랑스럽다"고 말했다.

sinopark@news1.kr

애플, 이어폰 에어팟2 공개...무선충전·음성호출 기능

(서울=연합뉴스) 채새롬 기자 = 애플은 2세대 무선 이어폰 '에어팟2'를 20일 공개했다.

에어팟2는 헤드폰·이어폰 전용으로 새로 개발한 H1 칩을 탑재해 1세대 에어팟보다 통화시간을 50% 늘렸다. 연결 시간도 두배 빨라졌다.

에어팟에서 처음으로 애플의 음성비서 '시리'를 호출할 수 있게 됐다. 1세대 에어팟에서는 본체를 터치하고 나서야 음성 명령이 가능했지만, 이 제품은 '시리야'로 말을 걸어서 노래를 바꾸고 전화를 걸고 음량을 조절하는 등 조작성이 가능하다.

무선 충전 기능도 추가됐다.

기본 충전 케이스 모델과 무선 충전 케이스 모델이 함께 출시됐다. 무선 충전 케이스는 Qi-호환 충전 장치를 사용한다. 기본 충전 케이스 모델은 19만9천원, 무선 충전 케이스 모델은 24만9천원이다. 무선 충전 케이스 단품만 구매하려면 9만9천원이다.

애플코리아는 정확한 국내 출시 시기를 밝히지 않았지만, 애플코리아 홈페이지, 애플스토어 앱에서 곧 주문할 수 있고 올봄 안에 애플스토어 매장에서 살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애플 월드와이드 마케팅 수석부사장 필 쉐러는 "에어팟은 신기로운



무선 경험을 선사하며 역대 가장 큰 사랑을 받은 제품"이라며 "새롭게 디자인한 H1 칩을 탑재해 통화시간이 한 시간 더 길어지고 연결은 더 빨라졌으며, 새로운 무선 충전 케이스로 더욱 편리해졌다"고 말했다.

srchae@yna.co.kr



EU정상회의 참석차 21일 벨기에 브뤼셀에 도착한 테리사 메이 영국 총리

영국 경제계, 메이 총리에 노딜만은 피해달라 호소문

스카이뉴스 메이, 3차 표결도 실패하면 노딜 지지

(서울=뉴스1) 강민경 기자 = 영국 내 기업 고용주와 노동자들을 대변하는 단체들이 테리사 메이 총리를 향해 아무런 합의없이 유럽연합(EU)에서 떨어져나오는 '노딜 브렉시트'(No-deal Brexit)만은 피해 달라고 호소했다.

21일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영국 산업연맹과 영국 노동조합총협의회는 이날 메이 총리에게 공동 서한에서 "우리나라가 국가적 비상사태에 직면해 있다"면서 "영국 전역의 회사와 단체들은 이런 결과에 준비돼있지 않다. 우리 경제에 미칠 충격은 후세에도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강조했다.

메이 총리는 이날 브렉시트 시한 연기 요청을 위해 EU정상회의가 열리는 벨기에 브뤼셀로 향했다.

통신은 회의장에 도착한 메이

총리가 "합의안을 마련한 상태로 EU를 떠나고 싶으며, 브렉시트 날짜를 짧은 기간 연장하는 것은 깊이 분열된 의회에 협상 시간을 허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메이 총리가 제3 브렉시트 합의안 승인투표마저 통과시키지 못하면 차라리 노딜 브렉시트를 지지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이날 스카이뉴스는 영국 내각 소식통을 인용, 메이 총리가 세 번째 표결에서 또다시 실패할 경우 협상을 내려놓을 수 있다고 전했다.

베스 리비 스카이뉴스 정치부 차장은 "내각 소식통은 브렉시트 합의안 통과를 회의적으로 전망하면서, 메이 총리가 뜻을 굽혀 노딜 브렉시트를 지지할 것으로 보인다고 귀띔했다"고 말했다.

pasta@news1.kr



"전문적인 치료, 진실된 치료, 진심을 담은 치료, Smart Dental이 추구합니다"



JEONG LEE, D.M.D., MMSc., PhD.

원장 이정숙

- 서울대학교 치의학대학원 1990년 졸업
- 서울대학교 치의학대학원 박사학위 2000년 취득
- 서울부부치과원장 1994년-2006년
- Tufts School of Dental Medicine 2009년 졸업
- Harvard School of Dental Medicine 보철과 2012년 졸업

SMART DENTAL

452 Pleasant St., Malden MA 02148

Office: 781 322 4914

Fax: 781 605 3797

Email: maldensmartdental@gmail.com



Malden Center역에서 걸어서 10분, 차로 5분 거리

미래를 생각한다면
지금부터 제대로 준비하자!

집장만
패밀리 프로텍션
모든걸 한번에!!

집장만 준비하는 성인
주택융자
모기지 리파이낸스 의료보험

생명보험 동상대출
나의노후? 케시아웃 리파이낸스

연금보험
모기지 프로텍션
보험 최적의 사고보험

모기지 & 종합보험
마이클 리 컨설팅 mlee@mbamortgageco.com
978.314.8818

2 Adams Place, Suite 410 | Quincy, MA 02169

닥터홍 메드스파안웰니스 MeelIn Skin Health and Wellness

**보스톤 최초 한인 스킨 앤 바디 클리닉
피부 젊음 가까워졌습니다**

- 보톡스, 디스포트
- 하이드로 페이스 MD3 시스템
- 더마 필러(Dermal Fillers) : 레슬린, 주비덤
- 피부노화를 방지하는 PRP(Platelet Rich Plasma) : 스템셀 스킨 성장인자 치료법
- BTL Exilis Ultra : 레이저 스킨 & 바디케어
- 뉴트리션 테라피 : 비타민, 미네랄 영양 정맥주사 요법
- 체중조절 및 탈모 복원 시술



예약문의: Meeinskinhealthwellness.com, 617.202.6261, 855.208.2806
46 Austin street #301, Newton, MA 02460



크라우저 & 서 로펌

MIAMI • BOSTON • D.C.
이민법/개인상해법 전문

- ✓ 전문인력 취업비자(H-1B)
- ✓ 투자비자(E-2)
- ✓ 주재원 비자(L-2)
- ✓ 투자이민(EB-5)
- ✓ 특기자 비자(O-1, P-1)
- ✓ 가족초청이민
- ✓ 단기연수원비자(H-3)
- ✓ 시민권 신청
- ✓ 취업이민
- ✓ 주방재판
- ✓ 교수/연구직 이민
- ✓ 개인상해(교통사고)



▶ **BOSTON Office** **Tel. 617-566-7979**
1309 Beacon Street Suite 300 Brookline, MA 02446 Fax. 617-566-7982
▪ Email : info@stevesuh.com ▪ 홈페이지(국문/영문/중문) : stevesuh.com / suhlawyer.com
▶ **MIAMI Office** ▪ Tel. 305-372-7776 ▪ 28 W Flagler St Suite 330 Miami, FL 33130

해안경비대·B52 vs 北대사소환, 김정은 입장발표 임박신호?

北최후통첩에도 美의회·행정부 대북 압박 강화 3월 말~4월초 당 전원회의 열어 입장 발표 가능성

(서울=뉴스1) 배상은 기자 = 최선희 북한 외무성 부상의 '대미 협상 중단 검토' 선언에도 미국이 북한에 대한 압박을 전방위적으로 확대하면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입장 발표 시점에 촉각이 모아진다.

최 부상의 최후통첩성 메시지에도 미국이 강경한 태도를 견지하고 있는 가운데 북한도 유엔, 중국, 러시아 등 주요국 주재 자국 대사들을 본국으로 소환하는 등 내부적으로 어떤 중대 결정을 준비하는 모양새다.

21일 미국의 소리(VOA)에 따르면, 미 의회는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제재 부과 속도가 현저히 둔화됐으며 협상 국면에도 최대 압박과 관여를 적용하라고 주문했다.

이 같은 주장은 처음에 민주당에서 제기됐지만 북한이 협상 중단과 핵미사일 시험 재개 가능성을 시사한 후 공화당 의원들도 이에 동조하며 초당적으로 확산하고 있다는 점에서 특히 주목된다.

특히 하원 의원들은 "미국과의 대화 중단과 핵미사일 시험 재개 가능성을 시사한 지난 15일 최 부상의 '위협' 발언은 북한에 대한 제재 강화의

필요성을 나타낸다"며 중국의 대형 은행들을 추가 제재 대상으로 지목하기까지 했다.

이미 현실화된 압박도 있다.

미 인도·태평양사령부는 19일(이하 현지시간) 미 해안경비대 소속 버솔프 경비함(WMSL-750)이 지난 3일 일본 사세보에 도착했다고 밝혔다. 동중국해에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 결의에 따라 금지된 원유, 석탄에 대한 불법 환적을 감시하기 위한 목적이다.

버솔프함 파견이 발표된 같은날 미국은 B-52 폭격기 2대를 한반도 주변에 보내 비행훈련까지 했다. 북한이 가장 두려워하는 전략자산으로 알려진 B-52를 출격시킴으로써 동창리 미사일 발사장 재건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북한에 경고를 날렸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런 상황에서 북한의 움직임도 심상치 않다.

북한은 19일 지재룡 주중대사와 김성 유엔 주재 북한대표부대사, 김형준 주러대사를 포함 주요국 주재 대사들을 긴급 소환했다. 북핵 문제 협의체였던 6자회담 당사국 가운데 대

사관이 없는 한국과 일본을 제외하더라도 국가 대사들을 전부 귀국시킨 것인데 이는 매우 이례적이다.

비핵화 입장과 관련해 뭔가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유엔과 중국, 러시아 등 관련국의 입장을 듣고 대응책을 세우기 위한 것일 가능성이 제기된다. 미국의 대 코츠 국가정보국장(DNI)이 같은날 전격 한국을 방문한 것도 같은 맥락일 수 있다.

평양으로 급소환된 3명의 대사는 지난 3월 10일 최고인민회의에서 14기 대의원에 선출됐다는 공통점이 있다.

이에 따라 일각에서는 4월 중순께로 예상되는 최고인민회의의 1차 회의에서 어떠한 결정의 채택을 앞두고 이에 대한 내부 논의를 위해 대의원들을 결집시키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 제기된다.

이 경우, 최고인민회의의 전 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 개최를 통해 김 위원장이 내부에 대미 협상과 관련한 자신의 입장 혹은 향후 행동계획에 대한 결정을 밝히고 이후 최고인민회의에서 이를 재확인하는 수순이 유력시된다. 최고인민회의의 전 3월 말~4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초계 당 전원회의를 열어 김 위원장이 입장을 발표하고 이를 결정문 형태로 채택하는 형식이다.

북한은 통상적으로 5년 회기인 최고인민회의의 다음 회기 시작을 앞두고 당 중앙위 전원회의를 열고 향후 정책 방향과 전략에 대한 입장을 결정문 형태로 채택해왔다. 2013년 3월 전원회의에서 '핵·경제 병진노선'을 당의 전략노선으로 채택한 것이 대표적이다.

우리 정부가 최 부상이 기자회견에서 예고한 '최고지도부의 입장 발표'가 '성명(statement)' 형태는 아닐 것으로 보고 있는 것도 이와 궤를 같이 한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18일 국회에서 최 부상의 예고에 대해 "성명이라고 몇몇 외신에서 발표됐지만, Clar-

ify(명확하게 하다)로 입장 정리 수준"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다만 당 전원회의에서 결정문을 채택한다면, 이는 미국을 향한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향후 입장에 관련한 내부적 결정문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홍민 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실장은 "최 부상이 최도지도부를 거론하며 입장 발표를 예고한 것을 볼때 어떤 형식이든 비핵화 협상에 대한 입장 표명은 있을 것"이라며 "김 위원장이 핵·경제 병진 노선을 버리고 경제발전집중을 선언한 작년 4월 전원회의 1주년을 전후해 전원회의를 열어 내부적으로 경제 혹은 대외정책에 대한 입장을 표명하고 이를 결정문 형태로 채택할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고 말했다. baebae@news1.kr

모텔에 '1mm 몰카'...1600명 성관계 실시간 중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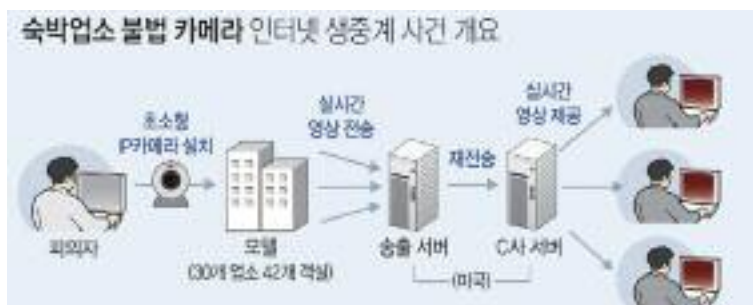
(서울=뉴스1) 김민성 기자 = 숙박업소 객실에 있는 TV셋톱박스, 콘센트, 헤어드라이어 거치대에 1mm의 초소형 카메라를 설치하고, 투숙객의 사생활을 해외사이트에서 생중계한 일당 4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불법카메라를 설치하고 영리 목적으로 유포한 박모씨(50), 김모씨(49)를 성폭력 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으로 구속했다고 20일 밝혔다. 카메라 구입 및 결제를 지원한 임모씨(26)와 사이트 운영 자금을 지원한 최모씨(49)는 방조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경찰은 지난해 12월 8일 한 시민이 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 신고를 하면서 즉시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11월 24일부터 지난 3월3일까지 영남·충청 등 10개도시에 30개 숙박업소(모텔), 42개 객실의 TV셋톱박스, 콘센트, 헤어드라이어 거치대 등에 중국 온라인 쇼핑몰에서 약 2만5000원에 구입한 1mm 초소형 IP카메라를 설치했다.

박씨는 처음으로 이 범행을 기획한 뒤, 투숙객으로 위장해 지방 모텔을 돌며 카메라를 약 2시간 만에 직



접 설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해외 음란사이트 구축과, 서버운영, 동영상 편집 등을 맡아 총책으로 활동했다. 박씨는 음란 사이트 운영이력이 있었고, 김씨도 웹하드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방조범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박씨와 김씨는 2016년 웹하드 사이트를 운영하다가 서로를 알게된 사이로 알려졌다.

이들은 투숙객 1600여명의 성관계 장면 등 사생활을 803회에 걸쳐 몰래 촬영하고, 실시간 촬영된 영상을 자신들이 운영하는 유료사이트에 전송한 것으로 드러났다. IP카메라를 통해 촬영되고 있는 영상을 생중계해 석 달 간 총 125건, 약 700만 원의 이득을 취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은 유료회원수를 늘리기 위해 일부 생중계 영상을 무료로 제공하고, 녹화된 영상을 마치 실시간 영

상물인 것처럼 게시하는 방법으로 회원들의 가입을 유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이들은 해당 사이트의 실제 IP 주소를 숨기기 위해 해외 소재 서로 다른 업체의 서버들을 이용했고, 수사망을 피하기 위해 IP주소까지 세탁해 해외 서버를 관리·운영하거나 PC에 암호화 프로그램을 설치해 놓는 등 치밀함도 보였다. 경찰 관계자는 "불법촬영을 통해 해외 음란사이트를 직접 만들어 수익 모델로 활용된 건 이번 사건이 처음"이라고 말했다.

경찰 관계자는 "숙박업소 객실내에 설치된 TV 셋톱박스·콘센트·헤어드라이어 거치대 등 틈새나 아주 작은 구멍이 뚫린 곳, 불필요하게 전원 플러그가 꽂힌 곳이 있는지 등을 면밀하게 지속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ms@news1.kr

초격차 삼성전자, 세계 첫 3세대 10나노급 D램 개발

(서울=뉴스1) 주성호 기자 = 메모리 반도체 '글로벌 1위'인 삼성전자가 세계 최초로 3세대 10나노급(1z) D램 개발에 성공했다. 이는 경쟁사 대비 1년 이상 빠른 속도로 삼성전자 반도체 사업부 특유의 '초격차' 전략이란 분석이다.

삼성전자는 21일 세계 최초로 3세대 10나노급(1z) 8Gb(기가비트) DDR4(Double Data Rate 4) D램을 개발했다고 밝혔다.

2017년 11월 2세대 10나노급(1y) D램을 양산하기 시작한 지 16개월만에 한 세대를 뛰어넘는 신제품 개발에 성공하며 역대 최고 '미세공정' 한계를 극복했다는 평가다.

3세대 10나노급 D램은 극자의 선(EUV) 노광 장비를 사용하지 않고도 2세대 D램보다 생산성이 20% 향상되고 속도 증가에 따른 전력효율도 개선됐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회사 관계자는 "3세대 10나노



삼성전자가 21일 개발에 성공한 3세대 10나노급(1z) 8Gb DDR4 D램

D램 기반 PC용 DDR4 모듈로 글로벌 CPU 업체의 모든 평가 항목에서 승인을 마쳐 글로벌 IT 고객의 수요를 본격 확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삼성전자는 이르면 오는 3분기부터 3세대 10나노급 D램을 본격 양산할 방침이다. 2020년에는 성능과 용량을 동시에 높인 차세대 D램 'DDR5'와 'LPDDR5' 등을 본격적으로 공급할 계획이다. 'DDR'(Double Data Rate)은 D램의 동작속도로 규정하는 반도체 규격이다. 데이터를 읽고 쓰는 속도에 따라 DDR1부터 DDR5까지 구분되며 숫자가 높을수록 데이터 처리 속도가 기존 대비 2배 빨라진다. sho218@news1.kr

H MART

CUSTOMER SERVICE
 TOLL FREE T. 877.427.7386
 Customer_care@hmart.com

For events, coupons & exclusive deals, subscribe at www.hmart.com, and Visit our Facebook, Twitter, Pinterest & Instagram to stay up to date on special offers!

BURLINGTON WEEKLY SALE MAR. 22nd - MAR. 28th, 2019

DORITOS CRUSTED CHICKEN SANDWICH

EDIBLE ED'S FROM THE WEST COAST! INDULGE YOURSELF WITH THIS JUICY AND CRUNCHY SANDWICH USING ED'S ALL-TIME FAVORITE CHIPS!

바삭하면서도 부드러운 도리토스 치킨 샌드위치를 H마트와 함께 만들어 보세요!

NEW RESTAURANT PARTNERS WANTED

Have a great idea for a restaurant, we have the perfect busy location for you.



Korean Singo Pear 한국산 신고배 \$22.99	Korean 3 Pack Singo Pear 한국산 3팩 신고배 \$7.99	Pineapple 파인애플 \$1.99	Crown Broccoli 크라운 브로콜리 \$1.49	Washington Fuji Apple Premium 워싱턴 후지사과 프리미엄 \$1.49
Oriental Sweet Potato Medium 고구마 미디어 \$1.49	Hass Avocado 헤스 아보카도 \$0.99	Ginger 생강 \$1.49	Lotus Root 연근 \$1.99	K TOWN Tofu 케이타운 두부 \$0.99

MEAT at unbeatable low prices		SEAFOOD at shockingly low prices	
Beef Chuck Eye Roll Steak 목동심 스테이크 \$7.99	Boneless Pork Loin Chop 등심 폭찬 \$4.99	Headless White Shrimp 머리없는 흰새우 \$6.99	Swai Fillet 스와이 필렛 \$4.99
Chicken Tenderloin 닭 안심 \$2.99	Sliced Beef Short Plate 냉동 상겹 양지 슬라이스 \$6.99	TONGTOMBAY Unagi Kabayaki 붕붕데 우나기 \$16.99	Head-on Patagonia Pink Shrimp 머리있는 자연산 홍새우 \$6.99
Marinated Sliced Pork Single Belly 양념 삼겹살 \$5.99	Marinated Sliced Beef Short Rib 양념 LA갈비 \$12.99	TONGTOMBAY Squid Flower Cut 통통배 1lb/팩 \$4.99	Cod Fillet 대구 전갈 \$6.99

GET SMART AND SAVE MORE & BIG.

HARU HARU Medium Grain Milled Rice \$9.99	NONGYUP Seven Cooked White Rice \$9.99	HAIDORUM Yellow Croaker \$14.99	NONGYUP Asian Apricot Tea \$19.99	KYONG GI Super Quality Medium Grain Rice \$26.99	SHIRAKUJI Sanuki Udon \$3.99	SAMHAK Rice Cake Round \$4.99	CHUNGLONGE Sunchang Coenjang \$7.99	KADOYA Pure Sesame Oil \$14.99
DUNWON NONGYUP Honey Citron Tea \$5.99	NISSUI Fish Sausage \$2.97	HAIDORUM Dumpling \$4.99	SAMLIP Steamed Bun \$2.93	ORION Peanut Cracker \$1.99	CRISPY ROLLZ Premium Grain Crispy Roll \$2.99	BINGORAE Banana Flavored Milk Drink \$5.99	HELLO Standing Broam Set \$5.99	Straw Floor Mat \$4.49
ROLLED SUN HAT \$3.49	Summer Scarf Cap \$4.99	Waterproof Oxford Picnic Mat \$7.99	Waterproof Oxford Picnic Mat \$7.99	Waterproof Oxford Picnic Mat \$7.99				

During the editing process, there may be mistakes/missprints. Each location may be subject to limited availability, as well as their sale price. Some products may be sold out. If a product is not listed as a boxed sale item, it cannot be purchased as a boxed sale item. All H Mart locations accept all major credit cards. H Mart is a registered trademark of H Mart USA, Inc. © 2019 H Mart USA, Inc.

文대통령 김학의·장자연 철저규명...과거사위 사실상 연장

청와대 발표 1시간40여분 후 과거사위 연장 건의해 여론 관심에 대통령 지시 더해...법무부 승인만 남아

(서울=뉴스1) 이지 기자 = 성접대 의혹 관련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과 고(故) 장자연씨 사건을 조사해 온 대검찰청 진상조사단의 조사기한 연장요청을 과거사위원회가 18일 수용했다.

법무부의 조사기간 연장 최종 결정을 앞둔 상태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해당 사건들에 대한 철저한 진실규명을 직접 지시하면서 활동기간 연장에 힘이 실리는 모양새다.

문 대통령은 이날 박상기 법무부장관과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으로부터 김학의·장자연 그리고 버닝썬 사건 관련 보고를 받은 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을 통해 "공소시효가 끝

난 일은 그대로 사실 여부를 가리고, 공소시효가 남은 범죄 행위가 있다면 반드시 엄정한 사법처리를 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또한 "국민이 보기에 대단히 강한 의혹이 있는데도 오랜 세월 동안 진실이 밝혀지지 않았거나 심지어 은폐돼온 사건들이 있다"며 "사건은 과거의 일이지만 그 진실을 밝히고 스스로의 치부를 드러내 신뢰받는 사정기관으로 거듭나는 일은 검찰과 경찰의 현 지도부가 조직의 명운을 걸고 책임져야 할 일"이라 강조하기도 했다.

진상조사단은 김학의·장자연 사건 및 용산참사 사건 조사를 위해 기한 연장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과거사

위에 요청해왔고, 과거사위는 이날 오후 2시부터 회의를 열고 문 대통령의 지시 후 1시간40여분 경과한 오후 5시20분쯤 세 사건에 한해 위원회의 활동기한을 2개월 연장하는데 의견을 모았다고 발표했다.

지난해 2월 초 활동을 시작한 과거사위와 진상조사단은 당초 출범 6개월 뒤 활동을 마칠 계획이었으나 일부 사건의 조사가 늦어지자, 당초 2차례 연장 가능하도록 했던 법무부 훈령 '검찰 과거사위 규정'을 개정해가며 4차례 기한을 연장해 이달 말까지로 늘린 바 있다. 이번 건의가 받아들여진다면 5차례 연장하게 되는 셈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오후 청와대에서 법무·행정안전부 업무보고를 받은 후 지시 사항을 전달하고 있다

이제 법무부의 승인 여부 판단만이 남아있는 상황이다. 김 전 차관 '별장 성접대' 및 이른바 '장자연 리스트' 의혹에 대한 진상규명에 여론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데다 문 대통령이 이날 강경한 지시를 내리면서 기

한 연장을 받아들일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과거사위 결정을 통보받은 법무부는 검토 후 이튿날인 19일 입장을 발표할 예정이다.

maintain@news1.kr

김학의 재수사 성과까지 가시받길 특검 임명해야

'무혐의' 뒤집을 증거 나와야...동영상은 '특수강간' 입증 한계 부실수사·외압 의혹도 수사대상...정치권, 황교안 등 의혹 제기

(서울=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별장 성접대' 의혹에 관해 사실상 재수사 지침을 내렸지만 재수사를 통해 성과를 낼지는 미지수라는 전망이다. 이에 따라 특검의 필요성이 강력히 대두되고 있다.

문 대통령은 18일 김 전 차관 사건과 함께 장자연·버닝썬 사건을 "사회 특권층에서 일어난 일이고, 검찰과 경찰 등 수사기관들이 고의적 부실수사를 하거나 더 나아가 적극적으로 진실규명을 가로막고 비호·은폐한 정황이 보인다"는 것"이라며 "검찰과 경찰의 명운을 걸고 철저히 진실을 규명하라"고 지시했다.

검찰과 경찰이 각각 치부를 스스로 드러내고 드러내도록 하는 과제를 부여받은 것이다. 최근 검경 수사권 조정이 논의되고 있는 상황에서 검경 어느 한쪽의 성과가 미진할 경우 목소리를 내기 어려워진다. 특히 김 전 차관의 별장 성접대 의혹 사건을 맡게 될 검찰의 재수사 과정은 호락호락하지 않을 전망이다.

21일 검찰에 따르면 법무부는 대검 진상조사단의 진상규명 작업과 동시에 범죄사실이 드러나면 신속하게 수사로 전환해 검찰이 수사에 착수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대검 진상조사단이 과거 검찰에서 두차례 무혐의 처분했던 김 전 차관 사건과 관련해 새로운 증거나 범죄 혐의점을 발견해야 한다는 것이다.

대검 진상조사단은 강제수사권이 없어 압수수색을 통한 새로운 증거 확보는 물론 관련자 소환조사도 어

려운 상황이다. 결국 '진상규명'의 최종 책임은 수사기관인 검찰이 지게 될 가능성이 크다. 특별검사나 특검이 수사할 수 있는 방안이 거론되는 이유다. 검찰이나 특검이 사건을 맡게 된다면 우선 재수사 대상으로 꼽히는 것은 김 전 차관의 특수강간 혐의 유무이다.

경찰은 2013년 7월 특수강간 혐의로 김 전 차관을 검찰에 송치했다. 특수강간죄는 2007년 12월 21일을 기점으로 공소시효가 10년에서 15년으로 연장됐기 때문에 이후 범죄에 대한 수사 가능한 상황이다.

다만 검찰에서 2013년과 2015년 두차례 무혐의 처분이 내려진 만큼 이를 뒤집을 만한 증거나 범죄 혐의가 새롭게 나와야 한다.

민감률 경찰청장이 언급해 화제가 되고 있는 동영상의 경우 등장인물이 김 전 차관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특수강간 혐의를 입증할 증거로는 부족하다는 게 법조계 안팎의 중론이다.

특수강간죄란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또는 2명 이상이 합동해 강간죄를 범한 경우를 말하는데 알려진 동영상 내용만으로는 혐의를 입증하기가 어렵다는 것이다.

김 전 차관과 함께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을 받는 고위 인사들, 이른바 '윤중천 리스트'에 오른 인물들에 대한 조사도 수사 대상으로 거론된다.

윤중천 리스트에는 정·재계, 법조계, 의료계, 군장성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져 있던 것으로 알려진 만

큼 수사가 성과를 낼 경우 '권력형 비리' 수사로 확대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조사단은 당시 부당한 청탁과 함께 항응 제공이 이뤄졌는지 여부를 살피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다만 2013년 검경 수사단계에서는 권력형 비리에 관한 정황이 발견되지 않았다.

검경 수사 단계에서 부실수사나 외압은 없었는지 여부에 관해서도 수사를 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경찰은 2013년 6월 특수강간 혐의를 적용해 김 전 차관 체포영장을 신청했는데 검찰은 "범죄 혐의의 상당성이 부족하다"며 기각하는 등 각종 영장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전해진다. 두차례 검찰 조사에서도 압수수색이나 소환조사가 이뤄지지 않는 등 문제도 제기되고 있다.

김 전 차관 수사에 워선의 부당한 압력이 확인된다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를 적용한 처벌이 가능할 전망이다.

정치권에서는 김 전 차관 무혐의 처분 당시 법무부장관이었던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와 청와대 민정수석이었던 박상도 같은 당 의원이 개입한 것 아니냐는 공세가 계속되고 있다. 박근혜 정부 당시 주요 사건 수사는 대검과 법무부를 거쳐 청와대까지 보고되는 게 관행이었다는 것이다. 다만 실제로 당시 법무부장관이나 민정수석 등 최고 워선에서 사건 처리에 개입했다는 구체적인 증거나 정황은 아직 드러나지는 않고 있다. hsb@bostonkorea.com

국민 3명중 2명 문대통령 김학의·장자연 철저수사 지시 적절

리얼미터-tbs 현안 여론조사

(서울=뉴스1) 강성규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별장 성비리' 의혹과 고(故) 장자연씨 성접대 리스트 의혹에 대해 철저한 수사를 지시한 것에 대해, 3명 중 2명 꼴로 '적절한 조치'라고 인식하는 것으로 21일 나타났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tbs 의뢰로 지난 20일 전국의 성인 502명을 대상으로 조사, 이날 발표한 결과에 따르면 '의혹이 해소되지 않은만큼 적절한 조치라고 생각한다'는 응답이 67.0%로 조사됐다.

'야당 대표를 탄압하기 위한 부적절한 조치'라고 생각하는 응답은 24.7%로 집계됐다. '모름, 무응답'은 8.3%.

이와 관련, 문 대통령이 김학의·장자연 사건의 철저 수사를 지시한 데 대해 자유한국당은 김 전 차관 의혹이 불거졌던 당시 법무부장관이었던 황교안 한국당 대표를 겨냥한 '보복수사', '적폐물'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세부 조사결과에선 이념성향, 정당지지층, 연령, 지역에서 적절한 조치라는 인식이 대다수였지만 보수층과 한국당 지지층에서는 다소 다른 결과가 나왔다.

조사결과 진보층(적절 83.8%, 부적절 9.8%), 정의당(97.3%,



2.7%)과 더불어민주당(96.8%, 0.9%) 지지층, 20대(80.7%, 11.2%)에서 '적절하다'는 응답이 90%를 상회하거나 80%를 넘는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보수층(적절 38.4%, 부적절 53.9%)과 자유한국당 지지층(25.2%, 60.8%)에서는 '부적절하다'는 응답이 절반 이상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대전·세종·충청(79.4%, 16.3%)과 광주·전라(74.2%, 21.4%), 경기·인천(73.0%, 21.1%), 서울(67.5%, 25.1%), 부산·울산·경남(57.5%, 32.8%), 대구·경북(48.4%, 34.8%)로 모든 지역에서 적절한 조치라는 응답이 우세했다.

연령별로는 30대(79.9%, 15.1%)와 40대(73.0%, 19.1%), 50대(62.2%, 27.6%)로 대다수가 문재인 대통령의 철저수사 지시를 적절한 조치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60대 이상(적절 48.8%, 부적절 41.7%)에서도 '적절하다'는 응답이 우세한 양상이었다.

sgkk@news1.kr



경험과 전문성으로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을
책임지겠습니다

OUR AGENTS



나원태
617.642.3156
won@bostonpremierrealty.com



제이슨전
617.642.5670
jason@bostonpremierrealty.com



신보경
508.361.6064
boshin@bostonpremierrealty.com



줄리전
978.494.2043
julie@bostonpremierrealty.com



비비안 유
617.935.2713
vivian@bostonpremierrealty.com



크리스틴 손
773.968.2651
christine@bostonpremierrealty.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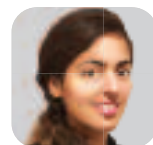
미니 유
617.803.1266
miniee@bostonpremierrealty.com



이준균
617.543.5728
jun@bostonpremierrealty.com



차민영
651.402.5194
minyoung@bostonpremierrealty.com



Ritika Chopra
617.697.1191
rchopra@bostonpremierrealty.com



이현주
401.935.3397
hyunju@bostonpremierrealty.com



최은경
781.690.4389
chrischoi@bostonpremierrealty.com

OUR LISTINGS



● 세탁소 매매

보스톤남쪽, 타운센터에 위치한 Full Plant. 안정된 고객과 매상. 소유주 은퇴. 하이드로카본.

Asking \$330,000



● Fish마켓 매매

성공한 한인들의 발판이 되었던 비즈니스 보스톤 남쪽 변화한 몰에 위치. 연매상 450K 이상. 넓은 주차장. To-go 메뉴로 Extra 수입.

Asking \$140,000



● 커머셜 빌딩

보스톤 북쪽 시티에 위치 메인 스트리트 선상, 주요 체인점들 주변 "매상높은" 세탁소 비즈니스 포함

Asking \$990,000



● 식당 매매

Hibachi 테이블 & 스시바 풀 리퀴 라이센스, 2500 스퀘어피트 보스톤 북쪽에 위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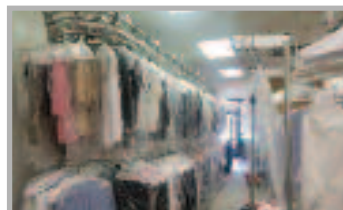
Asking \$70,000



● 드랍오프 세탁소

보스톤 북쪽 교통량 많은 메인 스트리트에 위치 안정된 고객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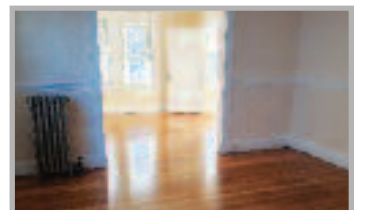
Asking \$40,000



● 드랍오프 세탁소

보스톤 남쪽, 좋은 위치, Tailoring 수요 높음 대형 미국 체인점 주변 안정된 인근 여러 타운의 고객 확보

Asking \$50,000



● 주거렌트

에버렛에 위치, 1125 Sq. Ft. 2 Beds & 1 Bath, 새로레노베이션된아파트 주차가능, 보스톤에인접, 단기렌트가능

Asking \$2000/월



● 리테일 가게 매매

대형 아시안 슈퍼마켓내에 입점 연중무휴로 바쁜 가게, 안정된 고정 매출 업종 변경 가능

Asking 가격 문의 바람



● 드랍오프 세탁소

보스톤 북쪽 좋은 위치와 저렴한 렌트비 안정된 고객과 매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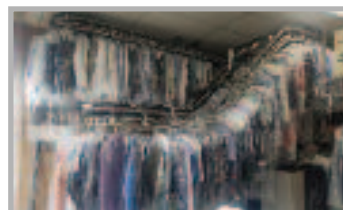
Asking \$50,000



● Take Out Seafood 튀김 가게

보스톤 환승 스테이션 위치, 특점 상권 종일 바쁜 가게, 매상 50% 순수익, 연매상 \$300,000이상

Asking \$150,000



● 세탁소매매

보스톤북쪽에 위치, Full plant 세탁소 안정된고객과매상

Asking \$165,000



● 세탁소 단독건물 매매

보스톤 인근에 위치, 안정된 매상, 좋은 위치 및 개발중인 Complex 인근에 위치

Asking \$1,095,000

제 21회 뉴잉글랜드 한인 미국시민협회 정치인턴 모금만찬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2019년 시민협회 정치인턴 모금만찬

2019년 4월 6일 (토), 저녁 6시



샘 윤은 현재 KAA (Korean Americans in Action) 창립 사무총장으로 2018년 4월부터, 미국 와싱턴 DC에서 전미주 한인 지도자들과 연맹하여, 동포들의 미국사회 전반에 걸친 적극적인 참여를 돕고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는 한국계-이세 인권운동가이다. KAA창립 이전에는, CKA (Council of Korean Americans)를 2012년 창단하여 6년여 기간동안, 현재 미국 전역에 걸쳐 190명의 정회원, 이백만불 예산, 네명의 임원진을 갖는 조직으로 성장시켜, 전미주 한인의 인권이슈를 알리고 대변하는 단체가 되었다. 오바마 행정부의 수석 정책 자문인으로, DOL(연방노동부) 산하 핵심기관인 DET(고용과 직업교육국)에서 미국내 고용, 실업, 직업교육 전반에 걸친 정책자문을 하였으며, 와싱턴DC에서 NACEDA의 사무총장으로 전미국 전역의 지역발전을 돕는 비영리단체에서 봉사한바 있다. 그리고, 가족들과 함께 와싱턴DC지역으로 이사하기 전, 보스턴에서 한인/아시아인 정치역사 최초로 보스턴 광역-시의원에 당선되어 4년간 지역사회를 위한 시의정 활동을 하였고, 2009년에는 보스턴 시장으로 출마하여 더욱더 한인/아시아의 위상을 높인 한국계-이세 정치인이다. 샘윤은 프린스턴대학을 졸업한후 하버드 케네디 스쿨에서 정부-정책학 석사를 받았으며, 24년 결혼생활에서 네이튼, 나이오미 두 자녀를 기르며 현재 와싱턴DC 외곽/ 북버지니아에서 거주하고 있다.

행사 일시	2019년 4월 6일 (토), 저녁 6시
행사 장소	Lexington Elks Club 렉싱턴 엘크스 클럽 959 Waltham St. Lexington, MA (781.862.9759)
티켓 가격	일반: \$60, 학생 및 시니어: \$30 (저녁포함)
주 연설자	샘윤 (SAM YOON) KAA (Korean Americans in Action) 창립 사무총장
행사 문의	이경해 회장 (580.962.2689, Kayleebrokers@aol.com) 김성군 이사장 (617.799.7033) info@kacl-ne.org

저녁식사 제공. 바이올린 연주 및 버클리 재즈그룹 연주

후원단체

대한민국 주 보스턴 총영사관, NE한국학교, RI한인회, ME한인회, NH한인회, RI경제인 협회, 평통 자문위원회, 보스턴 한미예술협회, NE한인교회 협의회, NE한국학교 협의회, NE세탁인협회, 보스턴 한미노인회, 이중문화 NE지부, 보스턴 체육회, NE 과학협회, 보스턴 봉사회, 성균관대학 동창회, NE서울대학교 동창회, 보스턴 강원 도민회, 제노스코, Philharmonia Boston Orchestra

www.kacl-ne.org



2019년 3월 30일 토요일 오후 3시

Eliot Church
474 Centre St, Newton, MA

입장료: 일반 \$20, 학생 무료
티켓문의: www.kcsboston.org 781 - 223 - 4411
주최: 한미예술협회 (Korean Cultural Society of Boston)

The Korean Cultural Society of Boston 2018 - 2019 Season



2019 전국 수학 경시대회

주최 : 재미한인과학기술자협회 KSEA (Korean-American Scientists and Engineers Association)

재미 한인 과학 기술자 협회가 전국 수학경시대회를 개최하니 많은 참석과 후원을 바랍니다.



날짜 : 2019년 4월 13일 (토), 오후 1-4시


온라인 등록 및 정보 : <http://ksea.org/NMSC/>

장소 :
St. John's United Methodist Church
(성요한 교회)
2600 Massachusetts Ave. Lexington, MA 02421

참가비 : Online - \$25, On-site - \$30

재미 과기협 NE 지부 : <http://www.kseane.org>

온라인 등록 기간 : 2019년 2월 4일 - 4월 7일

공동 주최 :  뉴잉글랜드 한국학교 협의회

후원 :  재외동포재단

이 칼럼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신영각 (보스톤코리아 칼럼니스트)

人

由 (유)

진리를 알찌니 진리(眞理)가 너희를 자유(自由)케 하리라
Then you will know the truth, and the truth will set you free. - 요한복음 8:32.

2018년 9월 평양 남북 정상회담 때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함께 카 퍼레이드를 한 벤츠 리무진이 대북(對北) 제재 위반 품목이라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산하 대북 제재위원회가 지난 12일 밝혔다.

UN 대북 제재위원회는 이날 배포한 보고서에서 해당 차량을 대북 제재 위반 사치품으로 지목하면서 “대한민국 청와대 경호처 (Presidential Security Service of the Republic of Korea)에 문 대통령이 탔던 차량에 대해 확인했다”

외교 소식통은 13일 “유엔 대북한 제재위가 한국 정부에 문재인 대통령이 평양에서 탄 김정은의 벤츠 차량에 대한 정보를 요구한 사실이 있다”면서 “벤츠 차량의 연식(年式)이나 재원 등에 대해 문의했다”고 말했다.

이유는 차량의 재원과 제조연식을 기반으로 물었다는 것.

이에 관하여 청와대 경호처 관계자는 “확인해 보겠다”고 했었던다.

유엔 대북 제재위는 이 보고서에서 벤츠 리무진, 롤스로이스, 팬텀, 렉서스 LX570 차량 3종을 제재위반 사치품으로 지목했었다.

벤츠 리무진은 작년 6월 싱가포르에서 열린 1차 미북(美北) 정상회담과 베이징

에서 열린 북중(北中) 정상회담 때 김정은이 탔었던 차. 이 차량은 지난해 9월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이 카 퍼레이드를 할 때도 탔었다.

제재위 보고서엔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이 평양시내에서 카 퍼레이드를 하는 장면을 찍은 사진도 실렸었다.

제재위는 차량생산과 판매 추적을 위해 차량 고유번호를 확인해 달라고 싱가포르와 중국 당국에 요청했었던다.

1차 미북(美北) 정상회담과 북중(北中) 정상회담 때 김정은이 탔었던 차량이다.

제재위는 지난해 10월 평양에서 목격된 롤스로이스 팬텀에 대한 조사도 진행했었다. 롤스로이스측은 해당 차량이 2012년 7월에서 2017년 2월 사이에 ‘굿우드’ 공장서 생산된 7세대 팬텀이라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이 평양 방문에서 접대받은 교통수단이 유엔(UN)에서까지 문제를 일으킨 것은 한국외교사(外交史)에도 기록을 남길 뿐 아니라 UN의 역사에도 “굶는 나라”-(식량이 부족해서)-에 방문, 최고급 교통대접을 받은 걸끄러운 외교접대(外交接待)를 기록한 셈.

由: 從也 종야- “말미암을 유” - ‘밭 전(田)’ 자는 ‘동서남북(東西南北)’을 그리는 땅위에서 떨어지는 ‘물(水)’이 ‘땅(田:밭 전)’을 좌우한다해서 ‘말미

암을 유’ : 땅에 깔린 ‘밭(田)’에 하늘에서 ‘물(水)’이 떨어지니 ‘물(水)’을 따라 ‘존재(存在)할 수 밖에’.

물이 많이 고이면 ‘바다(海:해)’ 양이 적으면 ‘강(江)’.

예수 그리스도(Jesus Christ)께서 자기를 물(水)에 비유하셔서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泉水: 천 수=永生水)이 되리라 : but whoever drinks the water I give him will never thirst. Indeed, the water I give him will become in him a spring of water welling up to eternal life.” - 요한복음 4:14.

이 영생수(永生水)가 예수 그리스도께서만 전용수(專用水)로 공급하셔서 “죽은 후에도 새 생명 즉,永生水로 몰마르지 않게 찾는 이: Seeker who drinks the eternal life.”

이 언약(言約)이 확실하니 그 보증으로 성경(聖經)책을 통해 “하늘에서 흐르는 由水(유수)를 값 없이 마실 수 있는 곳: 십가 위에 막힌 하늘을 뚫고 하늘 물: 由水(하늘 물을 공급한다해서) 교회마다 이마에 “十” 가를 찍었다.

“하늘 가는 밝은 길이: The bright heavenly way” - 즉 하늘에 올라가는 由

를 허락하셨으니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 (Jesus Christ)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해서 교회마다 십가를 이마에 달고 있는 것.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에베소서 2:5, 6).

해서 우리에게 하늘 문(門)이 열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 And God raised us up with Christ and seated us with heavenly realms in Christ Jesus.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우리는 그의 만드신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For it is by grace you have been saved, through faith--and this not from yourselves, it is the gift of God not by works, so that no one can boast. For we are God's workmanship, created in Christ Jesus to do good works, which God prepared in advance for us to do. - 에베소서 2:8-10. 由이기 때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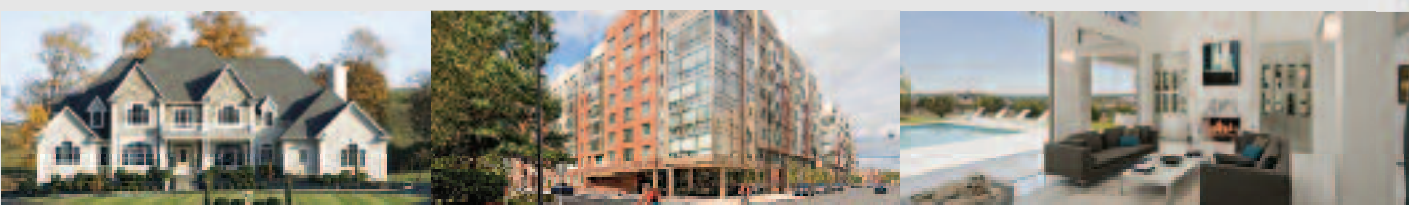


Susan Ahn 부동산

한인대표 에이전트 #1

고객들의 끊임없는 추천이 증명하는 실력, 신속 정확한 일처리

MULTI MILLION DOLLAR SALES. TOP PRODUCER #1 AGENT



보스톤 최고 명성의 부동산 회사 Centre Realty Group에 소속되어 있고, 20년 넘는 미국 생활과 부동산 노하우로 부동산 구매, 매매, 투자건물, 렌트를 찾아 드립니다. 한국에 계시는 고객은 계약을 하고 바로 입주하실 수 있도록 도와 드립니다.

Cell: 339.224.1512

Kakao ID: susan1223
Email: susan.ahn@centrerealtygroup.com

1280 Centre St.
Newton, MA 02459





Jay Lee

Newstar JBL Realty in Boston



잘 하겠습니다!

• 미주 최대 한인 부동산
• 고객과 함께 성장하는
뉴스타 JBL부동산

신뢰와 경험을 바탕으로 부동산 전문가들이 도와 드립니다

FEATURED LISTINGS (문의: 애나 정 617.780.1675)



East Cambridge New condominium에서 편리하고 멋진생활을 즐기시길 바랍니다.

55세대 Residential 7층 건물. 2bed만 Available. 입주와 투자용으로 최고의 위치 Lechmere 0.3miles MGH 1.5 miles Harvard University 2miles

ASKING \$899k - 1199k









Woburn's Newest Luxury farmhouse Condominium (Townhouse)에서 전원생활을 즐길 기회를 잡으시기 바랍니다.

총112세대, 1층 9 foot ceiling과 open concept floor plan. 2bed, 2bath이상

ASKING \$600,000-\$800,000

주택매매 전문, 상용건물, 투자, 사업체 아파트렌트, 부동산개발 투자상담 환영

금주의 LISTINGS

 <p>보스턴 남쪽 성업중인 세탁소 매매 고정손님 확보</p> <p>ASKING \$99,000</p>	 <p>단독 건물 매매. 세탁소 포함 오너 파이낸싱 가능 보스턴 남쪽</p> <p>ASKING \$480,000</p>	 <p>보스턴 남쪽, 세탁소 매매 안정된 수입, 고정손님 확보</p> <p>ASKING \$160,000</p>
 <p>Belmont 성황중인 Nail salon 주인 리타이어, 6 manicure, 6 pedicure, unlimited potential</p> <p>ASKING \$170,000</p>	 <p>새로이 설립되어 성업중. 무한한 가능성. 알링턴 Nail Salon & Spa</p> <p>ASKING \$375,000</p>	 <p>NH 대형 물 안에 위치 8 Manicure, 9 pedicure 성업 중인 Nail salon</p> <p>ASKING \$150,000</p>



WE ARE RECRUITING NEW AGENT

NOW HIRING

뉴스타 JBL 부동산과 함께 하실 새로운 가족을 찾습니다.



애나 정
617.780.1675



오성빈
978.505.3736

SOLD

1. 퀴지 마리나 베이 고급 1 B/R 콘도 **SOLD**
2. Condominium in Billerica 3 B/R, 2 Bath, \$280,000 **SOLD**
3. Drop Shop in Somerville \$30,000 **SOLD**
4. Condominium in Andover, 3 B/R, 2 1/2 Bath **SOLD**
5. Nail salon in Dedham **SOLD**
6. Brighton 1 Bedroom condominium **SOLD**
7. Dedham Single Family House, 6 Bed/4 bath **SOLD**
8. Boston Fenway Condominium, \$668,000 **SOLD**
9. Arlington Single Family House, \$1,495,000 **SOLD**
10. Quincy Single Family House 4 Bedroom **SOLD**
11. Dedham Single Family House \$745,000 **SOLD**
12. Drop shop in Newton \$49,000 **SOLD**

LISTINGS

 <p>North Andover 성업중인 풀 플랜트 세탁소</p> <p>ASKING \$130,000</p>	 <p>보스턴 서쪽 네일샵 안정된 수입, 고정손님 확보</p> <p>ASKING \$170,000</p>	 <p>캠브리지 비어 와인 팩캐지 store</p> <p>ASKING \$200,000</p>
--	--	--

지열발전소 물 주입과정이 응력유발 · 단층 자극 · 지진 촉발

(서울=뉴스1) 최소망 기자 = 한반도에서 발생한 지진 중 두번째로 큰 규모였던 '2017년 포항지진'이 인근 지열발전소에 의해 유발·촉발된 지진이었다는 과학적 근거는 '단층면'의 형태였다.

포항지진 정부조사연구단은 20일 서울 태평로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포항지진은 유발지진, 촉발지진이며 '자연지진'이 아니다"라고 못박았다.

연구단은 자연지진이 아니라는 과학적 근거로 포항지진의 단층면이 기존에 지열발전소 실증과정에서 물을 주입하는 압력이나 과정에서 발생하는 '수리자극' 때문에 발생한 미소지진(리히터규모 3.0 이하의 소규모 지진) 단층면과 일치했다고 밝혔다.

이강근 정부조사연구단장(서울대 지구환경과학부 교수 겸 대한지질학회 회장)은 "수리자극 과정에서 가해진 주입압력과 주입량의 자료를 이용해 주요 진원 위치에서 시간에 따른 공극압의 분포를 계산했다"면서 "이 결과는 지진발생의 시공간적 분포와 일치했다"고 말했다.

그동안 지열발전소와 포항지진이 관계없다고 주장하는 측에서는 지열

발전소 실증 시기와 포항지진의 시기가 맞지 않는다는 주장을 폈었다. 지열발전소 실증이 포항지진보다 앞섰고 수리자극을 줘서 발생한 미소지진과 포항지진을 연관시키기엔 시간 지연이 있으며 거리도 다소 떨어졌다는 것이었다.

이에 연구단은 포항지진을 포함해 지열발전 실증부지 부근에서 발생한 지진들의 진원 위치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 속도모델 구축·상대위치 결정·지진의 진원 위치 등을 이용한 보정 과정을 거쳤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98개 지진의 정확한 진원을 결정했다.

또 지열발전을 위해 물이 주입되는 두 지열정(PX-1·PX-2) 중 PX-2 지열정에서 수행한 수리자극에 의해 유발된 미소지진들이 이루는 평면과 포항지진의 단층면이 일치하는 것을 확인했다.

이 단장은 "지열발전소 실증 과정에서 수리자극을 준 이후에도 공극압이 지속적으로 확산되면서 이 압력이 지층단층에 계속 확산돼 지진 발생의 시간적 지연을 설명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그 외에 평면이 통과하는 위치에

관한 여러 증거들도 발견됐다. 시추공 영상검층결과 PX-2 지열정이 3783m 심도에서 막혔고 PX-2 압편 시료를 분석한 결과 3790m~3815m 심도 구간에서 단층으로 생긴 부러진 암석 '단층베' 지대가 존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지진분석을 통해 결정된 단층면을 연장하면 이 심도와 일치하기도 했다.

이강근 단장은 "이는 포항지진 발생 시 이 단층이 파열되면서 PX-2 지열정의 '케이싱'(굴 붕괴를 막기 위해 설치하는 파이프)을 손상시켰음을 의미한다"면서 "또 다른 증거로 PX-2 지열정에서 급격한 수위 하강과 지하수 화학 특성 변화가 관찰됐다"고 설명했다.

지열발전을 위한 굴착 시 발생한 이수누출(mud loss)과 PX-2를 통해 높은 압력으로 주입한 유체에 의해 확산된 공극압이 포항지진 단층면 상에 남서방향으로 깊어지는 심도의 미소지진들을 순차적으로 유발시켰다. 이수누출은 주위의 압력이나 응력으로 인해 진흙과 같은 형태의 이수가 지면 내 간극을 통해 나오는 것을 말한다.

이강근 단장은 이어 "시간의 경과



이강근 포항지진정부조사연구단장이 20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포항지진과 지열발전의 연관성에 관한 정부조사연구단 결과발표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에 따라 결과적으로 그 영향이 본진의 진원 위치에 도달되고 누적되어 거의 임계응력상태에 있었던 단층에서 포항지진이 촉발됐다"고 결론을 내렸다.

정부조사단이 정의한 유발지진은 지구 내부에서 유체 주입의 영향으로 공극압과 응력이 변화된 암석의 공간적 범위 내 일어날 수 있는 규모 지진을 말한다. 즉, 유발지진은 이때 유체 주입과 조구조 운동으로 축적된 변형 에너지는 방출하는 것이다.

촉발지진은 인위적인 영향이 최초

의 원인이나 그 영향으로 자극을 받은 공간적 범위를 크게 벗어나는 규모 지진으로, 이때 지진은 대부분 조구조 운동으로 축적된 변형에너지를 방출한다.

한편 연구단은 지난 2018년 3월 출범해 포항지진의 지열발전소 유발여부를 밝히기 위한 연구를 진행해왔다. 지진·수리지질·구조지질·지질역학·물리탐사 등의 분야에서 연구를 진행했다.

somangchoi@news1.kr

정부, 포항 지열발전 영구중단...법원판결 따라 배상

"조사 결과 겸허히 수용...포항시민에게 깊은 유감"
"지열발전 상용화 기술개발 추가사업 계획 없어"

(세종=뉴스1) 한종수 기자 = 정부가 2017년 11월 규모 5.4의 포항 지진을 촉발한 포항 지열발전소 사업을 영구 중단하고, 조속한 시일 내에 원상 복구하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현재 중지된 지열발전 상용화 기술개발 사업을 포항시 협조 및 절차를 거쳐 영구 중단하고, 해당 부지는 전문가와 협의해 안전성이 확보되는 방식으로 조속히 원상 복구하겠다고 20일 밝혔다.

이러한 결정은 정부 조사연구단이 이날 오전 기자회견을 갖고 "지열발전을 위해 주입한 고압의 물이 알려지지 않은 단층대를 활성화해 포항지진 본진을 촉발했다"는 내용의 조사 결과를 발표한 데 따른 것이다.

앞서 산업부는 포항지진과 지열발전과의 상관관계를 조사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로 구성된 '포항지진 조사연구단'을 구성하고, 작년 3월부터 1년간 정밀조사를 진행해 왔다.

정승일 산업부 차관은 이날 조사단의 발표와 관련해 긴급 브리핑을 갖고 "조사연구단의 연구 결과를 겸허하게 받아들이며, 피해를 입은 포항시민들께 깊은 유감을 표한

다"고 공식 사과했다. 정 차관은 포항지열발전이 정부기관에서 추진한 사업인 만큼 정부 배상책임을 묻는 질문에 "현재 국가를 피고로 하는 손해배상 소송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법원 판결에 따르겠다"고 밝혔다.

그는 또 이번 조사 결과가 포항 외에 다른 지열발전소에도 영향을 미치느냐는 물음에는 "울릉도 지열발전이 이미 중단되는 등 현재 경북 포항 외에 지열발전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곳은 없다"며 "추가적인 사업 계획도 없다"고 답했다.

정 차관은 "현재 포항 지열발전사업에 대해 감사원의 국민감사가 청구돼 있다"며 "이와 별도로 정부는 지열발전 상용화 기술개발 사업의 진행 과정 및 부지선정의 적정성 여부 등에 대해 엄정하게 조사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그는 또 포항 지진 피해복구와 관련해 "올해부터 5년간 총 2257억원을 투입하는 특별 재생사업으로 주택 및 기반시설 정비, 공동 시설 설치 등을 신속하고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며 "필요한 추가 조치에 대해서도 관계



정승일 산업통상자원부 차관이 20일 정부세종청사 산자부 기자실에서 포항지진과 지열발전의 연관성에 관한 조사 연구결과 발표와 관련된 산자부의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기관과 긴밀하게 협의해 종합 검토하겠다"고 전했다.

산업부에 따르면 포항지열발전소는 이명박정부 시절인 2010년 12월 당시 산업부에서 지원하는 국가 연구개발(R&D)로 포항 북구 흥해읍 일대에 추진된 민·관 합동사업이다.

총 473억원(정부 195억원, 민간 278억원)을 투입해 지난 2012년 9월에 착공한 이 사업은 넥스지오(주관기관)와 포스코, 이노지오 테크놀로지, 지질자원연구원, 건설기술연구

원, 서울대학교가 참여하고 있다. 산업부 산하기관인 한국에너지기술평가가 원이 정부 연구개발 사업을 관리하는 주체로 이 사업 진행 상황 등을 보고받는 전담기관으로 이름을 올렸다.

2017년 11월 15일 발생한 5.4 규모의 포항 지진은 전년 9월 경북 경주(규모 5.8)에 이어 한국 지진 중 두 번째로 강했다. 당시 135명의 인명피해가 났고 공식 재산피해도 850억원에 달했다.

jepoo@news1.kr

한인 업소록

Korean Business Directory

건립 주요 전화

가정폭력상담소(Ex.33)	617-338-2352
건인	800-632-8075
고등교육위원회	617-727-7785
고등교육정보센터	800-442-1171
공중위생국	617-624-6000
구세군	617-536-7469
국제청	800-829-1040
날씨문의	617-976-6200
로건국제공항	800-235-6426
미아찾기	888-477-6721
백배이역	617-345-7958
보스톤공립학교	617-635-9000
보스톤수도	617-989-7000
보스톤시청	617-635-4500
보스톤총영사관	617-641-2830
사우스익	617-345-7958
사회보장국	800-772-1213
성폭행	781-237-9110
성폭행	617-492-8300
시간문의	617-637-123
아동보호	617-748-2000
아동학대	800-792-5200
알코올/마약	617-445-1500
여성학대	617-248-0922
운전면허	617-351-4500
웰페어	617-348-8500
자원봉사	800-522-8086
적십자	800-564-1234
전화신청 (Verizon)	800-941-9900
전화공정신청 (Verizon)	617-555-1515
택시	617-343-4475
AAA	800-222-4357
FBI	617-741-5533
MBTA	800-392-6100
NSTAR가스	800-572-9300
NSTAR 전기	800-592-2000
RCN케이블TV/전화	800-746-4726

구세군물론교회	617-792-8780
그레시언연합감리교회	203-459-8517
그리치연합감리교회	203-861-1134
그린랜드연합감리교회	603-430-2929
나사렛사립교회	781-439-1840
내수아한마음교회	603-888-8040
뉴잉글랜드감리교회	617-969-0507
뉴잉글랜드한미교회	413-567-9142
뉴튼 아름다운 교회	617-869-8159
뉴햄프셔감리교회	617-990-7619
뉴햄프셔장로교회	603-437-5134
뉴햄프셔한미교회	603-264-6799
라이코스교회	978-387-1115
라이스한인침례교회	508-926-8236
로디아일랜드성교회	401-353-0983
로디아일랜드제일교회	401-944-0520
대생명의길장로교회	617-821-2311
메리맥 교회	978-806-1363
목양교회	617-223-1690
무지개교회	207-774-1617
말할한인교회	978-244-0691
렉싱턴 동성교회	617-953-0856
버클랜드 침례교회	617-864-5948
보스톤 국제교회	617-459-6479
보스톤 감리교회	781-393-0004
보스톤 사랑의교회	617-285-8870
보스톤 사랑제일교회	978-844-2404
보스톤 은혜장로교회	781-715-0571
보스톤 새날교회	617-947-6765
보스톤 새생명교회	978-777-1800
보스톤 생명의 교회	978-578-6987
보스톤서부장로교회	781-894-3958
보스톤 성결교회	781-275-8233
보스톤 한울교회	781-396-1004
보스톤 소망교회	781-686-5526
보스톤시온성교회	781-275-1763
보스톤안식일교회	781-279-3270
보스톤 온누리교회	781-933-7044
보스톤웨슬리안교회	781-393-0004
보스톤 장로교회	508-435-4579
보스톤 제일교회	617-458-2733
보스톤 주님의교회	617-966-9608
보스톤 중앙교회	617-230-5004
보스톤 필그림교회	857-636-9985
보스톤 한인교회	617-739-2663
보스톤 한우리교회	978-454-0454
보스톤한인연합교회	617-923-9581
북부보스톤감리교회	978-470-0621
비전교회	617-308-2391
새빛교회	781-652-0001
새예루살렘교회	774-249-0022
선한목자장로교회	904-400-9386
성요한 교회	781-861-7799
순복음 보스톤교회	781-642-5372
스프링필드한인장로교회	413-789-4522
스프링필드제일교회	413-781-2477
스티븐스교회	401-739-8439
안디옥 교회	978-534-3394
열방교회	617-620-3362
에이더 벨렘교회	978-274-2359
엠헤스트 한인장로교회	413-549-6495
엘리스트 시온교회	413-549-9200
엘리스톤 한인교회	617-642-7403
우스터 교회	508-799-4488
우스터장로교회	781-354-1843
위킵스프린터 교회	978-876-2815
임마누엘 연합교회	978-394-3060
자연교회	603-437-6151
좋은땅교회	978-930-6613
지구촌장로교회	617-838-6434
케임브리지한인교회	617-491-1474
켄싱턴장로교회	781-861-3877
켄싱턴장로교회	617-770-2755
하바드 한인교회	617-441-5211

최현주 골프 레슨	339-223-4700
-----------	--------------

공인 회계사

김양일 회계사	617-901-0707
김창근 세무사	781-935-4620
노성일공인회계사	781-863-2232
이현주 회계사	781-944-2442
이명원 회계사	617-455-8073
정진수회계사	508-584-5860
한미회계사	617-792-2355
한성애회계사	617-283-7151

꽃

미스티화원	617-666-3116
데코플라워	617-875-0648
앤더슨꽃집	781-894-1843

금융 / 모기지

인디펜던트(금융)	617-777-2929
에이저 리	781-591-2722
이중수파이낸스	617-799-6158

냉동 / 에어컨 / 히팅

JK 플러밍	978-303-7000
Nirvana Air	508-473-3429

노래방

진 노래방	617-782-9282
-------	--------------

도서관

뉴햄프셔한인도서관	603-644-1991
보스톤공립도서관	617-539-5400

당구장

울스타당구장	617-782-0969
--------	--------------

동물병원

김문소 동물병원	978-649-6513
윤상대 동물병원	978-343-3049
제임스킴 동물병원	978-658-5282

떡 / 진치 / 반찬(주문)

형제떡집	978-343-6080
정음식주문	781-648-0584
한아름	617-547-8723

미용실

가위소리	617-782-8111
그레이스킨케어	978-468-0039
그레이스커팅클럽	617-331-1011
뷰티풀 헤어살롱	857-284-3879
세리 미용실	781-616-7374
안구정동열골방	617-437-0378
백영주부동산	978-239-0141
송근하미용실	617-290-0623
송기백부동산	781-510-9924
송현미부동산	617-835-7664
순옥위너부동산	508-737-8636
신현철부동산	617-947-6293
안 수진 부동산	339-224-1512
애나정 뉴스타부동산	617-780-1675
이경혜부동산	800-867-9000
이정신	781-883-5984
이도경(Condo & Rental)	781-771-0047
정혜윤부동산(EXT.125)	603-770-3491
정윤숙부동산	617-236-8600
제이슨진 부동산	617-642-5670
프루멘셀(이후속)부동산	203-255-2800
프루멘셀(김종미)부동산	603-845-2138

돌상 대어/폐백

해피돌상	617-249-3131
폐백	978-688-0929

방송국

엔티비보스톤시약국	617-955-9112
-----------	--------------

변호사

김공석특허변호사/변리사	617-239-0839
김성근 변호사	781-438-6170
김성희 변호사	617-884-0002
김연진변호사	617-742-7707
김성근 변호사	781-438-6170
김성희 변호사	617-884-0002
김연진변호사	617-742-7707
박현종특허변호사	978-474-8880
성기주변호사	617-504-0609
스티브 서 변호사(이민법)	203-852-9800
워드랜드/엑셈변호사	203-324-6155
장우석 변호사	781-712-1706
정선진변호사	617-230-0005
피터전변호사	203-386-0503
JOHN DOWNEY 법률사무소	647-964-5809
STEVEN S. KIM 변호사	617-879-9979
Joy Lee 변호사	617-624-0292
Young Lee Danesh	617-367-4949

병원

가정의	그레이스 김 가정의	978-475-5656
-----	------------	--------------

내과

송민근	617-696-7600
허버드병원(이재원)	617-421-2282
한서동내과	401-722-0305
한성식내과	978-854-6376

소아과

장경이 소아과	978-687-2119
---------	--------------

스킨&바디 클리닉

메드스파펠티니스	617-2026261
----------	-------------

심리상담

배주은심리상담사	617-566-1055
----------	--------------

심리상담

김자향심리치료사	781-789-8670 x6080
----------	--------------------

양미야헤일리카운셀링	508-728-0832
임나경심리상담사	617-738-9622

재활의학

가족클리닉로병원	781-365-1876
덕터스통증병원	617-731-1004
성진우추추신경전문	978-688-6999
추 남남 D.C.	617-230-4250
Hana Rehab Clinic	617-456-1199
보스톤건스태드카이로	617-277-0648

치과

김동원치과	978-689-9363
김정규 치과	860-623-2601
브라이언윤치과	978-655-1583
신영목 치과	617-265-5606
안 치과	781-647-8000
엑셀패밀리덴탈	617-471-6970
이영환치과	508-987-8228
이요셉치과	781-431-7295
케임브리지덴탈	617-492-8210
케임브리지덴탈아프릭	617-871-1482
퀸지소아치과	617-471-2184
손영권치과	978-459-0594
케임브리지덴탈그룹	617-576-5300
한은애고정치과	781-894-1127
아이콘덴탈	781-861-8978
ASHLAND FAMILY DENTAL	508-881-7272
장승혁보철임플란트	617-489-1470
전문치과	401-729-2711
Smart Dental	781-322-4914
ACTON 살롱치과	978-263-4592

기타

메모리얼병원(병리)	203-330-8080
문히어링 보청기	781-573-3277

보석

국제보석상	617-523-2553
메타판보석	617-298-6661
우리보석	781-272-2400

보험

이문영 보험	781-325-3406
조준은 종합보험	781-255-1134
베스트츠인한인종합보험	617-782-8800
윤광현 생명보험	978-390-4738

비디오

나비스(촬영/편집)	617-756-5744
------------	--------------

부동산

김종희부동산	978-866-7789
김현구부동산	617-694-0985
김택운 Realtor	617-678-9330
나원태 부동산	617-642-3156
뉴스타부동산	781-654-5281
백영주부동산	978-239-0141
송근하미용실	617-290-0623
송기백부동산	781-510-9924
송현미부동산	617-835-7664
순옥위너부동산	508-737-8636
신현철부동산	617-947-6293
안 수진 부동산	339-224-1512
애나정 뉴스타부동산	617-780-1675
이경혜부동산	800-867-9000
이정신	781-883-5984
이도경(Condo & Rental)	781-771-0047
정혜윤부동산(EXT.125)	603-770-3491
정윤숙부동산	617-236-8600
제이슨진 부동산	617-642-5670
프루멘셀(이후속)부동산	203-255-2800
프루멘셀(김종미)부동산	603-845-2138

사진관

김아람 포토그래피	617-529-0427
나비스 스튜디오	617-756-5744
영스튜디오	774-253-1800
스튜디오 주니	617-460-3227

생선가게

매더팬시마켓	617-298-2260
매일잔치피시	781-862-7984
보스톤피시	617-282-2980
북록턴피시마켓	508-580-1016
스타피시마켓	617-524-8711
키스피시마켓	617-282-6142
파이시스피시마켓	617-522-2028
K씨푸드	781-961-1114

식당

가든하우스	978-691-5448
가주순두부(울스톤)	617-208-8540
가주순두부(켄모어)	617-936-4252
고향식당	413-586-2682
고투	401-232-3838
KIKU(한&일식)	603-882-8644
가유가	617-566-8888
뉴장수갈비	781-272-3787
다빈	781-860-0171
다오라시	508-587-3920
다이내마이트	603-889-0055
다케무라이식	617-492-6700
리틀부산	978-897-5107
서울식당	617-973-6680
서울식당	978-594-8256
만나스시	781-648-8878
명동일번지	617-206-3229
미가	860-895-8739
미나도	508-647-0495
미나토 도시	617-731-5200
미소노	617-325-9919
Mr. 도시	617-731-1122
Mr. 도시 (Arlington)	781-643-4175
플랜	781-863-2800
본촌	617-254-8888

본촌 허버드스퀘어	617-868-0982
북경반점1	617-623-7220
북경반점2	617-254-2775
비빔	617-787-5656
와보라	617-431-2284
사보로스시바베쿠	508-898-1880
산수갑산	781-270-6200
서울성령당	617-505-6771
수라상주문음식	978-314-9752
순두부 CHO CHO'S	617-868-4246
아리수 레스토랑	978-466-8688
아리랑주문음식/케이타링	857-919-1549
영차우루	617-645-9066
오빠스시	617-202-3808
요시식당	617-623-9263
요코하마	978-689-4047
우리코	781-859-8558
우전	781-221-8486
우정식당	978-772-5742
웨스트보로한국식당	508-366-8898
이가그릴	978-725-5222
제이피피푸드카페	978-794-9806
수라 BBQ	781-391-5606
코리아나 식당	617-576-8661
코리아인 그릴	617-472-1006
하나 스키	617-868-2121
한국가든	617-562-8989
한마루	617-779-7907
후지식당 (메인)	207-773-2900
Suishaya	617-423-3889
ZEN320	617-566-7800

식품

고향식품	413-586-2682
미래식품	401-941-9419
릴리아어블마켓	617-623-9620
신신식품	978-686-0813
Sun 동양식품	207-772-8675
H마트	781-221-4570
오미식품	413-736-7878
제일식품	413-592-5452
청계식품	978-772-5213
아시아나 마켓	401-438-9992

여행사

오리엔트여행사	617-536-8888
유니버스여행사	617-739-2888
코리아여행사	617-267-7777
하나여행사	800-368-6977
IACE여행사	617-424-8956

운송(아샵)

대한이샵(주)	877-460-2424
대한통운 보스톤지사	978-461-2424
범양해운 보스톤지사	617-645-1538
보그운송/보그해운	617-910-7664
OHNK(오엔케이)	978-922-0929
우리익스프레스	617-699-6272
한진택배 보스톤 대리점	617-782-2424
한진택배 귀국이사	617-935-3022

의류/잡화/신발

Alpha & Omega	617-427-3044
Melting Pot	617-298-2288
New York Fashions	617-427-2632
남녀우션선전문점	781-273-0006

이발소

린드이발관	781-489-5633
-------	--------------

인쇄/디자인

나비스	617-756-5744
-----	--------------

자동차(정비)

SUN AUTO(태양자동차)	617-868-2600
대진자동차 (정비)	7

성양두안 다블뤼 보스턴 한인성당
St. Anne of Doubtless Parish of Boston, MA

판공성사
주일과 평일미사 전후 30분
3/27(수), 4/3(수) 7pm-9pm

성목요일 (4/18)
8pm- 주의 만찬미사

성금요일 (4/19)
3pm- 십자가의 길
8pm- 수난예절

성토요일 (4/20)
9pm- 부활 성야미사

부활절 (4/21)
3pm- 부활대축일 낮미사 및 세례성사

45 Ash
St. Newton, MA 02466
617-558-2711, 617-244-9645
office.kcct@gmail.com

하나님을 기뻐하는 교회 삶을 노래하는 교회

나사렛사람의교회
KOREAN CHURCH OF THE NAZARENE

주일예배 오전 11시

*"하나님은 가까이 계시합니다.
나사렛사람의교회도
가까이 있습니다."*

900 Main Street
Reading, MA 01867
보스턴 북쪽
I-95 Exit 38B
(Rt. 28N)로 나와서
2 마일 왼쪽에 있습니다.
Tel. 781.439.1840

www.npeople.org
담당목사 유 경 열

HANNDYMAN ANDY **핸디맨 앤디**

플러밍, 변기, 욕조, 전기
상가, 가정집, 신, 증축
목수일, 마루, 타일 etc.
식당 후드팬,
식당 장비 수리

상담문의 **508.685.7688**

초이스 간판

간판 및 사인
LED Sign, Channel Letter,
Truck Lettering, Banner,
Poster, Window Lettering,
Car Sign, All Types of Signs.

617.470.1083
choisigns@yahoo.com

성경대로 믿으며
성경대로 가르치고
성경대로 실천하는 교회

사랑제일교회
LOVE FIRST
PRESBYTERIAN CHURCH

담임 목사: 권중삼
Faith Theological Seminary, M Div.
New York Univ. M.E.
한양대학교 대학원
한기총 대한예수교장로회 미주노회 소속

교회 예배 안내	
주일 예배	오후 2시
주일 학교	오후 2시
전도인 공부	오후 4시
화요 공부	오후 7시
수요 예배	오후 7시
구역 예배	각 구역별

* 모든 예배는 영어로 동시 통역됩니다.
All services are translated in English simultaneously

461 King St. Littleton, MA 01460 Tel: (978) 696-3293, (978) 844-2404
www.lovefirstchurch.com

보스턴 서부 장로교회
Boston-West Korean Presbyterian Church

어머님 마음 같은 교회

주일예배: 오후 2시	주일학교: 오후 2시
중고동부: 오후 2시	대학부모임: 주일 12시
금요기도회: 오후 8시	구역모임: 구역별로

담임목사: 김학수
www.bostonwestchurch.org

657 Boston Post Road, Weston, MA 02493
교회 : 781.894.3958 목사관 : 617.969.5809

우스터한인연합감리교회

예수님을 알고
그를 알리자

<예배시간>
주일: 오전 10:30
주일학교: 오전 10:30
금요기도회: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6:00(화~금)
우스터한국학교: 토 9:30~12:30

114 Main St. Worcester, MA 01608
Fax: 508.799.4488
<http://workmc.org>

담임목사: 김현태
617.780.4178

사업의 시작은
이경해 부동산

Tel 800.867.9000
Cell 508.962.2689

email: kayleebrokers@aol.com
www.leebrokers.biz

4989 부동산 매개는

BH HS 버크셔 헤서웨이
BERKSHIRE HATHAWAY

617-969-사구팔구

www.bhh-sneprime.com

보스턴 봉사회

의료보험안내
무료세금보고

Tel. 508-740-9188

‘성령 안에서 하나되는 교회’

하나님과 나 사이에 죄로 인해 막혔던 담을 예수님이 무너뜨리셨습니다.
그 사랑으로 우리도 서로 사랑하며,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이루었습니다.
겸손.. 은유.. 인내.. 사랑.. 용납.. 부끄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겠습니다.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금요찬양예배 저녁 8:00
주일예배 오전 10:00

주일 예배 오전 10:00
주일학교, 유스 예배 오전 10:00
금요찬양예배: 금 오후 8:00
새벽예배: 월-금 오전 5:30, 토 오전 7:00
청년모임 주일오후 12:30
속회모임 수 - 주일 속회별
중보모임 화, 목 오후 8:00, 주일 오전 9:30
성경공부 주일 오후 12:30, 수 오전 9:30, 금 오후 9:30

비전 교회
80 Mt. Auburn St., Watertown, MA 02472 Tel: 617.744.9557
www.gracevisionumc.org

UMS 신용카드결제 전문 기업 SINCE 1994

**15년동안 한인 비즈니스의
크레딧 카드 솔루션을 책임져 왔습니다.**

전문성과 기술력으로
탁월한 한국어 서비스를 제공하는 **UMS**

flex Gift **UP SOLUTION**

UMS는 뉴저지에 본사를 둔 카드결제 전문회사로서 미 전역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FlexGift 기프트카드 프로그램, 자회사 UP Solution을 통한 POS 시스템, 모바일 결제 시스템 등
필요한 모든 제품과 서비스들을 제공, 최적의 환경에서 비즈니스를 하실 수 있도록 돕습니다.

UMS 보스턴지사 공식딜러 **이선호**
781.266.7245
617.820.4833



Choosing a quality, affordable education is more important than ever. Eastern Nazarene College is nationally recognized and among the top colleges and universities locally, regionally and nationally.



Serving the Quincy community since 1919



Associate's | Bachelor's | Master's
Traditional Undergraduate
Adult and Graduate Studies

Our honors programs have over 90% acceptance rate into medical and law schools.



EASTERN
NAZARENE COLLEGE

23 East Elm Avenue
Quincy, MA 02170-2999

617-745-3000 • www.enc.edu



ENC is expanding higher education pathways to Asian and immigrant students in partnership with Quincy Asian Resources, Inc. To learn more visit www.qarima.org/enc or call 857-334-9311.

"세월호, 아픔 딛기를"...'생일' 전도연X설경구가 담은 진심

(서울=뉴스1스타) 정유진 기자 = 배우 전도연과 설경구가 주연한 영화 '생일'이 베일을 벗었다. '생일'은 세월호 유가족의 이야기를 담은 작품. 처음에는 영화 출연을 놓고 망설였던 배우들은 영화의 진정성 때문에 선택하게 됐다며 세월호 유가족들에 대한 응원의 마음을 비쳤다.

전도연은 18일 오후 서울 용산구 CGV 용산아이파크몰에서 진행된 영화 '생일'(이종언 감독)의 언론배급사 회의 및 기자간담회에서 "감독님이 이 작품을 만들려고 했을 때 그리고 만들었을 때 만들고 난 지금도 다 같이 붙잡고 아프자고 만든 영화는 아니라고 생각한다. 아픔을 딛고 다시 잘 살아보자라는, 힘이 생길 수 있는 그런 영화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믿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래서 저희 영화를 응원해 주시고, 유가족들에게 힘이 되도록 응원과 사랑 많이 부탁드립니다"고 당부했다.

'생일'은 2014년 4월 16일 세상을 떠난 수호의 생일날, 남겨진 이들이 서로가 간직한 기억을 함께 나누는 내용을 담은 이야기다. 먼저 떠난 아들에 대한 그리움을 안고 살아가는 아빠 정일과 엄마 순남, 그리고 가족과 친구

들은 수호가 없는 수호의 생일에 함께 모여 서로가 간직한 특별한 순간들을 선물로 주고받는다.

설경구가 아들에 대한 죄책감을 갖고 있는 아빠 정일 역을, 전도연이 아들을 잃은 슬픔을 안고 살아가는 엄마 순남 역을 맡았다.

언론배급사 회의를 통해 먼저 공개된 영화는 세월호 사고 후 일상을 살아가는 가족들의 이야기를 섬세하게 그려냈다. 특별한 사건을 담기 보다는 충실한 취재를 통해 유가족들의 현실과 감정을 잘 그려내는 데 집중했다.

이종언 감독은 "많이 걱정하면서 시작했다. 끝날 때까지 걱정한 게 뭐냐고 질문하신다면, 만들고 싶다고 해서 만들어지는 게 아니겠지만, 이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어도 어떤 또 다른 상처가 생겨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 가장 컸다. 그래서 늘 만드는 과정 안에서 조심스러움이 컸던 것 같다"고 말했다.

두 배우 역시 초반에는 고사를 하려고 하기도 했다고 했다. 설경구는 "이 참사가 있는 후에 시인은 시를 쓰고 소설가는 소설가를 쓰고 (가수는) 노래를 만들고 추모 노래를 부른다. 우리는 영화하는 사람이어서, 시기에 대한 문제가 있었지만 (영화는) 왜 없

었을까 하는 생각을 했다. 해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일주일 정도 고민하고, 스케줄 양해를 구해서 이 작품에 참여하게 됐다"고 했다.

전도연 역시 "저도 설경구와 같은 고민을 했다. 슬픔이 너무 커서 감당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 고사도 했는데, 말씀하신 대로 이 이야기가 진정성 있는 이야기고, 앞으로 살아갈 사람들의 이야기여서 용기를 내서 선택했다"고 밝혔다.

설경구와 전도연은 18년 만에 한 작품에서 만났다. 전도연은 "(설경구와는) 어릴 때 같이 작품해서 그런지 친오빠 같은 느낌이 있었다. 극중 순남과 정일은 서로 익숙하고, 오랜 시간 함께 한 부부 관계인데, 믿고 그 감정 안으로 들어갈 수 있었던 것은 어떤 감정을 끌어가고 그걸 받아주는 설경구가 있었기 때문이다. 편한 연기는 아니지만, 믿고서 모든 연기를 쏟아낼 수 있었다"고 말했다.

소재가 소재인 만큼 우려와 걱정도 많았다. 연기를 하면서도 고민과 배려해야 할 것들을 생각했다. 전도연은 "내가 걱정했던 것은 순남을 보면서 이야기를 보면서 감정이 앞서 갈까봐 걱정을 많이 했다. 시나리오를 읽을 때 나 이야기를 읽을 때 순남으로 느낄



수 있는 감정인지, 제 슬픔에 젖은 건지 의심하면서 촬영했다"고 말했다. 설경구 역시 "정일이라는 인물은 참사의 당사자이면서도 감독님 시선에 관찰자 같은 역할을 해야 해서 누르고 답답하려고 노력 던 것 같다"면서 "옛날의 저를 생각하면 헝기 왕성하게 집어던지고 했을 텐데, (극중)도

장 여권에 받으러갈 때 전과 다르게 참아보려고 애썼다. 분노를 누르려고 애를 쓰면서 연기했다. 커트하고 현장에서 촬영 종료 후에 많이 깊이 울었다"고 말했다.

한편 '생일'은 오는 4월 3일 개봉한다. eujenej@news1.kr

3월 24일 - 3월 30일

재미로 보는 주간 운세 지문 철학원

www.askjiyun.com
213-739-2877



<p>쥐띠 장기적인 안목으로</p> <p>●운수: 모든 일에는 마침표를 찍어야 할 때가 있습니다. 끝이 있어야 새로운 시작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금전: 단기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장기적인 안목으로 일처리를 해야 합니다. 자신에게 유리하게 풀려 나갈 것입니다. ●애정: 내가 상대에게 솔직하지 않으면서 상대가 나에게 솔직하기를 바랄 수는 없습니다. 먼저 투명한 모습을 보여주세요. 84, 72, 60, 48, 36년생은 24, 29일 길일. 25, 26일 주의.</p>	<p>소띠 철저히 계획 세운 뒤에</p> <p>●운수: 늦춰서 좋을 일이 있고 미루고 늦추다가 낭패를 겪는 일이 있습니다. 지금은 잠시 멈추고 깊이 생각해야 할 때입니다. ●금전: 예상 밖으로 생긴 일로 지출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의욕만 가지고 움직이지 말고 미리 철저히 계획을 세운 뒤에 행동해야 할 것입니다. ●애정: 언젠가는 내 마음을 알아줄 날이 있겠지 위안하면서 견뎌야 합니다. 85, 73, 61, 49, 37년생은 25, 28일 길일. 26, 29일 주의.</p>	<p>범띠 아름답고 밝게 보는</p> <p>●운수: 긴 시간 기다려온 일이나 결말을 짓지 못하고 끌고 오던 일이 좋은 방향으로 풀려나옵니다.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기 시작할 것입니다. ●금전: 큰돈을 벌 수 있는 찬스가 생깁니다. 주머니 사정도 좋아질 것입니다. ●애정: 마음에 안 드는 점이 있어도 옆에 있다는 것을 감사하게 생각하세요. 아름답고 밝게 보는 시각이 행복을 만드는 것입니다. 86, 74, 62, 50, 38년생은 26, 30일 길일. 24, 27일 주의.</p>
<p>토끼띠 깨끗하게 정리해야</p> <p>●운수: 바라는 것이 이루어질 때까지는 어떤 일이 있어도 결코 물러나지 않겠다는 각오가 필요합니다. ●금전: 당장은 욕심이나도 타협하지 말아야 합니다. 부당하게 얻은 이득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애정: 오래된 가구를 버리고 방을 깨끗하게 해야 새로운 가구가 들어올 수 있듯이 마음도 깨끗하게 정리해야 새로운 사람을 만날 수 있습니다. 87, 75, 63, 51, 39, 27년생은 26, 27일 길일. 25, 28일 주의.</p>	<p>용띠 좋은 관계로 발전하게</p> <p>●운수: 뜻을 같이 할 수 있는 사람을 주위에서 찾아보도록 하세요. 혼자서 일을 추진하는 것보다 같이 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금전: 새로운 계획을 세우거나 새로운 사업을 추진하기에 적합한 때가 왔습니다. 거래처가 늘어나고 수입이 나아질 것입니다. ●애정: 시간이 가면 갈수록 가까워지고 더 좋은 관계로 발전하게 되겠습니다. 88, 76, 64, 52, 40, 28년생은 24, 28일 길일. 26, 29일 주의.</p>	<p>뱀띠 전화위복의 계기로</p> <p>●운수: 어렵게 보이던 상황도 자신의 의지력에 따라 얼마든지 전화위복의 계기로 바뀔 수 있습니다. ●금전: 당장은 좋아 보이고 편한 길처럼 생각되어도 다른 사람의 손을 빌리는 것은 다시 생각해야 합니다. 혼자서 헤쳐 나가는 것이 더 좋은 결과를 가져다줄 것입니다. ●애정: 넓은 마음으로 포용해야 합니다. 서로 타협해야 해결책도 생깁니다. 89, 77, 65, 53, 41, 29년생은 25, 29일 길일. 27, 30일 주의.</p>
<p>말띠 가만히 있어야</p> <p>●운수: 사소한 행동 하나가 가져다주는 파장이 생각보다 클 수 있습니다. 언행에 특별히 신경 써야 하겠습니다. ●금전: 고집을 부린다고 될 일이 아닙니다. 원가 아니라고 생각되면 빨리 포기하는 것이 좋습니다. ●애정: 부부사이의 문제는 두 사람이 해결하게 지켜보도록 하세요. 다른 사람이 나설 일이 아니니 가족이라도 가만히 있어야 합니다. 90, 78, 66, 54, 42, 30년생은 26, 30일 길일. 25, 28일 주의.</p>	<p>양띠 상승세를 타고 있으니</p> <p>●운수: 자신의 재능과 능력을 충분히 보여줄 수 있을 것입니다. 인정도 받게 되고 좋은 방향으로 일이 진행되어갑니다. ●금전: 부동산과 관련된 일에서 적극적으로 밀고 나가야 매매가 이루어집니다. 재물이 상승세를 타고 있으니 돈이 들어옵니다. ●애정: 새로운 만남이 시작됩니다. 주위에 사람이 많을수록 처신을 잘해야 이런저런 말이 들리지 않습니다. 91, 79, 67, 55, 43, 31년생은 27, 30일 길일. 26, 29일 주의.</p>	<p>원숭이띠 둘다리도 두들겨보면서</p> <p>●운수: 돌발 상황에 대한 대처능력이 떨어지니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할 것입니다. ●금전: 두근두근 후회하게 되는 일을 할 수 있습니다. 특히 금전과 관련된 일에서 둘다리도 두들겨보면서 건너가는 신중함이 필요한 때입니다. ●애정: 사소한 일이라고 가벼이 여기지 마세요. 아주 사소한 일로 틈이 벌어지면서 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92, 80, 68, 56, 44, 32년생은 25, 28일 길일. 27, 30일 주의.</p>
<p>닭띠 다시 한 번 점검해야</p> <p>●운수: 자신의 일보다는 다른 사람의 일로 일해야 하는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평소보다 더 힘들 것입니다. ●금전: 다시 한 번 점검하세요. 머릿속으로 많은 일을 계획하고 있지만 정착하거나 이루는 일도 없이 금방 시간만 지나갈 수 있습니다. ●애정: 상대의 말을 끝까지 들어야 합니다. 중간에 말을 자르거나 제대로 듣지 않으면 금방 후회하게 됩니다. 93, 81, 69, 57, 45, 33년생은 24, 29일 길일. 28, 30일 주의.</p>	<p>개띠 희망적인 결과를</p> <p>●운수: 자신만의 무대가 준비되었다고 생각하세요. 원가 중요한 일을 앞두고 있다면 희망적인 결과를 기대해도 좋습니다. ●금전: 조금만 달리 생각을 해보아야 합니다. 머리를 쓰면 쓸수록 좋은 아이디어가 떠오를 것입니다. ●애정: 꼭 이어져야 할 사람과 결국은 인연을 맺게 됩니다. 집안에 평화로운 기운이 감돌고 있으니 심신이 편안해집니다. 94, 82, 70, 58, 46, 34년생은 24, 30일 길일. 28, 29일 주의.</p>	<p>돼지띠 뜻밖의 귀인을 만나거나</p> <p>●운수: 모임이나 행사에 참석하면 행운이 따를 것입니다. 뜻밖의 귀인을 만나거나 좋은 기회가 생깁니다. ●금전: 어떤 일이든 처리하는 과정에서 신용을 가장 중요시 여겨야 합니다. 단골고객이 찾아와 매출을 올려주거나 수입이 증가할 것입니다. ●애정: 아기를 기다리던 부부는 하늘의 선물로 아기를 받게 됩니다. 건강한 아기를 잉태하기에 좋은 시기입니다. 95, 83, 71, 59, 47, 35년생은 28, 29일 길일. 24, 30일 주의.</p>

구인

광고 문의 617-254-4654

스톤햄, 방 렌트 단기/장기.
주방 사용 가능, 화장실 따로 사용.
T. 978-609-8749

렉싱턴센터에 위치한 한,일식당 다빈에서
웨이터, 웨이트리스 구합니다.
썸. 781-860-0171

'미쓰코리아' 한고은 · 박나래 · 광희 등 대세 총출동

(서울=뉴스1스타) 장아름 기자 = 믿고 보는 출연진과 제작진이 뭉쳐 tvN 새 예능 프로그램을 론칭한다. 이역만리 집-밥 교환 프로젝트 tvN '미쓰 코리아'가 오는 3월 시청자들을 찾아간다.

오는 3월 중 처음 방송되는 '미쓰 코리아 (연출 손창우)'는 추억의 맛을 찾아주고 하룻밤 얻어 자는 '글로벌 쿡스테이(Cook stay)'를 선보이는 예능 프로그램이다. 프로그램의 제목은 "I miss Korea(나는 한국이 그리다)"는 문장에서 따온 것으로, 한국을 그리워 하는 이들을 '마음'으로 '맛'으로 위로할 전망이다.

'미쓰 코리아'는 저마다의 이유로 한국을 떠났지만 여전히 한국의 맛을 잊지 못하는 사람들을 찾아간다. 그들에게 한국 음식을 요리해주는 대신 그의 집에서 하룻밤 머물며 이야기를 나누는 '이역만리 집-밥 교환 프로젝트'인 것. 그리운 맛에 얽힌 각자의 사연은 감동을, 좌충우돌 펼쳐지는 요리 과정은 재미를 선사할 예정이다. '짠 내투어'로 토요일 밤 웃음을 책임져 온 손창우 PD가 연출을 맡아 관심을 드높인다.

특히 드라마와 예능 프로그램을 넘나들며 활약하는 출연진이 총출동해 기대감을



증폭시킨다. 한고은, 신현준, 조세호, 박나래, 광희, 돈스파이크, 신아영, 장동윤이 출연을 확정짓고 '미쓰 코리아'의 멤버로서 준비를 마쳤다. 뛰어난 예능감부터 공감 능력, 언어 능력 등 다채로운 끼와 매력을 지닌 출연진 라인업은 벌써부터 역대급 케미스트리를 예고, 신선한 즐거움을 기대케 한다.

손창우 PD는 "요리 잘하는 새댁이자 해외에 사는 한국인들에 대한 공감 능력이 뛰어난 한고은부터, 자취로 다져진 생활요

리 달인 신현준, 잠재된 요리 실력의 소유자 조세호, 목포 손맛을 가진 파티 베테랑 박나래, 아이돌 요리왕 우승 경력의 광희, 현지 향신료에 일가견 있는 돈스파이크, 잡식미식이 신아영, 독학으로 로컬 음식 연구하는 셰프 꿈나무 장동윤까지 모두 합심해 그리운 정서를 달래는 한식을 선보일 예정"이라고 밝혀 기대를 모은다.

한편 '미쓰 코리아'는 오는 3월 중 처음 방송된다.

aluemchang@news1.kr

장 음식 주문

- 김밥 및 떡 전문
- 생일잔치, 교회모임
- 돌, 회갑, 계모임 음식
- 대학교 파티, 결혼식
- 저렴한 가격
- 맛있고 풍부한 음식

Tel:781-648-0584

K팝 유학온 외국인 소녀들...Mnet '유학소녀' 론칭

(서울=뉴스1스타) 윤희정 기자 = K팝에 푹 빠진 외국인 소녀들을 담은 예능 프로그램이 론칭된다.

20일 뉴스1 취재 결과, 엠넷(Mnet)은 신규 프로그램 '유학소녀'(연출 이연규)를 기획해 촬영을 준비 중이다.

'유학소녀'는 K팝을 사랑하는 열정 가득한 외국인 소녀들이 4주간의 합숙 생활을 하면서 과제를 수행하는 좌충우돌 유학 버라이어티다. K팝은 물론 K뷰티를 비롯해 한국 문화 전방위에 걸친 다양한 과제와 출연자

가 외국인이라는 점 등 새로운 요소들로 재미를 선사한다.

'유학소녀'는 K팝에 반한 외국인 소녀 10인에게 4주간의 유학생활을 지원하며, 그 과정에서 일어나는 일을 카메라 담는다. 끼와 열정이 넘치는 소녀들을 위한 각 분야 전문가들과의 만남 등 다양한 요소들이 있다.

엠넷은 지난 2월부터 SNS를 통해 지원자를 받았다. 오는 5월 방송을 목표로, 3월 내 촬영을 시작할 예정이다.

ichi@news1.kr



다문화 선교교회

Intercultural mission Church

담임 목사: 김동섭(Sam Kim)

가족 영어예배 사역

2세, 3세들을 위한 영혼의 쉼터

57 PETERS ST, NORTH ANDOVER, MA 01845

"광고는 영화다"

동영상 광고 전문제작 유튜브 / TV / 모바일

Nabis Studio
6177565744
ozio@hotmail.com
175 Harvard Ave, Allston, MA 02134
이벤트사진, 여권사진, 그래픽디자인 서비스

OTK 김원태 건축사
Registered Architect (MA & NY) • NCARB • CDT • LEED AP
MA REALTOR® • MA Licensed Real Estate Salesperson

건축 & 시공

15년 이상의 전문적인 경험
매사추세츠와 뉴욕 건축사 전문 라이선스 보유
독일 프랑크푸르트 대학교 건축학과 졸업
기획 · 설계 · 허가 · 시공 · 관리
각종 건물 신축 · 증축 · 개축
We can Design Build Buy Sell your home!
상용건물 · 콘도 · 주택 · 사업체 매매 도와드립니다
otk212@gmail.com 617.620.8242

아비를 죽인 자식

오이디푸스 왕은 나라가 기근과 역병에 시달리자 신탁을 통해 선왕 라이오스의 살해범을 찾아 처벌함으로써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다. 그러나 상황이 극적으로 반전되어 오이디푸스가 자신의 부모라 믿고 있었던 사람들이 생부모가 아니었고, 그에게 내려졌던 불행한 신탁대로 그가 친부였던 라이오스를 죽이고 어머니와 결혼했다는 사실이 드러나게 된다. 오이디푸스의 생모이자 아내인 이오키타는 자결하고, 오이디푸스는 이오키타의 옷에 달린 브로치를 뽑아 자신의 눈을 찌른 후 산속을 떠돌다 생을 마감한다. 소포클레스가 쓴 <오이디푸스>의 줄거리이다.

서양이나 동양이나 사람을 죽인 죄는 엄한 처벌을 받는다. 하물며 자신의 존속을 살해한 죄는 더 말할 필요도 없다. 고조선에서도 남을 죽인 자는 사형에 처한다는 이른바 8조 법금이 있었다. 오이디푸스처럼 아비를 죽이는 것을 patricide라 한다. patr-는 '아버지' 이고 -cide는 '죽이다' 이다. 엄마는 mater이므로 어미를 죽이는 것은 matricide이고, 형제나 자매를 죽이는 것은 fratricide이며, 유아를 살해하는 것은 infanticide이다. 인류최초의 살인이 바로 fratricide였다. 아담과 하와의 아들인 카인은 제 동생인 아벨을 죽이고 그 별로 에덴에

서 추방되어 평생을 두려워하면서 살아가게 되었다. 라틴어 어근 cid-는 '자르다' 란 의미의 동사 caedere에서 왔는데 어형에 따라 cid-, cis-로 나타난다. 자신(sui-)을 죽이는(-cide) 것이 suicide(자살)이고, 곤충(pest-)을 죽이는(-cide) 것이 pesticide(살충제)이다. 곤충(insect)을 죽이는(-cide) 것도 insecticide(살충제)이다. 인간(homi-)을 죽이는(-cide) 것은 homicide(살인죄)이다. 국제뉴스를 보다보면 끔찍하게도 대량 인종학살이 벌어지곤 한다. ethnic cleansing(인종청소)이라고도 하고 genocide(학살)라고도 한다.

'죽이다' 란 확장된 의미보다 '자르다' 란 원래의 의미를 가진 파생어로는 circumcision(할례), precise(정교한), concise(간결한), decision(결심) 등이 있다. 물론 decide(결심하다)가 de-를 죽이는 것이고, coincide(우연히 일치하다)가 coin-을 죽이는 것은 아니다. 이건 순전히 우연의 일치(coincidence)이다. 마치, -er로 끝나는 단어가 사람을 나타낸다고 해서 mother가 moth-하는 사람이고, father가 fath-하는 사람이고, brother가 broth-하는 사람이고, sister가 sist-하는 사람은 아니니까. 아무튼 -cide란 어근은 매우 어려운 라틴어 어근이라서 그런지 주로 형벌이나 범죄와 관련해

서 쓰이는 경우가 많다. 사소한 것 같지만 chisel(끌)이란 단어도 scissors와 마찬가지로 '자르다' 란 의미의 어근 caedere에서 왔다.

'자르다' 란 의미를 가지는 인도유럽어 어근으로는 sec-가 있다. 양분하다는 의미의 bisect, 절개하다는 의미의 dissect, 안쪽이 나누어졌다는 의미의 insect(곤충), 서로 나눈다는 의미의 intersect 등이 있다. 나누어진 부분들을 의미하는 sect(분과), section(부분), sector(분야, 영역) 등이 있다.

그리스어에서는 tom-이 이러한 의미를 가진다. atom은 나누어(tom) 지지 않는다(a-)는 의미에서 원자라고 번역한다. 이 밖에도 anatomy(해부), dichotomy(양분법), entomology(곤충학), epitome(요약, 잘라낸 것) 등이 있다. 어형이 다소 바뀌긴 했지만 tonsure는 머리를 자르고 성직에 들어간다는 의미의 '체발, 출가' 란 뜻을 가진다. 여기서 파생된 형용사가 tonsorial(이발사의)이다. temple(성당, 사원)은 다른 공간으로부터 잘라내어 신에게 바친 공간이란 뜻이다. contemplate(집중하다)는 마치 예언자가 temple에서 점을 치면서 가만히 관찰하는 것처럼 심사숙고한다는 의미이다.



마음대로 골라본다



\$14⁹⁹



WIFI 내장
Compact size
Settop Box \$55

Plus 상품
방송 3사

\$14⁹⁹

Premium 상품
방송 3사
지상파 / 케이블

\$24⁹⁹

VIP 상품
방송 3사 / 종편
지상파 / 케이블
Live / 스포츠

\$34⁹⁹

*전상품 무약정

티보 대리점 모집

각 딜러는 LA 본사와 직접 계약을 체결하며 초기 자본 없이 창업이 가능합니다.
주요 업무: 신규 서비스 설치 및 기존 고객관리
연락처: 617.949.1766

총 13개
Live방송중

NOW

지금 전화하세요!
617.949.1766

연합뉴스TV MBN / 채널A(동아방송) / KIDS / 육아방송 / CBS(기독교방송) / ETN / 바둑TV / 이벤트TV / KTV / 우리방송



경 미 최대 안마의자 전시장 하이트론스 **축**

대한민국 안마의자 위 기업 바디프렌드 안마의자 판매!

사랑하는 부모님께는,
용돈보다
안마의자!

전신마사지는 기본, 기억력과 집중력 향상까지
뇌피로 시대의 새로운 해법,
바디프렌드 브레인 마사지

BODYFRIEND



바디프렌드가 세계 최초로 선보이는 **브레인 마사지란?**

특허받은 바디프렌드만의 기술 뇌파 유도 사운드 바이노럴 비트
[뇌파 유도 사운드(바이노럴 비트)와 스페셜 마사지를 통해 뇌의 깊은 휴식을 유도하고 집중력 및 기억력을 향상시키는 두뇌 관리 솔루션입니다.]

▲ 특허 제 10-1853928호 : 브레인 마사지를 수행하는 안마의자 ▲ 특허 제 10-1853927호 : 브레인 마사지를 통해 집중력을 향상시키는 안마의자



**브레인 마사지 임상 입증
SCI급 논문 게재!**

[안마의자를 이용한 마사지와 바이노럴 비트(브레인 마사지)가 정신적인 피로와 집중력, 기억력 등에 미치는 영향]
의학 분야의 국제 SCI급 저널 Complementary Therapies in Clinical Practice에 게재되어 우수성을 인정받았습니다

**브레인 마사지를 세계 최초로 개발하여
임상연구를 통해 효과 입증**

뇌피로 회복속도 8.8 배증가	집중력 지속력 2 배증가	기억력 2.4 배증가
----------------------------	-------------------------	-----------------------



렉스엘 브레인



파라오 5 브레인



파라오 브레인



팬탐블랙 브레인



팬탐 브레인

HITRONS™ 보스톤

1666 Massachusetts Ave.
Lexington, MA 02420

781-862-6867 www.hitrons.com

NJ Main Branch

1 Remsen Pl,
Ridgefield NJ 07657
201-941-0024
(Ridgefield Hanyang Mall)

Bethel Health - NY

150-24 Northern Blvd,
Flushing NY 11354
718-445-2005
(Korea Village 1st fl.)

Bethel Health - NJ

1475 Bergen Blvd,
Fort Lee NJ 07024
1-888-809-1167
(Inside HanNam Mart)

PA Branch

1222 Welsh Rd, Unit B5,
North Wales PA 19454
215-368-1070
(Assi Plaza PA)

MD Branch

8801 Baltimore National Pike,
Ellicott City MD 21043
410-465-7125
(Lotte Plaza Market)

Mattress- NJ

470 Broad Ave,
Ridgefield NJ 07657
201-941-0010
(Next to the Dunkin Donuts)

신영의 세상 스케치

687회

이 칼럼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시인 신영은 월간[문학기]로 등단, 한국[전통문화/전통춤] 알리기 역할 등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다.

skyboston@hanmail.net

"백년의 봄" 3.1절 기념식과 헌정음악회에 다녀와서...

'백년의 봄'이란 주제로 3.1 운동 및 임시 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식/헌정음악회가 지난 3월 16일 Granoff Music Center, Tufts University에서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의 보스톤 협의회(회장:윤미자) 주최로 있었다. 사실 3.1절 행사에 참석했던 기억이 그리 많지는 않다. 선약이 있으면 참석하지 못하고 선약이 없을 때만 참석했던 기억이다. 지난해에 Philharmonia Boston(단장:장수인) 음악회에 참석했는데, 다음 음악회에서 사진도 담당할 겸 참석해 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들었었다. 마침 잊지 않으시고 올해 3.1절 기념식/헌정음악회에 초대해 주신 것이다.

투스(Tufts) 대학 그라노프 뮤직홀의 기념식장에 조금 일찍 도착했다. 들어서는 입구에서부터 그동안 이번 행사를 위해 많은 분들의 수고가 있었음을 직작케 했다. 순간 마음이 뿌듯해지며 감사함이 차올랐다. 이렇듯 한인들의 모임 속에 알게모르게 정성을 다해 바빠 움직이는 발걸음과 손길들이 있다는 것에 감사했던 것이다. 장수인 단장과 인사를 나누고 행사장으로 먼저 들어가 자리를 잡았다. 30분 후 쯤이 되니 하나둘 행

사로 들어오기 시작했다. 여기저기 바빠 움직이는 주최측 평통위원들의 움직임과 함께 사람들이 점점 많이 들어오고 있었다.

무엇보다도 눈에 띄었던 것은 고사리같은 손에 태극기를 들고 부모님의 손을 잡고 가족들이 들어오고 있었던 것이다. 참으로 마음 뿌듯한 모습이었다. 이렇게 모이기 시작하더니 300여 명 정도가 모인 행사가 되었다. 민주평통 자문회의의 여성분과 위원장(조은경)의 사회로 3.1절 행사는 시작되었다. 그리고 민주평통 자문회의의 회장(윤미자)의 환영사가 있었으며, 김용현 총영사의 축사와 함께 대한민국 문재인 대통령의 3.1절 기념사를 대독했다. 순서 순서마다 짧지 않은 시간이었지만, 태극기를 손에 든 아이들의 표정 속에 기쁨이 가득차 있어 감사했다.

또한, 기념식 마지막 순서로 민주평통 고문(한윤영)의 만세 선창에 따라 300여 명의 참가자들이 일어나 태극기를 들고 만세 삼창을 했다. 소프라노 나유선, 테너 이규영, 피아노 최호경, 하프 정연화씨 등이 아리아와 가곡을 연주했고 영상으로 3.1절 당시 모

습을 담은 사진을 보게되었다. 영상이 하나 둘 지날 때마다 마음에 더 깊이 다가와 박혔다. 나의 삶이 바빠서 아니 내 일이 아닌 것처럼 생각했던 어쩌면 저 먼 나라의 일처럼 관심 밖의 내동댕이 쳐졌던 100년 전의 우리 민족의 가슴아팠던 기억과 다시 찾은 내 나라의 기쁜 환희를 함께 나누지 못했는지도 모른다.

3.1절 행사에 참석하며 참으로 많은 것을 또 깨닫는다. 나의 부족한 마음에 대한 반성과 그 반성으로부터 새로운 내일을 준비한다. 이처럼 우리 민족의 뼈저린 아픔과 고통과 시련 속에서 광복의 기쁨을 얻었지 않았던가. 그 누구의 희생없이 이루어질 수 없었던 일임을 우리는 알지 않은가. 어제 없이 오늘이 없으며 내일이 없는 것이리라. 어제의 내가 오늘이 되고 오늘의 내가 또한 내일의 나를 미리보여주는 거울이라는 생각을 한다. 3.1절의 의미를 되새겨보면서 나 자신이 '한국의 딸'임을 잊지 않고 내 자리에서 제대로 자리매김하고 살길 기도한다.

타국에서 살면서 어디서나 당당하고 최선을 다하는 삶이길 기도하는 것이다. 그것이 바로 내 조국에 대한 애국자가 되는 것이

며 더 나아가 코리안 아메리칸으로서의 자부심과 자존감을 든든히 하는 일이라는 생각을 한다. 물론, 자녀들에게도 그렇게 교육을 할뿐더러, 우리 부모들도 자녀들 앞에서 더욱 당당한 모습의 부모가 되고 또한, 미국에 살아도 대한민국의 뿌리라는 것을 상기시켜주는 것이리라. 과거는 잊혀지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잇는 이름 다리이고 한 발을 내딛을 수 있는 디딤돌이고 든든한 버팀목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일이다.

이번 '백년의 봄'이란 주제로 3.1 운동 및 임시 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식/헌정음악회는 나 개인에게도 참으로 깊은 의미로 다가왔다. 이 행사를 위해 수고해 주신 손길들에 깊은 감사의 마음과 말씀을 전한다. 더욱이 고사리 손에 들리운 태극기의 휘날림은 우리 모두에게 '희망의 필력임'이었다. 또한, 기념식 마지막 부분에서의 '그리운 금강산(소프라노 나유선, 테너 이규영)'의 울림은 기념식에 참석한 모두에게 감격과 감동의 선물을 선사해주었다. 무엇보다도 Philharmonia Boston(단장:장수인)의 음악은 그 선율마다에서의 감동이고 감격이고 자랑스러움이었다.



고등어자반
2019.3

한담객설閑談客說: 고등어 자반



김화옥
보스톤코리아 칼럼니스트

속다 비우고
술술 파도의 알갱이를 뿌린
고등어 한 손

등푸른 바다의 지문이 새겨진
지느러미부터
아가미를 지나
눈까지
누우렇게 한 간으로 베이면

세상 바라보는 비릿한 시선도
하나로 포개진다
(고미숙, 중년부부에서)

안동에 자반고등어 뿐이라. 양반의 고향일

텐데, 대단한 선비들이 많았다. 퇴계까지 올라갈 것도 없다. 근대에도 이회령선생 집안에선 전재산을 팔아 온 식솔들이 만주로 갔다. 독립운동을 위해 간거다. 존경해야 마땅하다.

어족 풍부한 한반도에 사는 한국인들이야. 이제 남은 생선은 무엇인가? 갈치가 있고, 쫄치가 남았다. 그리고 보니, 피라미도 있고, 꼴뚜기와 망둥이도 있다. 이런 것도 생선인가. 해산물이라 해야 할까? 요사이 물고기 이름이 한국신문에 번번히 오르내린다.

성경에도 물고기는 자주 등장한다. 그런데, 갈릴리 호숫가에서 잡히는 고기이름은 뭐라던가? 고등어는 분명 아닐 것이다.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누가 5:6)

몇 주전이다. 우리교회 장로님 말씀. 요새 한담객설에 웬 생선이 풍년? 한담객설을 격려차원에서 읽으신 거다. 하긴 그렇다. 올초 명태를 시작으로 미꾸라지를 거쳤다. 이제 고등어로 간다.

잡힌 생선은 손질하지 않으면 맛이 변한다. 사정이 그럴적에, 생선위에 소금을 뿌려야 한다. 곧 염장(鹽藏)인 거다. 어느 글에서 읽었다. 한국 안동이야기 이다. 몇이 모였을 적에 각자 고향 해산물을 자랑하고 있었다. 한참 들으면서 쓴 입맛만 다시던 안동양반 왈. '우리 자반고등어!' 안동은 내륙에 있다. 해산물을 해안

가로 부터 운송하는데 시간이 걸렸을 거다. 당연히 신선한 생선은 귀했을 터. 그러니 소금에 절인 고등어자반만 밥상에 올랐을 게다. 아니 자반고등어라 해야 맞다. 햇갈리는데, 자반이란 말이 쉽지는 않다.

자박자박이라 하기에 굳었다. 차라리 꾸덕꾸덕이란 말이 어울릴 것이다. 자반고등어를 후라이팬에 살짝 구운 거다. 아내가 저녁상에 자반고등어를 올렸다. 밥 반찬인데, 반가운 마음에 가시를 대충 발라내고 그냥 먹어 치웠다. 아내가 눈을 흘기며 혀를 찼다.

한차원 높은 의료서비스 휴람 의료관광을 이용해보세요!



휴람 척추관절

나이가 들면서 오는 척추관절 퇴행성 질환...통증을 참고 계시나요?
어떻게 사시느냐가 중요합니다!!!
가치있는 생활을 위하여...하루 빨리 검사해보세요!!!



지금 상담을 통해 필요한 검사로 빠른 진단과 치료를 진행해보세요.
휴람은 국내수가로 부담없는 비용에 진행을 도와드립니다.

관절 질환

퇴행성관절염, 인대파열, 연골손상, 오십견,
회전근개손상, 무지외반증, 족저근막염등등

=> 세포치료, 체외충격파, 관절내시경, 발목골정술, 힌다리고정술, 로봇인공관절등등

척추 질환

디스크, 협착증, 측만증, 거북목증후군, 골절등등

=> 미세현미경디스크절제술, 경피적 척추성형술, 척추유합술, 신경성형술등등

*** 정확한 상담을 위해 기존에 촬영하신 X-RAY, MRI 사진을 카톡이나 이메일로 보내주시면 좋습니다.
*** 상기 치료는 병원에 따라 치료항목에 따른 비용 및 서비스등이 상이 합니다.

휴람 척추관절 네트워크 병원 - 휴람 상담을 통해 자세한 정보를 확인하세요!!!

사랑플러스병원(강동구 굽은다리역), 연세사랑병원(서초구 사당역),
세란병원(종로구 독립문역), H+양지병원(관악구 신림역), 중앙대학교병원(동작구 흑석역)



해외의료사업팀장
김수남

미국, 캐나다 무료전화(Call for free)
1-844-DO-HURAM(1-844-364-8726)
Tel : 070-4141-4040
카카오톡 : 010-3469-4040(ID: huramkorea)
이메일 : huram@haram.kr
홈페이지 : www.huramkorea.com

보스톤 문의

보스톤코리아 617-949-1766

협력업체

이 칼럼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이명덕, Ph.D., Financial Planner
 &Registered Investment Adviser (RIA)
 Copyrighted, 영민엄마와 함께하는 재정계획
 All rights reserved
 www.billionsfinance.com
 248-974-4212

영민 엄마와 함께하는 재정계획 (519)

기록적인 주식시장 상승

10년 전인 2009년 3월 9일 미국 주식시장 (S&P 500)은 크게 폭락했다. 최고점에서 무려 57%나 하락한 것이다. 투자자들의 마음은 두려움을 지나서 그저 허탈하고 막막한 심정이었다. 주식시장이 회복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것처럼 보였다. 이런 암울했던 상황에서 지난 10년 동안 주식시장은 꾸준히 상승했다.

10년 전 \$100,000 투자가 \$406,327로 증가했다. 투자 돈이 네 (4) 배로 불어난 것이다. 주식시장이 놀랍게도 300% 이상(The record bull market is 10 years old, Paul Davidson, USA Today, March 8, 2019)이나 상승했기 때문이다. 이런 놀라운 수익을 받은 투자자는 당연히 주식시장에 투자한 사람들이다. 주식시장이 두려워서 시장에서 나왔거나 투자하지 못한 사람들은 이런 혜택을 받지 못한 것이다.

2009년 주식시장이 폭락하기 전에 투자했던 투자자가 65%였는데 현재는 54%만이 주식시장에 투자하고 있다. 주식시장에

투자한 54%도 주식시장에 투자한 액수는 그리 많지 않다. 미국에서 상류 1%가 주식시장의 50%, 탑 10%에 속한 사람이 41%, 그리고 나머지 90% 인구가 주식시장의 나머지 9%만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부자가 더 큰 부자가 되고 가난한 사람이 계속 가난한 이유이다.

상승하는 주식시장에서 끊임없이 나오는 소식은 조만간 주식시장이 폭락한다는 예측이다. 이러한 예측을 믿고 주식시장에 투자하지 않았으면 상승한 주식시장의 혜택을 받지 못한 것이다. 일부 투자자는 지난 10년 동안 주식시장이 너무 상승했기에 투자하지 못한다. 주식시장이 하락하기를 기다린다고 한다. 그러나 주식시장이 얼마큼 하락하면 투자하는지 뚜렷한 계획도 없다. 사실 주식시장이 하락한다고 해도 투자하지 못한다. 주식시장에 이미 투자한 사람도 겁이 나서 팔고 나오는 상황에서 투자한다는 것은 매우 어렵기 때문이다.

미국의 경제는 강하게 성장하고 있으며

국내의 기업의 이윤도 함께 성장하고 있다. 500대 기업이 자기네 회사 주식을 다시 산 들인 금액이 지난 5년 동안 \$600 Billion이다. 금융위기 이후 주식시장 수익 총합계는 \$21 trillion 이상 증가하였다. 이 많은 돈을 나누어 가진 사람은 주식시장에 투자한 사람들이다.

일반 투자자가 이러한 상황에서 투자하기 전 고려해야 하는 것이 있다.

*** 본인에게 맞는 포트폴리오 형성:** 투자 목적과 투자 기간을 설정하고 얼마만 한 투자 위험성을 택할 것을 고려한 다음 주식, 채권, 그리고 현금으로 자산분배를 해야 한다.

*** 확실한 투자목적:** 투자를 하다 보면 ‘대박’ 을 은근히 기대한다. 대박을 기대하는 투자는 투자 위험성이 매우 높다. 가끔 운이 좋아 높은 수익률을 올릴 수 있지만, “운” 은 반복하지 않는다. 골프친구가 투자해서 ‘대박’ 이라고 하면 솔깃한 이유 전혀 없다. 그 속 내용은 아무도 모르기 때

문이다.

*** 분산투자:** 우리가 주식시장을 예측하지 못하는 것처럼 어느 투자종목(Sector)이 올라갈지 내려갈지를 모른다. 외국 주식, 미국 주식, 주식에서도 대기업 회사, 작은 회사, 부동산, 등 어느 종목이 어떻게 변할지 모르기에 여기저기에 분산투자해야 한다. 채권투자도 여러 종목에 분산해서 투자해야 한다.

미국 주식시장 역사상 가장 오랫동안 하락 없이 상승한 적은 1987에서 2000년까지이다. 13년 동안 주식시장은 582%나 상승했다. 현재 주식시장은 2009년부터 10년간 두 번째로 긴 상승을 하고 있다.

노후대책과 은퇴 후 생활비 마련은 몇 년이 아니라 몇십 년이 되는 긴 세월이다. 아무도 알 수 없는 주식시장 미래를 예측하며 투자하면 투자 손실로 이어진다. 제대로 설정된 자산분배와 분산투자로 포트폴리오를 형성해서 운용하는 것이 현 주식시장 상황에 절대 필요한 이유이다.



화랑도(花郎徒)와 성(性) 그리고 태권도(跆拳道) 268 화랑세기花郎世紀, 11세 풍월주風月主 하종夏宗(9)

박선우 (박선우태권도장 관장)

로 사죄하고 진흥왕은 모셨다.

한편 미실의 남편 세종은 그 동안 신라의 변방을 돌며 국방을 튼튼히 하고 국경을 넓혀가고 있었다. 당시 그는 6세 풍월주의 위에 있었지만 진흥왕이 미실을 후궁으로 취하면 서 변방으로 나가게 되었고, 경내의 낭도들은 미실이 원화의 위에 올라 지휘하고 있었다. 동륜태자의 ‘개 죽음’ 사건과 동시에 진흥왕은 세종을 소환하였다. 왕성으로 돌아온 세종은 진흥왕과 미실의 관계에 아랑곳하지 않고 왕에게는 충성을 받쳤고 아내 미실에게는 지성으로 대하였다. 이에 왕은 미실의 색도와 가무를 잊지 못하고 계속 전주殿主로 삼아 후궁으로 데리고 있고 싶었지만 세종의 충성심을 잃을까 염려하기도 하였고, 동시에 미실도 자신이 동륜태자와의 관계로 인한 죄인이라며 지아비와 함께 살기를 원하였다. 마침내 진흥왕은 허락하였고, 오랜만에 재회한 세종과 미실은 아들 하종과 어린 수종을 데리고 멀리 떨어진 해궁海宮으로 가서 살았다. 부모는 자식들을 사랑하며 건강을 해신海神에게 기도하였고, 늙름한 화랑으로 성장하는 하종은 부모들을 지극한 효도로 섬겼다. 여기 나오는 해궁의 위치는 알 수 없다. 실제로 동해안 어느 해변에 있었는지 또는 강변이나 연못이 있는 주택이었는지 아무런 구체적인 기록이 없다. 다만 원문으로 봤을 때 실제로 바닷가에 있었을 가능성이 많다. 원문에는 ‘해궁으로 피하여 가 살았다, 피거해궁

避居海宮’ 으로 기록되어 있다. 이종욱은(화랑세기 - 신라인 그들의 이야기, 178쪽) 미실의 가족이 살았던 해궁을 다음과 같이 묘사했다. “어디인지는 알 수 없으나 실제로 바닷가에 있는 궁일 가능성이 있다. 이 경우 해신의 존재가 주목의 대상이다. 또 바닷가 해궁이 어디에 있었는지 고고학적인 관심의 대상이 된다. 한편 왕경 안에 있는 저택에 연못이 있어, 그 저택을 해궁으로 불렀을 가능성도 생각할 수 있다.”

수종전군은 진흥왕의 아들이었지만 당시 태어나서 49일(또는 77일)에 전군 봉례식을 받은지 며칠이 지나지 않았던 갓난 아이였기에 미실이 데리고 해궁에서 살았다. 한편 진흥왕은 수종전군이 보고 싶다는 핑계로 여러 번 미실에게 입궁하라고 명했지만 그때마다 미실은 죄인이라는 핑계의 글을 올리고 입궁하지 않았다. 아들 수종이 보고 싶어, 사실은 미실일 가능성이 더 많다, 견딜 수 없었던 진흥왕은 친히 해궁으로 갔다. 그리고 왕과 미실은 눈물의 재회를 했다. 왕이 자신이 거처하는 해궁까지 친히 거동하니 마음이 움직인 미실은 왕궁으로 다시 돌아왔다. 그리고 세종은 병부우령兵部右丞에 제수되었다. 병부는 최초로 설치된 신라의 중앙관서이며 모든 군사사무를 관장하는 기구였다. 병부령은 군사조직에 대한 최고의 지휘권자였다. 삼국사기(직관지職官志)에 보면 중앙관서의 장관들은 대부분 대야찬(5등급)에서 야찬(2등급)

까지지만, 병부령은 대야찬에서 태대각간까지이다. 즉 관등이 다른 장관들보다 높았다. 병부령은 법흥왕3년(516년)에 설치되었고, 진흥왕 5년(544년)에 1인을 더했으며, 태종무열왕 6년(659년)에 1인이 또 추가되어 모두 3인이었다. 세종이 병부령으로 임명되었던 시기에는 우령과 좌령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병부령이 설치된 시기와 추가된 시점이 6~7세기로 신라가 영토를 확장하고 삼국을 통일해 나가던 시기와 같다. 즉 신라의 국경확장과 군사업무의 증가로 병부의 설치와 병부령 증원의 필요성도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병부령은 평시와 전시의 위상이 조금 달랐음을 볼 수도 있다. 평시에는 모든 군사업무를 주관하는 병부의 수장으로서 군령체계의 중요한 위치에 있었지만, 전시에는 다른 장관들과의 위상이 크게 다르지 않았음도 볼 수 있다. 일례로 태종무열왕과 문무왕대에 걸쳐 병부령을 지낸 진주眞珠는 대장군 김유신에 비해 그 지위가 낮았음을 볼 수 있다. 즉 5등급 야찬에서 1등급 이별찬(또는 각간), 태대각간까지 누가 임명되느냐에 따라 그 위상도 달라졌을 것이다. 태대각간은 문무왕 8년인 688년 고구려를 멸망시키고 김유신에게 종전의 17관등과 대각간에 한 단계 더 높혀 표창한 관직이었다. 대각간은 1등급인 각간보다 더 높고, 태대각간은 대각간보다 더 높다.

참고문헌: 삼국사기, 삼국유사, 화랑세기 - 신라인 그들의 이야기(김대문 저, 이종욱 역 주해, 소나무), 화랑세기 - 또 하나의 신라(김태식, 김영사)

이 칼럼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WHERE KIDS THRIVE

SUMMER FENN ONLINE REGISTRATION OPEN NOW



Online Registration Open NOW!

For more information; www.summerfenn.org

Summer Fenn is where you'll find kids unplugged, active and outdoors. It's a place where they are warmly welcomed each morning by familiar faces and new friends, and returned home with memories to cherish... A place where every child can try new things, make new connections, and feel valued just as they are. Summer Fenn is where kids thrive.

Weekly Session dates:

- Week 1 (June 24-28)
- Week 2 (July 1-5, we are OPEN July 4th for a 1/2 day, no pm extended day)
- Week 3 (July 8-12)
- Week 4 (July 15-19)
- Week 5 (July 22-26)
- Week 6 (July 29- Aug 2)
- Week 7 (Aug 5-9)
- Week 8 (Aug 12-16, NO pm extended day on Friday)

BASE CAMP

\$665/Week (\$655 Pay By Check Discount)
 Senior Camp (7th-9th Grade, Includes Weekly Field Trip) \$680/Week (\$670 Pay By Check Discount)

SF JUNIOR

\$380/Week (9:30am-1:30pm, Lunch Included) (\$370 Pay By Check Discount)
 Full Day Option \$600/Week (\$590 Pay By Check)

SPECIALTY CAMPS

One-Week Specialty Camps- \$695 (\$685 Pay By Check)
 Two-Week Specialty Camps- \$1390 (\$1375 Pay By Check)
 Three-Week Musical Theatre Camp- \$2,250 (\$2,220 Pay By Check)
 Build Your Own Boat- \$795 (\$785 Pay By Check)
 Two-Week Build Your Own Sailboat- \$1600 (\$1585 Pay By Check)

SPORTS CAMPS

Gaga Ball, All Sports, Full Day Soccer- \$650 (\$640 Pay By Check)
 1/2 Day Soccer Skills Clinic W/NEFC Coaches \$350
 (Add Lunch + Afternoon Electives= \$700)

DAY TRIPPER CAMPS

Day Tripper Adventure- \$750 (\$740 Pay By Check)
 Day Tripper Codebreakers, Or Day Tripper Photo Op- \$725 (\$715 Pay By Check)

EXTENDED DAY

7:30AM-8:45AM - \$80/Week
 4:00PM-6:00PM - \$135/Week
 Both AM And PM- \$190/Week
 Drop-In Hourly Rate- \$17/Hour

SUMMER FENN
www.summerfenn.org

516 Monument St. Concord, MA 01742
 Phone: 978.318.3614, Fax: 978.318.3683, summercamp@fenn.org

이 칼럼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이명원

한국공인회계사/미국공인회계사
(미국)MW LEE, CPA P.C. 대표
(한국)호연회계법인 국제조세본부장
Boston Tel. 617-455-8073 Fax. 617-249-2088
Seoul Tel. 010-5042-8073 Internet. 013-0533-9910
mwl@mwleecpa.com 또는 mwlee@kicpa.or.kr

2018년 세금신고 안내

개인소득세 신고(Individual Income tax Return)(10)

- 사회보장연금 수령액(Social Security Benefits/ 국민연금)에 대한 과세

사회보장연금수령액(Social Security Benefits)에 대한 과세방법은 연금을 수령한 사람이 미국시민권자나 영주권자를 포함한 거주자인지, 아니면 비거주자(non-resident alien)인지에 따라 다르다.

1. 미국거주자에 대한 과세

미국의 시민권자나 세법상 거주자의 사회보장연금(Social Security Benefits)에 대한 과세여부는 수령한 사회보장연금수령액(Social Security Benefits)의 규모, 다른소득의 유무, 세금신고유형(filing status) 등에 따라 결정된다.

기준금액(Base amount)

먼저, 사회보장연금수령액(Social Security Benefits)이 과세되는지 여부는 ①수령한 사회보장연금수령액(Social Security Benefits)의 50%와 ②기타 다른소득(비과세이자 소득이나 foreign earned income exclusion금액등도 포함)을 합한 금액과 아래의 기준금액(Base amount)을 비교하여 결정된다.

Filing status	Base amount
single, HOH, qualifying widow(er)	\$25,000
married filing separately and lived apart from your spouse for all of 2017	\$25,000
married filing jointly	\$32,000
married filing separately and lived with your spouse at any time during 2017	\$0

비교 결과 위 ①과 ②를 합한 금액이 기준금액 이하이면 수령한 모든 사회보장연금(Social Security Benefits)이 비과세되며,

①과 ②를 합한 금액이 기준금액을 초과하면 사회보장연금(Social Security Benefits)중 일부가 과세된다.

따라서 사회보장연금수령액(Social Security Benefits)은 납세자의 현황에 따라 과세가 안 될 수도 있고, 일정부분 과세될 수도 있다.

과세대상금액

다음으로, 사회보장연금수령액(Social Security Benefits)이 과세가 된다면 얼마가 과세대상에 포함되는지 살펴보면,

수령한 연금액의 50%와 다른소득을 합한 금액이 \$34,000(부부합산신고자의 경우 \$44,000)이하이면 50%가 과세되고, \$34,000(또는 \$44,000)을 초과하면 그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는 85%가 과세된다.

결론적으로 위의 내용을 종합하여 부부합산신고자의 사회보장연금 과세대상 금액을 계산해 보면, 수령한 사회보장연금(Social Security Benefits)의 50%와 기타 다른소득의 합이

- \$32,000이하이면 수령한 사회보장연금(Social Security Benefits) 전액 이 비과세되고,
- \$32,000에서 \$44,000사이의 금액은 50%가 과세되며,
- \$44,000을 초과하면 그 초과한 금액은 85%가 과세된다.

원천징수(withholding)

일반적으로 시민권자나 영주권자를 포함한 세법상 거주자(resident alien)의 사회보장연금수령액(Social Security Benefits)은 원천징수대상이 아니다. 따라서 한국에 거주하는 영주권자라 하더라도 그 영주권자가 받은 사회보장연금수령액(Social Security Benefits)은 원천징수대상이 아니다(조세조약에 의해 미국의 비거주자로 비거주자로 인정된 사람 제외). 만약 한국에 거주하는 영주권자중 사회보장연금수령액(Social Security Benefits)에 대해 원천징수당한 금액이 있으면 SSA(Social security administration)에 그 금액을 환급해 달라고 요구하거나, 아니면 세금신고 시 Form 1040을 작성하여 환급받을 수 있다.

위에서 설명했듯이 일반적으로 사회보장연금수령액(Social Security Benefits)은 원천징수대상이 아니나 연금 수령자가 일정액의 원천징수를 원하면 세금을 원천징수할 수 있다. 따라서 시민권자나 영주권자 중 사회보장연금수령액(Social Security Benefits)이 과세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는 사람은 중간예납(estimated tax) 가산세를 회피하기 위해 분기별로 일정액을 납부(estimated tax)하든지, 아니면 매월 연금수령시 원천징수를 요구하여 일정액을

미리 납부할 필요가 있다.

한국에 거주하는 시민권자 및 영주권자에 대한 과세

한국에 거주하는 시민권자나 영주권자가 수령한 미국의 사회보장연금액(Social Security Benefits)은 어디서 과세될까?

이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한미조세조약을 살펴봐야 하는데, 한미조세조약 24조에서는 ‘공적연금(public pension : Social Security/국민연금 등)의 경우, 연금을 지급한 국가에서만 과세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한국에 거주하는 미국시민권자나 영주권자가 미국정부로부터 수령한 사회보장연금액(Social security benefits)은 미국에서만 과세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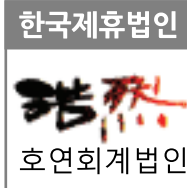
참고로 ‘사적연금’은 수령한 사람의 거주지 국가에서만 과세된다(한미조세조약 23조). 즉, 한국의 거주자에 해당하는 미국의 시민권자나 영주권자가 과거 미국에서 근무한 대가로서 미국에서 받은 퇴직연금등은 한국에서만 과세된다. 그런데 Savings Clause 규정에 의해 한국과 미국은 한미조세조약에 불구하고 각각 자국의 시민에게 사적 연금수령액에 대해 과세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반드시 외국납부세액공제를 해 줘야한다. 다시 말하면, 한국에 거주하는 시민권자가 미국으로부터 사적 퇴직연금을 수령하면, 그 소득에 대해 거주국인 한국의 세법에 따라 한국에 세금을 내야 하며(실제과세여부는 한국의 세법에 따름), 또한 savings clause 규정에 의해 미국에도 세금을 내야 한다. 다만 미국의 세금계산시 한국에 납부한 세금은 외국납부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2. 미국의 비거주자에 대한 과세

미국의 비거주자(nonresident alien)는 수령한 사회보장연금액(Social Security Benefits)에 대해 미국에서 세금을 내야한다. 이 경우에는 원천징수의무자가 매월 사회보장연금액(Social Security Benefits) 지급시 그 지급액의 85%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 30%(즉, 연금수령액의 25.5%)를 원천징수하며, 비거주자는 이러한 원천징수로 납세의무가 종결된다.

M 이명원 회계사

MW LEE, CPA P.C.



이명원 회계사
한국 공인 회계사
미국 공인 회계사

MW LEE, CPA P.C. 대표
호연회계법인 국제조세 본부장

(전) 삼일회계법인 근무
(전) 한국 공인회계사회 세법 강사
(전) Rucci, Bardaro & Barrett P.C. 근무

“한국과 미국의 세무를 한번에!”



- 한국과 미국의 개인 세금보고 / FBAR / FATCA 보고
- 한국과 미국의 법인 세금보고
- 양도, 상속, 증여 절세 대책
- 한국 개인 및 법인의 미국 지사 설립 / 관리
- 한국 개인 및 법인의 한국 지사 설립 / 관리
- 한국과 미국의 본사 보고서 작성
- 한국과 미국의 회계기준에 의한 회계감사 보고서 / 검토 보고서 작성

617.455.8073
mwl@mwleecpa.com
1318 Beacon St. #12(right)
Brookline, MA 02446



*전상품 무약정

Plus 상품
방송 3사

\$14.99

Premium 상품
방송 3사
지상파 / 케이블

\$24.99

VIP 상품
방송 3사 / 종편
지상파 / 케이블
Live / 스포츠

\$34.99

티보 대리점 모집

동부 및 서부 매사추세츠, 커네티컷, 뉴햄프셔, 로드아일랜드의 티보 대리점을 모집합니다!
 각 딜러는 LA 본사와 직접 계약을 체결하며 초기 자본 없이 창업이 가능합니다.
 주요 업무: 신규 서비스 설치 및 기존 고객관리
 연락처: 617.949.1766



티보
실시간 한국방송
서비스 확대



지금 전화하세요!
617.949.1766

연합뉴스TV MBN / 채널A(동아방송) / KIDS / 육아방송 / CBS(기독교방송) / ETN / 바둑TV / 이벤트TV / KTV / 우리방송



휴람 네트워크와 제휴한 '세란병원'

중년의 통과의례 갱년기 대처에 따라 중년 이후 건강 좌우해!

-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갱년기 몸의 변화 잘 체크해야
- 변화에 그치지 않고, 건강에도 직결될 수 있어 주의



성인에게 찾아오는 '제 2의 사춘기', 중장년의 시기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통과 의례' 이는 모두 갱년기를 두고 하는 말이다.

이번 주 휴람에서는 휴람네트워크 세란병원의 도움을 받아 중년에 한번쯤은 겪어야 할 갱년기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고자 한다.

갱년기는 성호르몬의 변화에 따라 신체적, 정신적 변화가 오는 시기를 말하는데, 남성과 여성 모두에게 찾아오며 여성에게서 더욱 뚜렷하게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

보다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여성에게 뚜렷하게 나타난다고 하기 보다는 급작스러운 변화가 찾아온다는 것이 옳은 표현일 수 있다. 30대부터 서서히 변화를 시작하는 남성과 달리 여성들은 50대를 전후하여 급격한 호르몬의 변화를 겪기 때문이다.

이러한 여성들의 갱년기는 폐경기와 동일한 의미로 해석된다. 호르몬의 갑작스러운 변화로 폐경이 일어나고 갱년기 증상이 나타나기 때문이다.

갱년기에 나타날 수 있는 증상은 크게 정신적인 변화와 신체적인 변화 둘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먼저 정신적인 변화는 정신적 불안정과 우울 증상이 대표적이며, 급격한 감정의 변화가 외부로 표출되는 경우도 흔하기 때문에 가장 많이 알려져 있는 증상이기도 하다.

신체적인 변화는 방광염, 배뇨통, 요실금과 같은 비뇨생식기계를 비롯하여 근육통, 관절통, 골다공증 등의 관절계 증상, 안면홍조 등의 발

열, 피부 변화 등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다.

이 같은 다양한 변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에서는 누구나 겪는 일이라고 소홀하게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앞서 언급한 변화들에서 알 수 있듯이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많은 만큼 스스로의 관리의 물론, 가족들의 관심과 배려가 매우 중요한 시기이다.

특히, 요즘과 같이 100세 시대라는 말이 어색하지 않을 정도로 평균 수명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시대에는 인생의 절반 정도를 갱년기 이후의 삶을 살아야 하기 때문에 갱년기의 건강관리가 노년의 건강을 책임진다고 할 수도 있다.

갱년기 여성들의 효과적인 건강 관리를 위한 기본적인 검진 항목 이외에도 초음파나 인유두종 검사 등 여성 건강을 체크할 수 있는 항목들을 챙긴다면, 갱년기에 겪을 수 있는 건강상의 문제를 보다 빠르고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기 때문이다.

반면, 갱년기 여성들을 대상으로 하는 건강 보조 식품이나 다양한 제품이 많은데, 이를 무분별하게 쓰기 보다는 자신에게 나타난 증상에 대해 정확하게 자각하고 있는 상황에서 담당 의

사와의 상담을 통해 보조적인 역할로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세란병원 산부인과 박상원 과장은 “갱년기는 누구에게나 한 번은 찾아오는 자연스러운 변화의 과정이다” 라며, “하지만, 변화의 과정에서 건강상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자신에게 나타나는 변화에 보다 많은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고 말했다.

박 과장은 이어 “일상 생활에서의 관리 역시 갱년기 극복에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는데, 균형잡힌 식생활이나, 신체에 무리가 가지 않는 선에서의 운동을 꾸준히 하는 것이 좋으며, 평소 관심 있어 하는 분야나 좋아하던 일을 취미 삼아 하는 것도 갱년기 개선에 긍정적인 효과를 줄 수 있다” 고 조언했다.

“중년의 통과의례 갱년기” 및 그 밖의 휴람에 대한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보스톤코리아 (617-949-1766)에 문의하시면 자세한 안내를 도와드릴 것입니다.

휴람이 상담부터 병원선정 - 진료예약 - 치료 - 사후관리까지 보호자로서 도와드릴 것입니다.

이 컬럼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백영주의 부동산 파라잡기
Direct (617)-921-6979
E-mail: claraipaik@ownnewengland.com

감성과 논리의 충돌

인간은 경제적인 문제를 결정할 때, 논리를 바탕으로 결정한다고 쉽게 생각하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

비논리적 감성이 많이 개입된다. 사람들에게 “100일 뒤에 \$100을 받겠습니까? 101일 뒤에 \$102을 받겠습니까?” 라고 물으면, 대부분이 101일을 선택한다. 하루 더 기다려서 \$2을 더 받는 것이 논리적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같은 사람들에게 “오늘 \$100을 받으시겠습니까? 아니면 내일 \$102을 받으시겠습니까?” 라고 다시 물으면, 대부분이 오늘 \$100을 받는다고 한다. 눈앞의 이익이라는 감성이 논리를 이긴 것이다.

현대 인간에게 있어서 돈이라는 욕망은 생존과 종족번식의 기본생리학적 욕구만큼 강하다. 돈 때문에 생존의 욕망을 포기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람들의 이야기들을 신문기사를 통해서 쉽게 접할 수 있다. 또한 돈은 자신의 중요성, 감

성의 표현으로 방출하기도 한다.

스탠포드 대학에서 이 현상을 확인하기 위해서 실험을 실시했었다. 강의실에 30명의 학생들을 모아서 멋진 커피 잔을 보여준다. 그리고 그 커피 잔의 가격을 적어 보라고 했다. 모든 학생들이 약 \$6 정도로 가치를 판단했다. 교수는 그 자리에서 5명의 학생들에게 그 커피잔들을 선물했다. 한 시간뒤에 커피 잔을 선물 받은 5명의 학생들을 다시 불렀다. 이번에는 그 학생들에게 자신이 선물 받은 커피 잔을 얼마에 팔것인가를 물었다. 이들은 모두 \$6 보다 높은 가격인 \$9 정도의 가격에 팔겠다고 했다. 그 이유를 물었더니, “내가 선물로 받았기에 특별한 커피 잔이어서 그래요.” “나에게는 의미있는 커피 잔이 되었어요. 그 가치는 다른 커피 잔들보다 더 의미가 있어요” 등이었다. 불과 한 시간만에 5명의 학생들은 자신의 커피 잔에 비논리적인 가치를 부과한 것이다.

주택매매는 커피 잔보다 더 비싸고, 더 오래 소유했고, 더 의미있는 매물이다. 셀러가 항상 시세보다 비싸게 주택의 가격을 책정하는 이유는, 셀러도 인간이기 때문이다. 셀러에게는 참으로 의미가 있는 자신의 집을, 다른 집들 보다 더 가치 있게 생각하는 것이 당연하다. 그 집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바이어는 차가운 논리로 접근하지만, 셀러는 따뜻한 감성으로 버티고 있는 것이다. 바이어에게는 셀러의 가격해명이 참으로 어이없는 변명으로 들린다. 논리적 이해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감정이 이를 대체한다. 결국 논리적 거래가 감정적 거래로 변하는 것이다.

감정적인 문제를 논리적으로 해결하려는 것은 참으로 어렵다. 그렇다고 주택매매라는 현실적 돈거래를 비논리적인 감성으로 해결할 수는 없다. 결국 나의 주택을 나 만큼 사랑하는 바이어를 만나든지, 주택의 현재시세에 동의하는 셀러를 만

나든지 빠른 매매의 비결이다. 다만, 현실은 그렇게 쉽지 않기에, 대다수의 거래는 논리적 해결책을 제시하되, 감성적 접근이 필요한 것이다.

백영주 (Clara Paik)
Executive Manager
Berkshire Hathaway N.E. Prime Properties
Realtor, ABR, GRI, CCIM.
Multi-Million Dollar Sales Club, Top 25 Individual of 2006, 2007, 2008, Re/Max New England, Association of Board of Realtors, Massachusetts Association of Realtors, Boston Real Estate Board.
Office 781-259-4989
Fax 781-259-4959
Cell 617-921-6979

보스톤코리아

보스톤 한인업소록



구글에서 찾을 수 없는 한인업소들의 알짜 정보를 담은 한인업소록을 발간

보스톤의 모든 한인 업소를 한눈에 확인하세요 !

2013년 보스토니안 발행이후, 6년만에 보스톤 한인업소록을 개정해서 발간합니다.

이번에 발간되는 2019년 보스톤 한인업소록에는 보스톤 지역뿐만 아니라, 로드 아일랜드 및 뉴햄프셔 등 뉴잉글랜드 지역을 포함하여 필요한 정보를 망라합니다.

이 디지털 한인업소록은 카톡, 페이스북 등의 SNS와 이메일 등으로 고객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최소 투자로 최대 효과를.

지금 바로 보스톤코리아로 연락하십시오.

광고 문의 및 업소등록 : 617.254.4654

				<p>보스톤코리아</p> <p>617.254.4654</p> <p>bostonkorean@hotmail.com</p>
				

사업의 시작은 Lee Associates 이경해 부동산

Broker & Realtor(1985년부터 보유) 사업 및 부동산 무료 상담

1.800.867.9000

Cell 508.962.2689
Tel 781.297.5679

www.leebrokers.biz
Email. kayleebrokers@aol.com



- * 상가 건물 전문-투자, R&D, 콘도, 아파트 건물
- * 상가 건물 용자, 비즈니스 용자 알선
- * 1031 Exchange (상가건물 세금 혜택) 서비스
- * 미 전역 프랜차이즈 비즈니스
- * E2 바자 사업체 전문-비즈니스 무료 상담
- * 다양한 리스팅 많이 보유

전국 프랜차이즈 Subway 보스턴 남쪽, 연매상 \$395,000 매매가격:\$140,000 (\$7,500 - 한 번 내는 이전비 포함), 대학교 근처 훈련, 소유자 20+ 년 경영후 은퇴

보스턴 북쪽 풀 플랜트 연매상 \$120,000+ 고급 동네, 좋은 매매가격, 처음 사업 시작하는 바이어 환영. 오우너 파이낸스 고려

렉싱턴 근교 세탁소 드랍 연매상 \$165,000 40년+ 운영, 소유자건강 문제, 공장소유자 환영

급매매, 매드포드/섬머빌 세탁소 연매상: \$110,000, 좋은 매매가격: \$80,000

급매매, 보스턴 북쪽 세탁소, 풀 플랜트+셔츠 연매상 \$265,000, 좋은 매매 가격 \$200,000 고급 동네

보스턴 남서쪽, 내일 + 스킨 살롱: 연매상 \$250,000 + 온라인 화장품 세일 (\$400,000+)

로드아일랜드 성업중인 한국 식당 연매상 \$2.0M, 매매가격 \$640k 풀리커 면허증, 72석, 대학교 근처

주유소+컨비니언스 여러장소 리스팅 있음

보스턴 세탁소 풀 플랜트+셔츠유닛 연매상 \$220,000 노 퍼크기계 소유자 은퇴

보스턴 북쪽 세탁소 풀 플랜트+셔츠유닛 연매상 \$780,000 드롭스토어 연매상 \$200,000 렌트 \$800/월, 100% 고용인이 경영 총연매상 \$980,000 오너파이낸스고려 소유자 은퇴 (30년-건물주인)

보스턴 서쪽 풀 플랜트 & 셔츠 기계 최고의 위치, 대형 플라자, 40년이상 존재 연매상: \$390,000+

보스턴 북쪽 동양식당과 부동산 (오피스 콘도) 식당 연매상 \$725k, 풀리커 면허증, 고급 동네 매매가격 \$2M, 셀러 은퇴

보스턴 북쪽 세탁소+셔츠유닛+드롭오피스스토어 연매상 \$500,000+ 하이드로 카본 세탁기계 오랫동안 안정적으로 운영된 비즈니스

프레밍햄 지역: 연매상 \$250,000 소유자 100% 부재중 운영, 새 기계들

보스턴 북쪽 헤어살롱, 아주고급동네 연매상 \$80,000 좋은 렌트

다음호는 인터넷 신문으로 발간합니다

이메일 주소 혹은 카카오톡 아이디를 bostonkorean@hotmail.com으로 보내주시면 온라인 신문을 직접 발송해 드립니다.

이제,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보스톤코리아 기사를 확인하세요!

